

제 1 교시

2013-2008학년도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 국어 영역

홀수형

성명

수험 번호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그대의 오늘 국군의 내일 조국의 미래
----------------------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 (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盡人事待天命

제 1 교 시



2013학년도 육군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 인 어 영 역

공 통

성명	
----	--

수험번호									
------	--	--	--	--	--	--	--	--	--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 육 군 사 관 학 교

권  
말

1. <보기>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카페인 과잉 섭취 예방’이란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한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보 기 >

(가) 신문 보도 자료

최근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들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에 카페인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청소년들의 카페인 과잉 섭취를 줄이기 위해 식품별 카페인 함유량과 1일 적정 섭취량(체중 1kg당 25mg 이하)을 조사, 발표하였다. 또한 2013년부터는 고카페인 식품에 카페인 함유량과 카페인 과잉 섭취를 경계하는 주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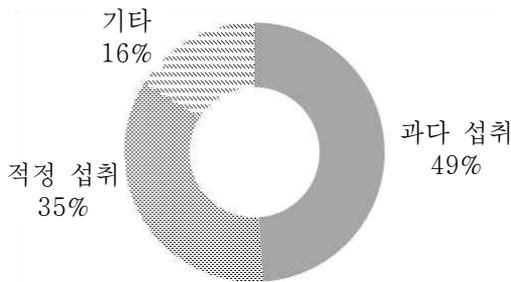
- ○○신문 -

(나) 전문가 인터뷰 자료

“많은 청소년들이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 콜라, 초콜릿 등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지나치게 선호합니다. 카페인을 지나치게 섭취하게 되면 불면증, 집중력 장애,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이러한 카페인의 부작용을 모르고 있고, 이것이 카페인을 과잉 섭취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어른들보다 카페인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카페인 음료를 마시고 싶을 때는 그 유혹을 참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강관리센터 소장 박○○ -

(다) 통계 자료



[청소년들의 하루 카페인 섭취 실태]

- ① (가)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카페인 과잉 섭취를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음을 소개한다.
- ② (나)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카페인의 과잉 섭취가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과 함께 카페인 섭취 욕구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③ (가), (나)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카페인을 과잉 섭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카페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 ④ (가), (다)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 적정량 이하의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 ⑤ (나), (다)를 활용하여, 카페인을 과잉 섭취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을 문제 상황으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한다.

[2~3] <보기>는 ‘공정 무역’을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초고이다. 2번과 3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 < 보 기 > —

가격과 품질뿐 아니라 윤리와 나눔, 환경 보호를 추구하는 ‘공정 무역’이 새로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공정 무역은 ‘공정하고 올바른 무역’이라는 뜻으로, 제3세계의 가난한 생산자들이 만든 물건을 공정한 가격에 거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제3세계의 가난한 생산자들에게는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해 주고, ㉠ 윤리적·환경적 기준에 부합하는 좋은 제품을 정당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국제빈민구호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한 해 영국 소비자가 우간다산 커피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돈 가운데 커피 재배 농민에게 돌아간 몫은 ㉡ 과연 0.5%였다고 합니다. 이는 다국적 기업들이 농민들로부터 터무니없는 헐값에 커피콩을 사들이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무역구조는 생산 농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 공정 무역은 불공정한 무역구조를 개선해 선진국과 후진국이 함께 혜택을 누리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인정해 주지 않는 기존의 불합리한 무역 구조로는 세계의 가난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정 무역은 시작되었습니다.

공정 무역은 ‘착한 무역’이라고도 합니다. 여성과 아동의 ㉣ 노동력이나 환경 파괴를 초래하는 생산 과정을 통해 만든 제품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공정 무역의 대상이 되는 제품들은 매우 다양하고 사용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이는 공정 무역이 인류의 인권 신장과 친환경적인 생산을 적극적으로 표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A]

2. 위 글을 고쳐 쓰기 위한 구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은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었으므로 ‘소비자들에게는’을 추가해야겠군.
- ② ㉡은 문맥의 흐름을 고려하여 ‘무려’로 고쳐야겠군.
- ③ ㉢은 문장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바로 뒤의 문장과 맞바뀌야겠군.
- ④ ㉣은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환경 파괴를 초래하는’으로 고쳐야겠군.
- ⑤ ㉤은 문단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으므로 삭제해야겠군.

3. <보기>의 조건에 따라 [A]에 넣을 내용을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 공정 무역이 갖는 의미를 언급할 것
- 공정 무역 제품의 소비를 직설적으로 권유할 것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전달 효과를 높일 것

- ① 세계의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공정 무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 무역에 동참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3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여러분의 행복도 그만큼 커집니다.
- ② 공정 무역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공정 무역 제품을 구입해 주세요. 여러분의 착한 소비가 제3세계 가난한 사람들의 메마른 가슴에 내리는 촉촉한 단비가 될 것입니다.
- ③ 공정 무역은 인류가 함께 번영하는 세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공정 무역 제품을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제3세계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적 궁핍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④ 우리나라의 공정 무역 소비는 외국에 비해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인류의 인권과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는 새로운 소비문화! 당신이 그 첫걸음을 떼지 않으시겠습니까?
- ⑤ 가혹한 노동 환경에 노출된 제3세계 어린이들의 고통을 아시는지요? 이제부터는 공정 무역 제품을 사용해 보세요. 그들에게도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4. <보기1>을 참고하여, <보기2>에서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1 > —

용언이 활용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를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며, 이러한 활용을 하는 용언을 불규칙 용언이라고 한다. 불규칙 활용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유형]	[기본형]	[활용]
• 어간이 바뀌는 경우	묻다	묻고, 물어(← 묻 + 어) ……
• 어미가 바뀌는 경우	누르다	누르고, 누르러(← 누르 + 어) ……
•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	하얏다	하얏고, 하얘(← 하얏 + 아) ……

— < 보 기 2 > —

ㄱ. 걸어서 도착한 무진은 안개로 가득 차 있었다.

ㄴ. 선생님이 웃는 표정을 지어서 분위기가 좋아졌다.

ㄷ. 신록이 짙어지니 멀리 있는 산이 푸르러 보이는구나.

ㄹ. 한 십 년쯤 세월이 흘러 우리가 만난다면 어떤 모습일까?

ㅁ.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얼굴이 빨개서 묻는 말에 대답도 못 한다.

- ① ㄱ의 ‘걸어서’는 기본형이 ‘걷다’이므로 어간이 바뀐 경우이군.
- ② ㄴ의 ‘지어서’는 기본형이 ‘짓다’이므로 어간이 바뀐 경우이군.
- ③ ㄷ의 ‘푸르러’는 기본형이 ‘푸르다’이므로 어미가 바뀐 경우이군.
- ④ ㄹ의 ‘흘러’는 기본형이 ‘흐르다’이므로 어미가 바뀐 경우이군.
- ⑤ ㅁ의 ‘빨개서’는 기본형이 ‘빨갳다’이므로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뀐 경우이군.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일을 타고 오른다.  
흔들리는 생애의 중량  
확고한  
가장 철저한 믿음도  
한때는 흔들린다.

암벽을 더듬는다.  
빛을 찾아서 조금씩 움직인다.  
결코 쉬지 않는  
무명(無明)의 벌레처럼 무명을  
더듬는다.

함부로 올려다보지 않는다.  
함부로 내려다보지도 않는다.  
벼랑에 뜨는 별이나,  
피는 꽃이나,  
이슬이나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다만 가까이 할 수 있을 뿐이다.

조심스럽게 암벽을 더듬으며  
가까이 접근한다.  
행복이라든가 불행 같은 것은  
생각지 않는다  
발 붙일 곳을 찾고 풀포기에 매달리면서  
다만,  
가까이,  
가까이 갈 뿐이다.

- 오세영, 「등산」 -

(나)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 하고  
가르기 전에 건넌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금이 문제리,  
황금 벼이삭이 문제리,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들어 내고  
 손발 닳은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面)들아.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  
 그러다 금시  
 절로 면(面)에 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리며  
 먼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  
**본(本)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 박재삼, 「홍부 부부상」 -

(다)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肝)을 펴서 말리우자.

코카서스 산중에서 도망해 온 토끼처럼  
 둘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

내가 오래 기르는 여원 독수리아!  
 와서 뜯어먹어라, 시름없이

너는 살찌고  
 나는 야위어야지, 그러나,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불 도적한 죄로 목에 멧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沈澱)하는 프로메테우스.

- 윤동주, 「간」 -

## 5.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현재의 처지를 수용하는 자세가 담겨 있다.
- ② 유한한 삶에서 오는 허망함이 드러나 있다.
- ③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④ 인생에 대한 깨달음의 과정이 드러나 있다.
- ⑤ 세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나 있다.

## 6. (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가)는 반어적 표현을, (나)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가)는 동일한 시행을, (나)는 감탄형 어미를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하여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의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가), (나)는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활용하여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다.

## 7. &lt;보기&gt;는 수업 시간에 (나)에 나타난 ‘웃음’의 의미를 추리해 발표한 내용이다. 적절한 것을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3점)

## — &lt; 보 기 &gt; —

- ㄱ. ‘웃음살’은 ‘박덩이를 사이 하고’를 고려할 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운이 뒤따를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는 웃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ㄴ. ‘웃음’은 ‘황금 벼이삭이 문제리’의 의미와 연결할 때, 풍요롭지는 않지만 소박하게나마 행복을 느끼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웃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 ㄷ. ‘웃어’는 ‘손발 닳은 처지끼리’와 연계할 때, 고달픈 삶을 함께 해 왔던 부부가 서로를 위로하는 과정에서 나온 웃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ㄹ. ‘웃다가’는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를 고려할 때, 비참한 현실 상황을 자각한 후 느낀 절망감이 내재된 자조적 웃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 ㅁ. ‘본(本)웃음’은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의 의미를 고려할 때, 가난한 삶의 한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진정한 사랑이 담긴 웃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8.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관련 설화]

- 「구토지설」에서 ‘토끼’는 거북이의 유혹에 이끌려 용궁에 간 후 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지만, 기지를 발휘하여 용궁의 권력으로부터 간을 지켜 냈다.
- 「그리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주어 인류의 문명 발달에 크게 기여했지만, 그로 인하여 제우스의 노여움을 사 코카서스 산중의 바위에 묶여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고통을 받았다.

[윤동주의 시, 「간」에 나타난 시인의 내면 의식]

윤동주는 일제의 핍박을 받고 있는 암울한 식민지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늘 부끄러워했다. 그의 부끄러움은 식민지 지식인의 양심을 지키려고 애쓰는 ‘정신적 자아’와 무기력하게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육체적 자아’의 갈등에서 촉발된 것이었다. 그가 독립운동의 혐의로 검거된 후 1945년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한 사실은, 내적 성찰을 통해 무기력한 자아를 서서히 소멸시켜 나간 그의 양심이 독립을 위한 자기희생이라는 실천적 행동으로 발현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간」은 이러한 그의 내면 의식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 ① ‘습한 간’은 식민지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삶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시인의 부끄러움이 내재되어 있다.
- ② ‘코카서스 산중’은 ‘토끼’에게 시련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일제의 핍박을 받고 있는 암울한 시대 현실을 상징한다.
- ③ ‘여윈 독수리’로 비유된 ‘너’는 정신적 자아인 ‘나’를 뜯어 먹으며 살찌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육체적 자아를 의미한다.
- ④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는 시인이 부정적 시대 현실에서 자신의 정신적 자아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 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위해 불을 훔친 죄로 ‘맷돌’을 매달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시인과 동일시된 대상이다.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경』의 「홍범(洪範)」 편에 “치우침이 없고 사사로움이 없으면 왕도가 넓고 평평할 것이며, 어긋남이 없고 기울어짐이 없으면 왕도가 정직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모든 정사가 중앙으로 모여 공명정대한 데로 돌아가리라.”라고 하였다. 이처럼 극(極)을 세운 도는 마침내 탕평(蕩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탕평의 요점은 한쪽으로는 치우침과 사사로운 마음을 막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치우치고 사사롭게 하면 어긋나고 기울어지게 되며, 넓고 공평하게 하면 바르고 곧게 될 것이다.

중등 이상의 사람은 말로써 그 잘못을 깨우칠 수 있으나, 중등 이하의 사람은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말이 아니라 이로움으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내 그 말을 듣고 기뻐하기만 하고 그 뜻을 되새기지 않을 것이며, 그 말을 따르기만 하고 정작 자신의 잘못을 고치지 않을 것이다.

이로운 것을 좇고 해로운 것을 피하는 것은 사람들의 똑같은 마음이다. 연(燕)나라 사람과 월(越)나라 사람이 배를 함께 탔을 때, 성품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지만 풍량을 막는 데에서는 지혜와 힘을 기울임이 한결같으니, 이는 이해(利害)가 같기 때문이다. 부부가 한집에 사는데 씨족도 다르고 습속도 다르지만 살림을 하는 데에서는 다른 마음이나 생각을 갖지 않으니, 이 또한 이해가 같기 때문이다. 조정에 있는 대소의 관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여, 연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배를 함께 타고, 부부가 한집에서 살림하는 것처럼 한다면, 탕평이 이룩될 것이다. 그러나 한쪽은 총애하고 한쪽은 소홀히 하여 한쪽은 즐겁고 한쪽은 괴로우며, 부귀와 빈천의 간격을 고르게 하지 못하고서 한갓 ㉠ 빈말로 타이르고 실상이 없는 꾸지람을 하는 데 구구하게 힘을 허비하면서, 자기 몸에 절실한 이해를 버리고 남의 권유를 따르라고만 한다면, 탕평이 어려울 것이다. 이로 보아 「홍범」에서 ㉡ “임금이 극(極)을 세운다.”라고 말한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당나라 · 송나라 때에는 과거 시험을 널리 베풀어 인재 선발이 빈번하였다. 따라서 영화와 총애를 바라는 데 급급해하는 것이 그 시대의 도도한 흐름이었다. 이로운 데로 나아가는 구멍은 하나뿐인데 백 사람이 뚫고 들어가려 하니, 어떻게 은혜를 널리 베풀어 원망을 없게 할 수 있겠는가? 등용하고 물리침에 극(極)이 바로 서지 못하면 왕도(王道)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쟁의 화는 대체로 과거 시험을 자주 베풀어 사람을 너무 많이 뽑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줄 알았으면 오늘부터라도 사람 뽑는 것을 점차 줄여야 한다. 국가에 경사(慶事)가 자주 있는데, 그럴 때마다 반드시 과거 시험을 실시한다. 과거(科擧)와 경사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자는 몇 사람일 뿐 수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데, 어찌 경사를 함께한다고 하겠는가? 더구나 과거 시험에 합격한 자는 모두 귀족이나 세도가의 자제들뿐, 사방에서 모여든 한미(寒微)한 사람은 그 속에 들지 못하는 데 있어서라?

- 이익, 「탕평(蕩平)」 -

9. 위 글에서 사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 ② 인용을 하면서 글을 시작하여 주의를 환기한다.
- ③ 체재를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전개한다.
- ④ 대비의 방법을 사용하여 논지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 ⑤ 상황을 가정하여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을 경계한다.

10. 위 글의 글쓴이(A)와 <보기>의 글쓴이(B)의 인재 등용에 대한 견해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하늘은 재주를 고르게 주는데 이것을 명문의 집과 과거(科擧)로써 제한하니, 인재가 늘 모자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동서고금에 첩이 낳은 아들의 재주를 쓰지 않는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우리나라만이 천한 어미를 가진 자손이나 두 번 시집 간 자의 자손을 벼슬길에 끼지 못하게 한다. 조막만 하고 더욱이 양쪽 오랑캐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나라에서 인재를 제대로 쓰지 못할까 두려워해도 더러 나랏일이 제대로 될지 점칠 수 없는데, 도리어 그 길을 스스로 막고서 “우리나라에는 인재가 없다.”라고 탄식한다. 이것은 남쪽 나라를 치러 가면서 수레를 북쪽으로 내달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 허균, 「유재론」에서 -

- ① A는 과거의 실시 횟수를, B는 과거의 응시 목적을 문제 삼고 있다.
- ② A는 인재의 등용 방법을, B는 인재의 양성 방법을 문제 삼고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나라에 쓸 만한 인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④ B는 A와 달리 부조리한 폐단이 많은 과거 시험의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둘 다 인재가 골고루 등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11. 위 글의 핵심 논지를 고려할 때, ㉠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한 것은? (3점)

- ① 절제하지 않으면 찻잔의 물이 흘러넘치듯이, 나라가 강성해지려면 임금이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 ② 배를 풍랑에서 보호하려면 지혜를 모아야 하듯이, 나라를 내우외환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임금이 학문에 정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 ③ 기둥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건물이 무너지듯이, 임금이 정사를 펼칠 때 치우침이 없어야 왕도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 ④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그림 조각을 짜 맞출 수 있듯이, 흩어진 왕도를 바로잡으려면 임금이 국가의 예법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 ⑤ 소나무가 사시사철 그 푸름을 유지하듯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깨우치려면 임금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백성들을 보살피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12.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허언(虛言)
- ② 감언(甘言)
- ③ 실언(失言)
- ④ 망언(妄言)
- ⑤ 참언(讒言)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구사하는 한국어는 대체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한국어와 꽤 다르다. 그들의 모국어가 새로 익힌 한국어에 간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인이 영어를 배울 때에도 생기는 일이다. 예컨대 한국어 ‘결혼하다’는 자동사여서, “나와 결혼해 줘.”라고 얘기해야지 “나를 결혼해 줘.”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영어를 처음 배우는 한국인은 “Marry me.”라는 두 낱말 사이에 ‘with’를 끼워 넣고 싶어 한다.

한국어는 음운 구조나 통사 구조가 외국어들과 다른 경우가 많아서, 외국인들이 쓰는 한국어에는 이들의 모국어가 행사하는 간섭의 흔적이 짙게 나타난다. 많은 외국어들이 조음점이 같은 자음들을 성대 진동 여부로 변별하는 것과 달리, 한국어는 /h/ 소리를 동반하는 정도에 따라 이런 자음들의 차이를 변별한다. 그래서 한국인에게는 매우 쉬운 /ㄱ, ㅋ, ㆁ/, /ㄷ, ㅌ, ㄸ/, /ㅂ, ㅃ/, /ㅅ, ㅆ/의 구별이 어떤 외국인들에게는 넘지 못할 산이 된다.

한국어의 유성음에는 모음과 유성 자음인 /ㄴ, ㄹ, ㄹ, ㅇ/이 있다. 그런데 ㉠ 무성 자음은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서 동화를 통해 유성음으로 발음될 수도 있다. 이를테면 ‘고고학’의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은 음소 수준에서 둘 다 /ㄱ/으로 시작되지만, 음성 수준에서는 무성음 [k]와 유성음 [g]로 각각 실현된다. 그래서 ‘고고학’은 [ko:gohak]으로 발음된다. 한국어 화자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규칙이 깊이 내면화되어 있어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구사하고 있지만, 자신의 모국어에 이런 규칙이 없는 외국인들은 이를 익히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고고학’을 [고코학], [고꼬학], [코꼬학] 비슷하게 발음하기 쉽다.

한국어에는 이보다 훨씬 복잡한 음운 규칙들이 많다. 예컨대 ‘독립문’이나 ‘불난리’를 글자 그대로 [독립문], [불난리]로 읽지 않고 왜 [동님문], [불랄리]로 읽어야 하는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외국인들은 알 도리가 없다. 이런 복잡한 규칙이 아니더라도, 한국어의 /—/나 /—/ 같은 독특한 모음을 외국인들이 제대로 익히는 일은 쉽지 않다.

통사 수준의 어려움은 이보다 훨씬 더하다. 일본어와 같이 통사 구조가 한국어와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은 덜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외국인들은 한국어 문장 성분들을 알맞은 순서로 배열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느낀다. 또한 주격 조사 ‘이’, ‘가’와 보조사 ‘은’, ‘는’의 구별도 이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다. 자신의 모국어에 조사가 없는 외국인들은 “꽃이 핀다.”와 “꽃은 핀다.”, “아이가 운다.”와 “아이는 운다.”의 의미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들 중에는 아예 조사를 생략하고 “꽃 핀다.”, “아이 운다.”와 같이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예는 한국어를 배우기로 마음먹은 외국인들이 겪어야 할 끝도 없는 고달픔의 시작일 뿐이다. 가까스로 통사 구조를 익히고 나면, ㉡ 한국인들도 더러 헛갈려 할 만큼 복잡한 경어 체계가 애를 먹이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국력이 신장됨에 따라 한국에서 살거나 아예 한국인이 되기로 마음먹은 외국인들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이다. 만약 이들이 모국어 집단별로 사용하는 탈규범적 한국어가 어느 수준의 실용성을 획득한다면, 한국에도 일종의 혼성어인 ㉢ 피진 비슷한 언어가 생겨날 수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언어권에 따라 그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한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1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점)

- ① 모국어에 대한 지식이 때로는 외국어를 학습할 때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
- ② 모국어에 조사가 없는 외국인들은 한국어를 말할 때 조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 ③ 한국어에는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가 발음하기 어려운 특유의 소리가 있다.
- ④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들은 성대의 진동 여부에 따라 모든 자음들을 변별한다.
- ⑤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들이 한국어의 모든 음운 규칙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14. ㉠과 같은 음운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3점)

- ① 아기, 굴비
- ② 누나, 담당
- ③ 마디, 눈물
- ④ 부부, 잉어
- ⑤ 바지, 상념

15. <보기>는 ㉠의 사례를 보여준 것이다. 이를 활용하여 외국인에게 한국어의 경어 사용법을 설명해 준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에 린 : “여보, 아버님이 지금 좀 오시랍니다.”  
 ㉡. 아브디 :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형, 여동생 그리고 저까지 모두 다섯 분입니다.”  
 ㉢. 교 코 : “할머니, 내 말 좀 들어보세요.”  
 ㉣. 제이슨 : “나의 사장님께서서는 마음이 무척 넓으십니다.”  
 ㉤. 평산산 : “교수님께서서는 자동차가 계십니까?”

- ① ㉠: 높여야 할 대상이 아버지이므로, 에린은 “아버님께서 지금 좀 오라십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 ② ㉡: 자신을 포함한 자기 가족의 수를 말하고 있으므로, 아브디는 “모두 다섯 명입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 ③ ㉢: 할머니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어야 하므로, 교코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라고 말해야 합니다.
- ④ ㉣: ‘나’와 ‘-시-’는 경어법상 호응이 되지 않으므로, 제이슨은 ‘-시-’를 빼고 “마음이 무척 넓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 ⑤ ㉤: 교수님의 소유물이 아니라 교수님을 높여야 하므로, 평산산은 “자동차가 있으십니까?”라고 말해야 합니다.

16. 위 글과 <보기>를 참고하여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보 기 >

‘피진’은 서로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들이 ‘교역언어’, ‘접촉언어’로 사용한 혼성어이다. 18세기 중국 광저우에서 중국과 영국의 상인들이 자신들의 모국어 대신 변형된 영어를 교역 언어로 사용하면서 처음 형성되었는데, 피진은 영어 어휘 ‘비즈니스(business)’를 광둥어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피진은 원래의 모국어들보다 훨씬 간단한 문법과 제한된 어휘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도 없는 임시변통의 언어이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피진을 모국어로 삼는 언어공동체가 발생하면, 이 혼성어는 피진이 아니라 ‘크레올’이 된다. 크레올은 피진보다 상대적으로 견고한 문법 구조와 확대된 어휘를 가지고 있다.

- ① 피진은 통사 구조가 상이한 언어들 사이에서 주로 발생한다.
- ② 피진은 소수 집단이 실용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 낸 일시적인 언어이다.
- ③ 피진은 두 개의 언어, 크레올은 세 개 이상의 언어를 바탕으로 한 혼성어이다.
- ④ 피진은 두 언어의 특성을 혼합한 것이므로 문장의 통사 구조가 다소 복잡하다.
- ⑤ 피진은 두 언어 사이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므로 공용어로 인정할 수 있다.

[17~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혼자 앉아 찾아오는 손님도 없이  
빈 뜰엔 비 기운만 어둑하구나.  
물고기가 흔들는지 연잎이 움직이고  
까치가 밟았는가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거문고가 젖었어도 줄에서는 소리가 나고  
화로는 싸늘한데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진흙길이 출입을 가로막으니  
하루 종일 문을 닫아걸고 있다.

— 서거정, 「독좌(獨坐)」 —

(나)

옷가슴 헤쳐 내여 광한전을 돌아앉아  
마음에 먹은 뜻을 다 사퇴려 하였더니  
마음 나쁜 부운(浮雲)이 어디서 와 가리었나?  
천지가 캄캄하여 백물(百物)을 다 못 보니  
상하 사방에 갈 길을 모르겠다.  
요잠 반각(遙岑半角)\*에 옛 빛이 비치는 듯  
운간(雲間)에 나왔더니, 때구름 미쳐 나니,  
㉠ 희미한 한 빛이 점점 아득하여 온다.  
중문을 닫아 놓고 뜰 안에 따로 서서  
매화 한 가지 계영(桂影)\*인가 돌아보니,  
치량한 암향(暗香)\*이 날 따라 근심한다.  
소렴(疎簾)을 지워 놓고 동방(洞房)에 혼자 앉아  
㉡ 금작경(金鵲鏡)\* 닦아 내어 벽상에 걸어 두니  
제 몸만 밝히고 남 비칠 줄 모른다.  
㉢ 단단 환선(團團紈扇)\*으로 긴 바람 부쳐 내어  
이 구름 다 걸고자. 기원 녹죽(淇園綠竹)으로  
일천 장 비를 매어 저 구름 다 쓸고자.  
㉣ 장공(長空)은 만 리요 이 몸은 진토(塵土)니  
쓸쓸한 이내 뜻이 헤나니 허사로다.  
가득 근심 많은데 긴 밤이 어떠한가?  
전전반측(輾轉反側)하여 다시금 생각하니  
영허 소장(盈虛消長)\*이 천지도 무궁하니  
풍운(風雲)이 변화한들 본색이 어디 가겠는가?  
㉤ 우리도 단심(丹心)을 지켜서 명월(明月) 불 날 기다리노라.

\* 요잠 반각 : 아득히 보이는 산봉우리의 반쪽 끝.

\* 암향 : 그윽이 풍기는 매화의 향기.

\* 단단 환선 : 비단으로 만든 둥근 모양의 부채.

\* 계영 : 계수나무 그림자.

\* 금작경 : 황금 까치를 조각한 거울.

\* 영허소장 : 달이 차고 지며, 초목이 자라고 스러짐.

— 최현, 「명월음(明月吟)」 —

(다)

불의의 실직과 주립과 공포 속에서 낙엽처럼 정처 없이 굴러다니는 나그네 길 반 년, 어느 날 뜻밖에, 정말 천만 뜻밖에 R이란 대학생이 내 숙소를 찾아왔다. 그것도 이른 아침. 나는, 어떻게 그가 나 있는 곳을 알았을까 하는 놀라움과 동시에 반가움을 숨길 도리가 없었다.

그러한 내 심정을 미리 헤아렸음인지, 일찍이 내 이웃에 산 일이 있던 R군은, 우연히 내 집에 들렀다 오는 길이라는 사연을 밝히면서, 내 겨우살이와 석류(石榴) 두 개를 꺼내 놓았다. 아이들의 편지도 함께.

나는 첫눈에 그 석류가 내 집 뜰에서 익은 것이라고 알아차렸다. 빨갭게 물든 석류를 앞에 두고 나는 한참 말이 없었다. 생각이 그지없었다.

피 본 막내딸애의 편지에는 “아버지를 기다리던 석류도 이제는 다 익어서 빨갭게 물이 들었습니다. 어젯밤에는 동네 아이들이 담 너머서 장대로 제일 이쁜 것을 들이나 훑어 가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그놈들을 뒤쫓느라고 야단을 했을 거라고, 모두들 웃었습니다…….”라고.

석류 이야기보다는 그것을 가꾸던 아버지를 기다리는 마음 간절함이 도리어 안타까웠다. 조롱조롱 가지에 매달린 석류를 쳐다보며, 그것이 익기 전부터 애비를 못내 그리워했을 것이고 익고선 더욱 아쉬워했을 것을 생각하면, 금방 목에 무엇이 치밀어 오르는 것만 같았다.

R군의 말을 들으면, 둘 중 하나는 맨 꼭대기에 달렸던 것이라니, 다른 때 같으면 가장 오래도록 두고 보던 그것을 특별히 따서 보낸 아이들의 마음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중략)

나는 물끄러미 **석류**를 바라보면서, 먼 고향과 거기에 두고 온 아내며, 아이들이며, 또 나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석류 알처럼 예쁘게 박힌 흰 이빨과 또 귀여운 얼굴들을 잊지 못했다.

더구나 곱게 물든 석류 빛처럼 아름답던 얼굴빛들이, 이제는 버릇없는 욕지거리에만 붉어지게 마련이고, 못난 나로 말미암은 만단수심(萬端愁心)에 찢기 없이 질리고 시들어지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그들을 지키고 돌보지 못하고 낙엽처럼 굴러만 다니는 내 자신이 그지없이 슬프기만 했다. 만약 석류가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러한 사연들을 얼마나 절절하게 알려 줄 것인가? 그러나 나는 말없는 석류의 표정에서 무한한 말들을 엿듣고 있지 않았던가? ㉠ 그러기에 나는 그것을 책상에 두어 두고 차마 깨지 못했다.

- 김정환, 「석류 일기」 -

1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내면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여유로운 일상에서 느끼는 삶의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과거 회상을 통해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고 있다.
- ④ 대상을 예찬하며 대상과 화합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대상과의 갈등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18. **매화**와 **석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매화’는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고, ‘석류’는 감정을 환기하는 대상이다.
- ② ‘매화’는 화자와 동화된 존재이고, ‘석류’는 화자와 대립되는 존재이다.
- ③ ‘매화’는 화자가 비관적으로, ‘석류’는 화자가 우호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 ④ ‘매화’와 ‘석류’는 모두 화자가 깨달은 삶의 교훈을 전달하는 소재이다.
- ⑤ ‘매화’와 ‘석류’는 모두 화자의 심리를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는 소재이다.

19.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은 어지러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정계에서 물러나 한가로움을 즐기며 칩거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세상에 나가 자신의 열정과 포부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작가의 심정을 담고 있다.

- ① ‘빈 딸’은 찾아오는 손님도 없다는 점에서, 세상과 떨어져 있는 화자의 고독한 마음을 담고 있다.
- ② ‘연잎’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정계에서 물러난 처지에서 느끼는 삶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화로’는 불씨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세상에 대한 열정과 포부를 간직하고 있는 화자를 의미하고 있다.
- ④ ‘진흙길’은 화자의 행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의 어지러운 정치적 상황을 함축하고 있다.
- ⑤ ‘문’은 화자가 닫아걸고 있다는 점에서, 세상에 나갈 때를 기다리며 칩거하고자 하는 심정을 담고 있다.

20.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최현은 34세에 미관말직(微官末職)으로 있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고향에서 의병에 가담하였다. 왜란이 끝난 뒤인 44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지냈다. 그가 지은 「명월음」은 임진왜란 당시 피난길에 오른 임금의 안위와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 ① ㉠은 임금이 피난길에 오를 정도의 암울한 전시 상황을 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은 의병에 가담한 자신의 충정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은 환란에서 임금과 나라를 지키고 싶은 우국충정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은 하급 관리로서 자신의 정치적 힘이 미약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은 현재의 상황이 긍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으리라는 화자의 기대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21. (다)의 ㉤의 이유로 보기 어려운 것은? (2점)

- ① 집으로 빨리 돌아갈 것을 스스로 다짐하기 위해서
- ②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
- ③ 나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 ④ 홀로 있는 나를 위로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 ⑤ 가족과의 추억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어서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건 마치 두꺼운 유리 속을 뚫고 간신히 걸음을 옮기는 것 같은 느낌이로군. 문득 동호는 생각했다. 산 밑이 가까워지자 낮 기운 여름 햇볕이 빈틈없이 내리부어지고 있었다. 시야는 어디까지나 투명했다. 그 속에 초가집 일여덟 채가 무거운 지붕을 감당하기 힘든 것처럼 납작하게 엎드려 있었다. 전혀 전화를 안 입어 보이는데 사람은 고사하고 생물이랄까 무엇 하나 살고 있지 않은 성실하게 주위가 너무 고요했다. 이 고요하고 거침새 없이 투명한 공간이 왜 이다지도 숨 막히게 앞을 막아서는 것일까. 정말 이건 두껍디두꺼운 유리 속을 뚫고 간신히 걸음을 옮기고 있는 느낌인데. 다시 한 번 동호는 생각했다. ㉠ 부리를 앞으로 향한 총을 꼭 옆구리에 끼고 한 발자국씩 조심조심 걸음을 내어 디딜 때마다 그 거창한 유리는 꼭 동호 자신이 순간순간 짓는 몸 자세만큼씩만 겨우 자리를 내어 줄 뿐, 한결같이 몸에 밀착된 위치에서 앞을 막아서는 것이었다. 절로 동호는 숨이 가빠지고 이마에서 땀이 흘렀다.

2미터쯤 간격을 두고 역시 총대를 옆구리에 낀 채 앞을 주시하며 걸음을 옮기고 있던 현태가 이리로 고개를 돌리는 것이 느껴졌다. 무슨 농말이라도 한마디 건네려는지 모른다. 그러나 동호는 모른 채했다. 잠시나마 한눈을 팔았다가는 지금 자기가 가까스로 헤치고 나가는 이 밀도 짙은 유리가 그대로 굳어버려, 영 움쪽달짝 못하게 될 것만 같았다.

첫 집에 도달하기까지 불과 40미터 안팎의 거리건만 한껏 멀어만 보였다.

수색이 시작되자 관심과 주의가 그리 옮겨지면서 동호는 지금까지 받아오던 압박감에서 적이 풀려났다. 수색대 조장인 현태가 손짓으로 대원 세 명에게는 집 둘레를 경비하게 하고, 자신은 병사 한 명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보통 때는 느리고 곧잘 익살을 부리던 현태가 전투태세로 들어가면 동작이 일변하여 야무져지고 민첩해지는 것이다. 어느새 바람벽에 등을 바짝 붙이고는 문을 확 열어젖히면서,

“폼짝 말어!”

나지막하나 속힘이 들어있는 목소리다.

몇 해나 묵은 창호지인지 검누르게 얼룩이 지고, ㉡ 군데군데 낡은 형겔 조각으로 땀질을 한 문짝이 열려진 곳에 드러난 킁킁한 방 안.

“손 들구 나와!”

밖에서 경비하던 세 사람까지 한순간 숨을 죽인다. 그러나 킁킁한 방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다.

현태가 총구를 들이밀며 재빨리 방 안을 살핀다. 빈집이다. 그렇건만 부엌과 뒷간까지 뒤진다. 그전 살던 사람들이 가난한 살림살이나마 급작스레 꾸러가지고 간 흔적만이 남아 있다.

다음 집들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런데도 현태는 번번이 바람벽에 등을 붙이고 문짝을 잡아 젓히면서, 폼짝 말어! 손 들구 나와!를 빠짐없이 외치곤 했다. 그러는 동안 밖에서 경비를 보던 동호는 점점 긴장이 풀리면서 어쩐지 현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어떤 판 세계의 일같이 생각됐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비현실적인 시간 속에 서있는 것만 같이 느껴졌다. ㉢ 병사 하나가 안마당에 떨어져 있는 감자알을 주워 얼른 호주머니에 넣는다. 그것이 더 가까운 현실 같았다.

그러나 이들 수색대의 신경을 긴장시킬 만한 일이 하나 생겼다. 무전기를 메고 경비를 보고 있던 윤구가 어떤 집 뒷간 옆 잣더미에서 낫선 통발이 한 짝을 발견한 것이었다. 바닥이 닳아 구멍이 나고 운두가 해진 신발짝이었다. 첫 눈에도 그것은 마을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보니 이집 저집 잣간에서 닭털이며 돼지털이며 개털들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것들의 뼈만은 그 중 넓은 집 마당에 아무렇게나 내버려져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모여 음식을 먹고 간 자리임에 틀림없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이 아닌 외부 사람들이 단시간에 어지럽히고 간 어수선했음이 아직 남아 있었다. 쉬파리가 들끓는 뼈다귀의 빛깔이 그다지 검게 변색되지 않은 걸로 미루어 시간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대원 다섯 명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면을 둘러보았다. 앞은 골짜기를 따라 옥수수와 고구마 밭이 있는 길쭉한 벌을 사이에 두고 높고 낮은 구릉이 가로질렀고, 뒤는 좀 전에 자기네가 넘어온 중허리 위쪽에 희뿌연 바위로 뒤덮인 산이 올려다보였다. 그러는 그들의 눈앞에는 변함없이 낮 기운 여름 햇살이 내리부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새삼스레

주위가 너무 고요하다는 걸 느꼈다. 이 괴괴한 어느 지점에서 혹시 누가 자기네를 줄곧 감시나 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에 어떤 말 못할 압박감이 엄습해 왔다. 동호는 다시금 엄청나게 두꺼운 유리 속에 자신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에 억눌려야만 했다. 이 유리가 저쪽 어느 한 귀퉁이에서 부서져 들어오기 시작하면 견갑을 새 없이 몽땅 조각이 나고 말 테지. 그리고 무수히 날이 선 유리 조각이 모조리 몸에 들어박힐 거라. 동호는 전신에 소름이 끼쳐 몸을 한 번 떨었다.

어떤 새로운 움직임만이 이 벅찬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됐다. 남은 집을 마저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섯째 집에서 그들의 긴장을 한층 자극시키는 일이 생겼다. 현태가 역시 바람벽에 바짝 등을 붙이고 문짝을 획 잡아 젓히면서, 꼼짝 말어! 했을 때 방안에서 사람의 기척이 났던 것이다.

(중략)

“여기 왔던 군인이 떠놈들야? 인민군새끼들야?”

“조선 사람데요…….”

“언제 왔다 언제 갔지?”

“어제 밤중에 왔다…… 오늘 새벽 어둡서 갔어요.”

“얼루?”

여인이 가늘게 떨리는 턱으로 앞쪽을 가리켰다.

“뭣 놈이나 되지?”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췌 명…… 백 명…….”

이런 산골 여인의 수에 대한 관념이란 종잡을 수 없는 것이다.

“동네 사람들은?”

“젊은 남정네들은 그 사람들이 데리구 가구…… 다른 사람들은 여기 있다간 죽는다는 바람에 죄다 피하구…….”

“왜 같이 안 갔소?”

현태의 음성이 약간 부드러워졌으나 시선만은 그냥 날카롭게 여인의 눈 속을 쏘아보고 있었다.

여인이 몇 번이고 눈을 깜빡여 현태의 시선을 피하면서 떨리는 고개를 방안으로 돌렸다. 거기에는 ㉠ 어린것이 말라비틀어진 팔을 조용히 포대기 밖에 내놓은 채 여전히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그 입과 코와 눈언저리에 파리가 까맣게 붙어 있었다.

“저런 걸 업구 나갔다간…… 길에서 죽일 것 같아서…….”

여인의 말소리는 목안으로 기어들었다.

남은 두 빈집을 마저 수색하고 나서 ㉡ 동네 한가운데 있는 우물물을 제각기 수통에 넣어 가지고 뒷산으로 올라 갔다. 대낮에 다섯 명이나 산마루에서 어른거리는 일은 위험한 짓이다. 산허리께 나무숲을 지나 팔부 능선쯤 되는 바위 그늘에다 자리를 잡았다.

- 황순원, 「나무들 비탈에 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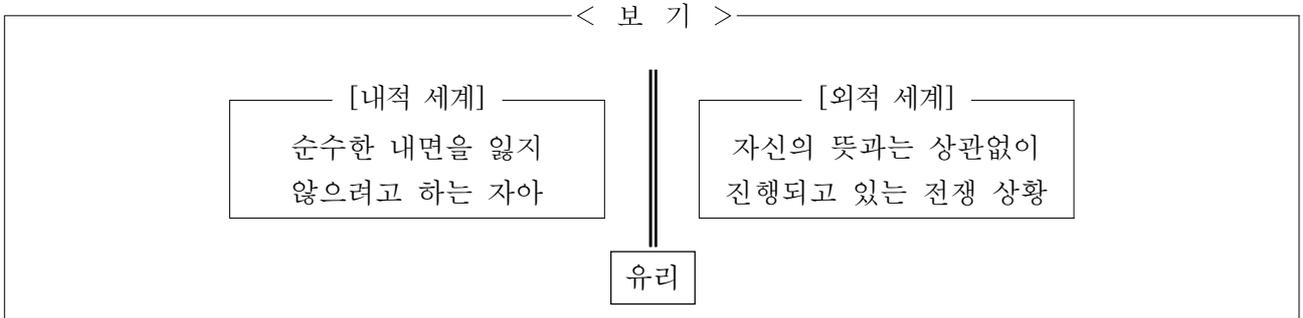
## 22.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2점)

- ① 여인은 현태의 심문에 순순히 대답했다.
- ② 동호는 수색 작전 임무에 집중하지 못하였다.
- ③ 현태는 전투가 시작되면 평상시와 태도가 달라졌다.
- ④ 인민군들은 마을에서 가축들을 잡아먹은 후 이동하였다.
- ⑤ 다섯 명의 대원들은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마을 수색을 마쳤다.

23.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 설정하고 있다.
- ②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 ③ 회상 기법으로 시간의 흐름을 역전시키고 있다.
- ④ 다양한 사건들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⑤ 갈등의 해소 과정을 추리 형식으로 보여 주고 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동호의 입장에서 '유리'가 갖는 의미를 추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폐쇄적인 내적 세계에서 개방적인 외적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동호의 자의식이 '유리'라는 소재로 형상화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외적 세계로 나가고 싶지만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동호의 나약한 자의식이 깨지기 쉬운 '유리'로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전쟁 상황에 환멸을 느껴 잃어버린 자신의 순수한 자아를 되찾으려고 하는 동호의 갈망이 '유리'를 통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내적 자아가 외적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오는 동호의 고뇌가 '유리'로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전쟁이라는 외적 세계에서 자신의 순수한 내면을 간직하려고 하는 동호의 짓눌린 자의식이 '유리'라는 소재에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25. 문맥을 고려할 때, ㉠~㉤에 있는 소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총'을 짊어 간 모습은 수색 작전을 수행하며 느끼고 있는 긴장감을 보여 준다.
- ② ㉡: '방'은 전쟁으로 인해 사람들이 떠난 텅 빈 마을의 스산한 분위기를 보여 준다.
- ③ ㉢: '감자알'은 전쟁이라는 열악한 여건에서 본능적 욕구에 이끌리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④ ㉣: '어린것'의 모습은 전쟁 중에 생명이 꺼져 가는 비참한 상황을 보여 준다.
- ⑤ ㉤: '우물물'은 전쟁 속에서도 훼손되지 않은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을 보여 준다.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물이 스스로 소리를 내서 그것이 물체에 부딪쳐 되돌아오는 반사음을 듣고 행동하는 것을 반향정위(反響定位)라고 한다. 반향정위를 하는 대표적인 육상 동물로는 박쥐를 꼽을 수 있다. 야간에 활동하는 박쥐가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도 먹이를 손쉽게 포획하는 것을 보면 반향정위는 유용한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박쥐는 성대에서 주파수가 40~50kHz인 초음파를 만들어 입이나 코로 ㉠ 방사(放射)하는데, 방사 횟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먹이를 찾고 있을 때는 1초에 10번 정도의 간격으로 초음파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먹이에 접근할 때는 보다 정밀한 정보 수집을 위해 1초에 120~200번 정도의 빠른 템포로 초음파를 발생시켜 먹이와의 거리나 먹이의 방향과 크기 등을 ㉡ 탐지(探知)한다. 박쥐는 되돌아오는 반사음을 세밀하게 포착하기 위해 얼굴의 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크게 발달한 귀를 갖고 있다. 그리고 달팽이관의 감긴 횟수가 2.5~3.5회로 1.75회인 인간보다 더 많기 때문에 박쥐는 인간이 들을 수 없는 매우 넓은 범위의 초음파까지 들을 수 있다.

그렇다면 박쥐는 먹이의 위치나 이동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박쥐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도플러 효과란 파동을 발생시키는 파원과 그 파동을 관측하는 관측자 중 하나 이상이 운동하고 있을 때, 관측되는 파장의 길이에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구급차가 다가오고 있을 때는 사이렌 [A] 소리의 파장이 짧아져 음이 높게 들리고 멀어져 갈 때는 소리의 파장이 길어져 음이 낮게 들리는데, 이는 도플러 효과 때문이다. 박쥐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 수시로 바뀌는 반사음의 변화를 파악하여 먹이의 위치와 이동 상황을 ㉢ 포착(捕捉)한다. 만일 돌아오는 반사음의 높이가 낮아졌다면, 먹이는 박쥐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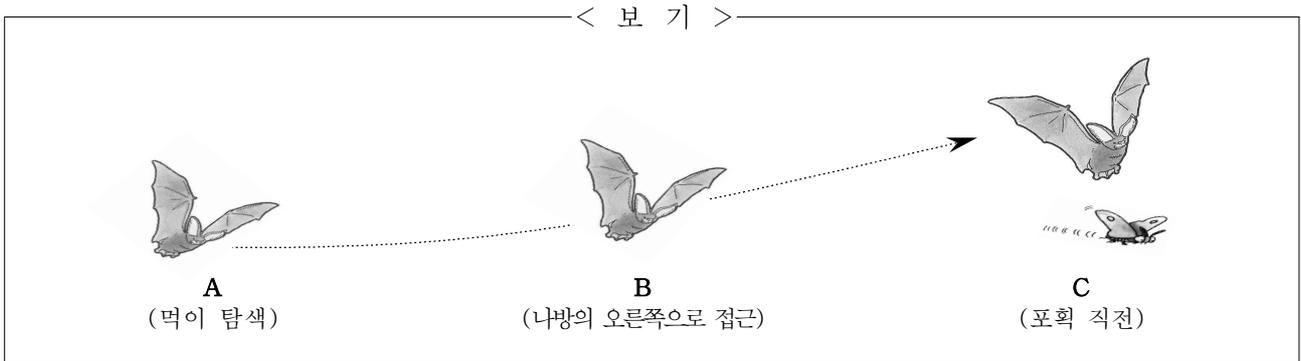
박쥐는 주로 곤충을 먹고 산다. 그런데 어떤 곤충은 박쥐가 내는 초음파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박쥐의 접근을 눈치 챌 수 있다. 예를 들어 박쥐의 주요 먹잇감인 나방은 초음파의 강약에 따라 박쥐와의 거리를 파악할 수 있고, 왼쪽과 오른쪽 귀에 들리는 초음파의 강약 차이에 따라 박쥐가 다가오는 좌우 수평 방향을 알 수 있다. 박쥐가 다가오는 방향의 반대쪽 귀는 자신의 몸이 초음파를 ㉣ 차단(遮斷)하고 있기 때문에 박쥐가 다가오는 쪽의 귀보다 초음파가 약하게 들린다. 또한 초음파의 강약 변화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아닌지에 따라 박쥐가 다가오는 상하 수직 방향도 알 수 있다. 나방의 귀는 날개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날개를 내리면 귀가 날개에 덮여서 초음파를 잘 듣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박쥐가 위쪽에 있을 때는 날개를 올리고 내릴 때마다 소리가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는 초음파를 듣게 된다. 반대로 박쥐가 아래쪽에 있을 때는 귀도 박쥐도 날개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날개의 퍼덕임과 상관없이 초음파가 거의 일정한 음량으로 들린다.

박쥐가 내는 초음파의 반사음은 움직이는 나방의 날개 각도나 퍼덕이는 속도에 따라서 그 파장이 다양하게 변한다. 때문에 나방은 위협에 처해 있을 때 급회전이나 급강하, 또는 몸의 움직임을 멈추고 마치 죽은 듯이 그대로 자유낙하하는 행동을 취해 박쥐에게 전달되는 초음파 정보를 ㉤ 교란(攪亂)시킨다. 만일 박쥐가 수시로 바뀌는 나방의 동선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면 먹이를 놓치고 만다. 박쥐와 나방은 초음파를 둘러싸고 쫓고 쫓기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26.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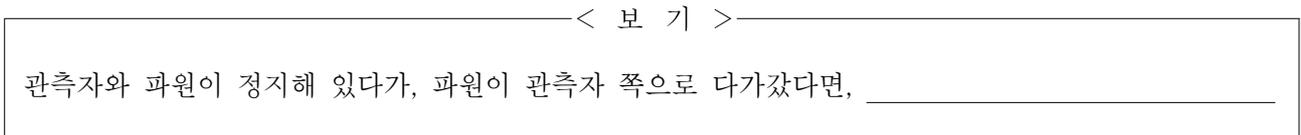
- ① 박쥐는 입이나 코에서 초음파를 만들어 낸다.
- ② 반향정위는 대부분의 육상 동물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
- ③ 달팽이관의 감긴 횟수는 초음파의 지각 능력과 관련 있다.
- ④ 박쥐의 초음파와 구급차 사이렌 소리의 주파수는 동일하다.
- ⑤ 나방의 움직임은 반사되는 초음파의 파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7. <보기>는 박쥐가 나방을 포획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박쥐는 A보다는 B에서 더 빠른 템포의 초음파를 발생시키며 나방에 접근하겠군.
- ② A에서 C로 이동했을 때 박쥐가 들은 반사음의 높이는 높아졌겠군.
- ③ 나방의 귀에 들리는 초음파의 강도는 박쥐가 A보다 B에 있을 때 더 크겠군.
- ④ C에서 나방은 일정한 음량의 초음파를 듣고 박쥐가 위쪽에 있다고 판단하겠군.
- ⑤ 박쥐가 B에 있을 때 나방의 왼쪽보다 오른쪽 귀에 더 강한 초음파가 들리겠군.

28. [A]를 바탕으로 <보기>의 밑줄 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추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파장이 비연속적으로 관측되었군.
- ② 이전보다 더 짧아진 파장이 관측되었군.
- ③ 관측되는 파장의 길이는 이전과 동일하겠군.
- ④ 파장이 반복적으로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겠군.
- ⑤ 파원의 속도에 비례해서 파장이 점점 길어지겠군.

29.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 중심에서 사방으로 내뿜침.
- ② ㉡: 사물을 더듬어 찾아 알아냄.
- ③ ㉢: 확실하게 그러하다고 여김.
- ④ ㉣: 막아서 통하지 못하게 함.
- ⑤ ㉤: 뒤흔들어서 혼란스럽게 함.

[30~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초기 서양 음악사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음악 양식은 성가(聖歌)이다. 성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그레고리오 성가로, 초기에는 성부(聲部)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단선율 음악이었다. 오랫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식상하게 느껴졌던 단선율 음악이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복선율로 바뀌는 혁명적 사건이 9세기 중엽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대위법의 시초가 되었다. 대위법이란 서로 다른 두 개의 선율이 동시에 노래되어도 소리가 혼란스럽지 않고 서로 잘 어울리게 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대위법은 어떤 방법으로 구현되었을까?

대위법이 적용된 최초의 형태는 9세기 중엽에 발생한 평행 오르가눔이다. 동일한 선율이 완전 5도라는 음정의 간격을 ㉠ 두고 두 사람에게 의해서 동시에 불리면, 두 선율은 협화음을 이루게 되어 서로 어울리는 음이 된다. 이때, 성가의 중심이 되는 주선율인 기존 선율은 상성부에 놓이고 이에 대응하는 부선율인 대위 선율은 완전 5도 아래 즉, 기존 선율의 하성부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두 개의 선율이 특정 음정 관계를 평행으로 유지하면서 움직이도록 한 것이 최초의 대위법이며, 이 평행 선율이 바로 평행 오르가눔이다. 이 평행 선율의 탄생은 두 개의 선율이 동시에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왔고, 이후 대위법이 점차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11세기에는 자유 오르가눔이 등장했다. 자유 오르가눔은 평행 오르가눔과 달리 기존 선율은 하성부에, 대위 선율은 상성부에 놓인다. 그리고 대위 선율은 기존 선율이 움직이는 방향과는 상관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특징을 갖는다. 자유 오르가눔은 대위 선율이 자유롭게 움직이되, 기존 선율과의 음정 관계가 협화음을 유지하는 대위법이 적용되었다. 당시에는 완전 1도, 완전 4도, 완전 5도, 완전 8도의 음정이 협화음이었고, 두 선율 사이의 음정이 협화음이면 두 선율은 어울리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12세기에는 화려한 오르가눔이 탄생했다. 이전까지의 오르가눔에는 기존 선율의 음 하나에 대해서 대위 선율 역시 하나의 음만 사용되었으나, 화려한 오르가눔의 경우에는 기존 선율의 음 하나에 대해서 대위 선율은 음군(音群)이 사용되었다. 말하자면 기존 선율과 대위 선율의 비율이 1:1이 아니라 1:다(多)가 된 것으로, 이전 시대의 오르가눔보다 대위 선율이 더 화려해진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기존 선율에 변화를 가져 오게 된다. 기존 선율 [A]의 각 음이 대위 선율에서 사용되는 음의 수에 따라 소리를 길게 내면서 기다리는 현상이 생기게 된 것이다. 즉 대위 선율에 세 개의 음이 사용될 때에는 3박자를, 네 개의 음이 사용될 때에는 4박자를 기다려 주는 것이다. 이것은 대위 선율이 기존 선율에 의존했던 이전의 오르가눔과는 달리, 기존 선율이 대위 선율에 따라 변형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화려한 오르가눔에서는 기존 선율보다 대위 선율이 성가의 미적 감흥을 주는 중심 요소로 인식되었다.

12세기 말에 이르러 화려한 오르가눔은 또 다른 형태의 오르가눔으로 이어졌고, 이와 함께 대위법 또한 점점 고도로 발달하게 된다. 대위법은 서양 음악사에 있어서 단성(單聲) 음악을 다성(多聲) 음악으로 발달시킨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0.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2점)

- ① 오르가눔의 탄생 배경
- ② 오르가눔의 전수 방법
- ③ 오르가눔의 발달 과정
- ④ 오르가눔의 화음 구성
- ⑤ 오르가눔의 선율 배치 방식

31. <보기>는 위 글에서 언급한 각 오르가눔의 악보이다.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 ① I에서 ⑥는 ⑤를 기준으로 협화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진행된다.
- ② II는 ③과 ④가 완전 5도의 음정 간격을 두고 진행되는 복선율이다.
- ③ III에서 ⑥는 ⑤의 음의 수에 따라 소리를 길게 내면서 연주해야 한다.
- ④ II와 III에서 ④와 ⑤는 기존 선율에 대응하는 대위 선율이다.
- ⑤ 대위법은 II→I→III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변천되었다.

32. [A]에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주선율이 기존 선율에서 대위 선율로 옮겨진 것으로 볼 수 있군.
- ② 기존 선율에 대한 대위 선율의 의존도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기존 선율이 대위 선율만큼 음의 활용 기법에 있어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④ 대위 선율보다 기존 선율에서 박자의 화려한 변주가 가능해진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대위 선율과 기존 선율의 성부 위치를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군.

33. ‘두다’의 의미가 ㉠과 가장 유사한 것은? (2점)

- ① 그는 일이 많아서 비서를 두었다.
- ② 내 동생은 바둑보다 장기를 잘 둔다.
- ③ 교수님은 사관학교 출신을 사위로 두었다.
- ④ 나는 마음에 두었던 그녀를 드디어 만났다.
- ⑤ 나는 그녀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걸었다.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려는 어떤 사람이 신발 제조 회사에 투자하면 그 해 겨울의 날씨에 관계없이 28만 원의 이익이 생기고, 코트 제조 회사에 투자하면 그 해 겨울이 추울 경우 50만 원, 따뜻할 경우 10만 원의 이익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어떤 투자가 더 합리적일까? 이럴 경우 우리는 이익과 사건의 발생 확률을 곱한 값, 즉 ‘기대 이익’의 값을 통해 투자 회사를 결정해 볼 수 있다. 그 해 겨울의 날씨를 정확히 알 수 없어 1/2의 확률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두 회사

[A]에 투자했을 때의 기대 이익은 옆의 표와 같다. 코트 회사가 기대 이익이 더 크므로, 신발 회사보다는 코트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두 회사 중 신발 회사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의 이런 행동에 는 기대되는 이익이 조금 적더라도 안정적인 이익을 선택하는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심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날씨라는 불확실성을 사람들은 피하고 싶은 것이다.

사람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에는 기대 이익만을 고려하여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베르누이는 그가 고안한 게임을 통해 설명하였다. 베르누이는 동전을 던져 첫 번째에 앞면이 나오면 2달러(2<sup>1</sup>달러), 두 번째에 처음 앞면이 나오면 4달러(2<sup>2</sup>달러), 세 번째에 처음 앞면이 나오면 8달러(2<sup>3</sup>달러), n번째에 처음 앞면이 나오면 2<sup>n</sup>달러를 상금으로 주는 게임을 생각했다. 즉 뒷면이 계속 나올수록 상금이 많아지고, 앞면이 나오는 순간 더 던질 기회가 없어지는 게임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게임의 참가비는 얼마가 적당할까? 이 게임의 기대 이익을 산출해 보면, 이론적으로는 시행 횟수가 무한대까지 가능하므로, 이 게임의 기대 이익은 무한대가 된다. 따라서 기대 이익만을 고려한다면 자신의 돈 전부를 참가비로 내더라도 사람들은 게임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참가비가 단돈 50달러라고 해도 사람들은 이 게임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이 일종의 모순과도 같은 이런 행동을 하는 원인은 ‘효용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효용 이론은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만족도, 즉 ‘효용’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선택 행동을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만약 위 게임의 참가비가 50달러라면, 최소한 이것보다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여섯 번째에 처음 앞면이 나와 64달러(2<sup>6</sup>)를 상금으로 얻을 수 있는 경우이다. 그런데 그 확률은 (1/2)<sup>6</sup>인 1.56%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금 자신의 손에 있는 50달러를 그대로 지니고 있을 때의 효용보다, 비록 확률은 낮아도 게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더 크거나 최소한 같은 사람들은 게임에 참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효용 이론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효용을 수치화하기 위해서 ‘효용 함수’와 ‘기대 효용’을 사용한다. 효용 함수는 불확실한 상황의 위험을 반영하여 효용의 크기를 변환한 것이다. 베르누이의 게임을 설명하기 위해 크레이머는 ‘효용 = √상금’이라는 효용 함수를 사용했는데, 이에 의하면 이 효용 함수를 갖는 사람은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100달러의 효용을, 안전하게 있는 10달러의 효용과 같게 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 함수를 사용하여 베르누이가 제안한 게임의 기대 효용을 구해 보자. 기대 효용은 효용과 사건의 발생 확률을 곱한 값인데, 효용 함수가 ‘효용 = √상금’이므로 기대 효용은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text{기대 효용} = \sqrt{2^1}(1/2) + \sqrt{2^2}(1/2)^2 + \sqrt{2^3}(1/2)^3 + \dots + \sqrt{2^n}(1/2)^n = \sqrt{2} + 1 = 2.413$$

또한 이렇게 계산된 기대 효용 2.413을 다시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5.823달러(2.413<sup>2</sup>)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상금은 무한대라고 하지만, 기대 효용의 화폐 가치는 6달러도 채 못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효용 함수를 갖는 사람은 아마도 50달러의 참가비를 내고서는 베르누이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효용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 아래에서 기대 이익 외에 기대 효용을 함께 고려하여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34. 위 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확률이 기대 효용에 미치는 영향
  - 위험을 기피하는 심리를 중심으로
- ② 불확실성과 기대 이익의 상관관계
  - 베르누이의 게임을 중심으로
- ③ 기대 이익에 따른 합리적 투자법
  - 효용 함수의 특징을 중심으로
- ④ 크레이머의 효용 함수가 갖는 의미
  - 기대 효용 극대화를 중심으로
- ⑤ 불확실성 아래에서의 의사 결정
  - 기대 이익과 기대 효용을 중심으로

35.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특정 이론의 관점에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특정 이론을 소개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 ③ 어떤 현상에 대한 비판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반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 ④ 어떤 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것의 해결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 ⑤ 현상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소개하고, 각 관점이 갖는 장단점을 평가하고 있다.

36. [A]와 <보기>를 함께 고려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효용 함수를 ‘효용 =  $\sqrt{\text{이익}}$ ’이라고 할 때, [A]의 신발 회사나 코트 회사 주식에 투자할 경우의 기대 효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효용		기대 효용 (효용×확률)
	추운 겨울	따뜻한 겨울	
신발 회사	$\sqrt{28}$	$\sqrt{28}$	5.29
코트 회사	$\sqrt{50}$	$\sqrt{10}$	5.12

- ① 기대 효용을 제일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신발 회사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겠군.
- ② 코트 회사에 투자하려는 사람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려는 사람이겠군.
- ③ 기대 이익과 기대 효용이 같은 값을 가지는 것은 아니니 투자할 때에는 신중해야겠군.
- ④ 추운 겨울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해도 신발 회사의 기대 이익이 증가하지는 않겠군.
- ⑤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면 기대 이익이 같아지므로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든 그 이익이 같겠군.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에 진평왕이 서현을 양주(梁州) 총관(摠官)으로 임명하고 군사 2천 명을 주어 고구려의 낭비성(娘臂城)을 치게 했다. 고구려 장수 고복(高福)이 나와 맞아 싸우는데, 김양주가 그 선봉을 크게 쳐부수자 고복이 군사를 거두어 요새로 물러갔다. 그리고 몰래 정병(精兵) 5백 명으로 산을 넘어 남쪽으로 가서 신라의 보급로를 끊자, 양주의 군사가 양식이 떨어져 크게 곤란하였다. 이에 고복이 성문을 열고 나와 싸우니 신라 군사가 크게 패하여 죽는 자가 매우 많았다. ㉠ 고구려 군사가 서현을 여러 겹으로 포위하자, 서현이 하늘을 우러러 군사들에게 맹세하면서 죽기로 싸울 것을 기약하였다. 고복이 사면으로 군사를 독촉하니 성이 거의 함락되었다.

이때 유신은 산음현의 수정궁에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구형왕이 또 꿈에 나타나 청하여 말하길,

“너의 아버가 지금 낭비성에 있는데, 고구려 군사에게 포위되어 오래지 않아 위태로울 것이다. 너는 어찌 가서 구하지 않느냐?”

하였다. 꿈에서 깨자 유신이 곧 두 장수를 불러 꿈 이야기를 하고 말하길,

“내 곧 고구려에 가서 대인의 위급함을 구할 것인데, 그대들은 나를 따를 것인가?”

하니 모두 말하길,

“저희들이 여기까지 따라 왔는데, 비록 물과 불 속인들 잠시라도 명공을 떠나겠습니까?”

하고는 드디어 출발하였다.

유신이 갑옷을 입고 말에 오르니, 휘하(麾下)에 쫓는 기병이 30명이었다. 설윤태(薛允泰), 변석(邊釋) 등을 불러 나머지 군사를 거느리고 뒤를 따르라 하고 30기로 밤새 적진으로 향하였다. 5백여 리를 가니 동방이 비로소 밝았는데, 멀리 바라보니 한 떼의 군사가 가는 길을 막았다. 유신이 말을 달리며 크게 고함을 지르니, 고구려 장수가 황급히 나와 맞았다. 유신이 천룡검을 휘둘러 한 장수를 죽이고 군사 수십 인을 베니 ㉡ 고구려 장수 기숙이 크게 놀라 군사를 거두어 달아났다.

유신이 30기로 하여금 추격하게 하고 멀리 한 곳을 보니 병마가 여러 겹으로 둘러 서 있었다. 유신이 대인이 포위된 줄 알고, 크게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말을 채찍질하여 가며 크게 소리쳐 말하길,

“신라 장군 김유신이 여기 왔다!”

하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칼을 뽑아 기장(旗將) 네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 원일원으로 하여금 동쪽으로 쳐들어 오게 하고, 지경개로 하여금 서쪽으로 쳐들어오게 하여 좌우로 충돌하니, 고구려 군사가 크게 어지러워 죽는 자가 무수하였다. 고복이 크게 놀라 말하길,

“어찌 이리 신라에 명장이 많으나.”

하며 포위를 풀고 물러갔다.

유신이 중영(中營)에 들어가 대인을 뵈고 말하길,

“불초자 유신이 집을 떠난 지 7년 만에 대인의 위급함을 듣고 감히 와서 구하였습니다.”

하니, ㉣ 서현이 한편으로는 슬퍼하고 한편으로는 기뻐하며, 손을 잡고 말하길,

“네가 어떻게 하여 이곳에 왔느냐?”

하였다. 유신이 산음현에서 능을 모시면서 무예를 익히던 일을 모두 고하니 서현이 크게 기뻐하며 말하길,

“우리 집이 가락국 왕실(王室)의 기운으로 대대로 명장이 나는구나.”

하였다. 유신이 두 장수를 불러 양주에게 절하게 하였다. 양주가 말하길,

“참으로 용맹한 장수로다.”

하고, 곧 유신을 호군으로 삼고, 그날 두 장수를 불러 좌우참군(左右參軍)으로 삼았다. 다음날 설, 변 두 장수가 군사를 거느려 오고 보급로가 또한 통하니 군의 위세가 다시 떨쳤다. 대인이 이 승세를 타고 돌아가고자 하니, 유신이 나아가 아뢰길,

“제가 평생 충효로써 스스로 다짐하였는데, 이제 전장에 임하여 용맹을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컨대 대인은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고는 드디어 말을 중형으로 몰며 칼을 뽑아 들고서 깊은 구덩이를 뛰어 넘어 고구려 진으로 돌입하여 고복을 베고 돌아오니 고구려 군사가 당해내지 못하였다. 양주가 보고 큰 기를 휘두르며, 성 아래에까지 바짝 나아가서 승세를 타서 5천여 급을 베고 천여 명을 생포하니 성 안의 군사들이 두려워하여 문을 열고 나와 항복하였다.

김양주가 드디어 환군하여 서울에 이르니 왕이 크게 기뻐하며 궁궐 밖에서 맞이하였다. 대인이 유신의 공을 아뢰고자 하니 유신이 그만두기를 간하여 말하길,

“소자(小子)에게 싸워서 이긴 공이 있다 하시면 대인께서는 군사를 잃은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유신이 비록 보잘것없고 못났지만 스스로를 파는 것이 부끄러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한 번 싸워 이긴 공으로 출세의 구실을 삼겠습니까?”

하니, 대인이 옳게 여겼다. 이리하여 조정에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드디어 군사를 해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종략 줄거리] 월성공자 김춘추는 백결선생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한다. 백결선생은 나라의 인재로 김유신을 천거한다.

공자는 궁으로 돌아오자마자 하인에게 명령하기를,

“속히 떠날 준비를 차려라. 내 곧 기계 땅으로 가겠다.”

하니, 하인이 아뢰길,

“날이 저물었으니 청컨대 내일 떠나십시오.”

하였다. 그날 밤 공자가 목욕재계하고 의관을 벗지 않은 채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날이 밝자마자 출발하였으니 대개 어진 사람 구하기에 급했던 것이다.

드디어 기계 땅에 이르러 수레를 문 밖에 머무르게 하고 문졸(門卒)로 하여금 성명을 통하게 하였다. 그때 김양주는 불국사(佛國寺)에 축원하러 가서 돌아오지 않았고, 유신은 내당에 들어가 모부인을 모시고 있었다. 문졸이 들어와 아뢰길,

“지금 대상국(大相國) 월성공자께서 문 밖에 오셔서 유신을 뵈고자 합니다.”

하였다. 유신이 듣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길,

‘저 사람이 필시 내가 어질다는 말을 듣고 왔을 것이다. 그러면 마땅히 저 사람의 정성을 보리라.’

하고, 문졸에게 말하길,

“네 나가서 말하기를 내가 지금 일이 있으니 오신 손님은 잠시 기다리시라 하여라.”

하고, 문졸을 단단히 일러 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공자가 수레를 세워 놓고 자못 오랜 시간이 지나도 유신이 나오지 않았다. ㊸ 이때 날씨는 춥고 비가 내려 관이 모두 젖었으나 공자는 끝까지 꺼리지 않았다. 수레를 모는 하인이 화가 나서 돌아갈 것을 청하자 공자가 꾸짖으며 물리쳤다. 이에 유신은 집 안에서 공자가 정성스럽고 다른 뜻이 없음을 알고, 비로소 나가 맞이하였다.

— 이정균, 「흥무왕연의」 —

### 3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공간적 배경을 환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복선을 활용하여 주인공의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교차시키면서 서술하고 있다.
- ④ 요약적 진술을 활용하여 사건을 빠르게 전개하고 있다.
- ⑤ 인물의 성격 변화 과정을 제시하여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38.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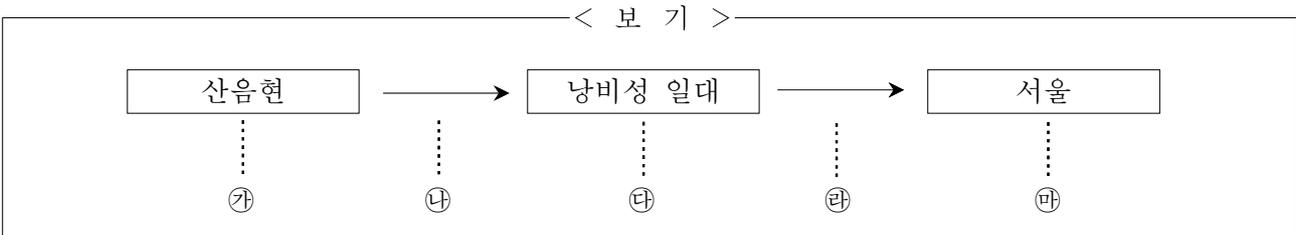
— < 보 기 > —

김유신 공(公)은 세상에 드문 인재이다. 또한 그는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이 태종(太宗) 김춘추처럼 현명한 군주를 만났다. 왕은 그의 말과 계책을 따랐으며, 그가 사방을 공략하매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었다. (중략) 드디어 여러 역사를 참고하고 여러 설을 모아 「홍무왕연의」를 지었는데, 삼국의 충신, 열사, 산천, 성읍(城邑)을 모두 갖추어 서술되지 않은 것이 없다. 아울러, 이 책의 내용 중에는 허황되고 과장된 부분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대체로 공의 가문을 칭송하는 가전(家傳)의 취지를 따른 것이지만, 만약 올곧은 선비들이 이 책을 읽으면 경박하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공을 특별히 흠양(欽仰)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이 책을 지어 오로지 칭찬할 따름이다.

- 이정균, 「홍무왕연의」 서문에서 -

- ① 월성공자와의 첫 만남을 극화한 장면은 김유신과 김춘추가 물고기와 물의 관계처럼 긴밀한 군신 관계를 맺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
- ② 인명이나 지명, 군사적 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여러 역사서를 참고한 서술이라고 할 수 있어.
- ③ 김유신의 꿈에 구형왕이 나타나 전세의 위급함을 알려주는 장면은 허황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
- ④ 가락국 왕실의 기운으로 대대로 명장이 나왔다는 서현의 말은 가문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려는 가전의 취지와 상통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
- ⑤ 김유신의 싸우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서술한 점은 올곧은 선비들로부터 경박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

39. <보기>는 김유신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에서의 김유신의 행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수 년 동안 능을 모시면서 무예를 수련했다.
- ② ㉡: 기병 30명과 지경개, 원일원 두 장수를 대동했다.
- ③ ㉢: 고전하던 부친을 구해 내고 고구려군의 항복을 받았다.
- ④ ㉣: 자신의 전공을 왕에게 고하려고 하는 부친을 만류했다.
- ⑤ ㉤: 함께 개선한 군사들이 해산된 후에 고향으로 떠났다.

40. ㉠~㉤의 상황을 한자 성어로 표현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 김서현의 처지는 ‘누란지세(累卵之勢)’라고 하겠군.
- ② ㉡: 고구려 장수 기숙은 ‘혼비백산(魂飛魄散)’하였겠군.
- ③ ㉢: 김유신은 ‘좌고우면(左顧右盼)’의 전술을 선택했군.
- ④ ㉣: 김서현의 마음은 ‘일희일비(一喜一悲)’한 상태로군.
- ⑤ ㉤: 김춘추는 ‘삼고초려(三顧草廬)’와 같은 정성을 다했군.



### 언어 영역 정답표

문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답	④	②	②	④	③	④	③	③	③	⑤	③	①	④	①	④	②	①	①	②	②
문항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정답	①	⑤	②	⑤	⑤	③	④	②	③	②	①	①	⑤	⑤	①	⑤	④	⑤	④	③

제 1 교 시



2012학년도 육군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 언 어 영 역 공 통

성명	
----	--

수험번호									
------	--	--	--	--	--	--	--	--	--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 육 군 사 관 학 교

이 권

1. (가)~(마)로부터 ‘독서의 방법’을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가) 우물을 파는 사람은 먼저 석 자의 흙을 파서 축축한 기운을 만나게 되면, 또 더 파서 여섯 자 깊이에 이르러 그 탁한 물을 퍼낸다. 또 파서 아홉 자의 샘물에 이르러서야 달고 맑은 물을 길어 낸다.
- (나) 소나기가 내릴 때는 회오리바람이 불고 번개가 팡팡 쳐서 그 형세를 돕는다. 금방 붓도랑은 넘쳐흘러 연못처럼 되니 대단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잠깐 사이에 날이 개어 햇볕이 내리쬐면, 지면은 씻은 듯이 깨끗해지고 땅을 조금만 파 보면 오히려 마른 흙이 보인다.
- (다) 푸른 구슬은 꿰어 푸른 꿰미를 만들고, 붉은 구슬은 꿰어 붉은 꿰미를 만든다. 검색과 검은색, 자줏빛과 누런 빛도 색깔 따라 꿰어 상자에 담는다. 이것이 많은 구슬을 옮기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다.
- (라) 나무 심는 사람은 처음 심을 적에 뿌리와 줄기를 잘 안정시킨다. 이윽고 진액이 돌아가지와 잎이 돌아나, 이에 꽃이 피어난다. 모름지기 꽃이란 갑작스레 얻을 수가 없는 법이다.
- (마) 가을걷이가 끝난 들판에는 떨어진 이삭들이 많이 흩어져 있다. 또한 미처 거두지 못한 벼단도 있고, 베어 내지 않은 늦벼도 남아 있다. 따라서 추수 이후에 다시 들판에 나아가 남아 있는 곡식들을 수습하면 좋은 양식이 될 것이다.

- ① (가) : 책을 읽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깊이 있게 읽어 가면 책의 참 맛을 알게 될 것이다.
- ② (나) :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권의 책을 읽는 것은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조금만 지나면 단단한 지식이 쌓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 ③ (다) :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용이나 범주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 ④ (라) : 책을 읽을 때는 조금하계 성과를 얻으려 하지 말고, 단계 별로 차근차근 읽어야 할 것이다.
- ⑤ (마) : 한 번의 독서로는 책이 가진 정보를 다 얻지 못할 수 있으므로, 거듭해서 읽으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보기>는 ‘자원 봉사 활동의 활성화’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수정 및 보완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보 기> —

- I. 자원 봉사 활동의 의의  
 1. 올바른 인성 함양  
 2. 결연을 통한 자원 봉사 활동의 지속성 강화 ..... ㉠
- II. 자원 봉사 활동의 다변화 요인 ..... ㉡  
 1. 타율적인 봉사 활동 참여  
 2. 자원 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 미흡  
 3. 일시적인 봉사 활동 참여
- III. 자원 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 ..... ㉢  
 1. 공동체 의식의 형성 촉진 ..... ㉣  
 2. 자원 봉사 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 체계 마련
- IV. 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 ..... ㉤

- ① ㉠ : 상위 항목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III’의 하위 항목으로 이동시킨다.  
 ② ㉡ : 하위 항목의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자원 봉사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요인’으로 수정한다.  
 ③ ㉢ : ‘II-1’을 고려하여, 하위 항목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추가한다.  
 ④ ㉣ :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통일성을 위해 삭제한다.  
 ⑤ ㉤ : 내용이 모호하므로, ‘자원 봉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로 구체화한다.

3. 다음에 제시된 단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만들었다. 맞는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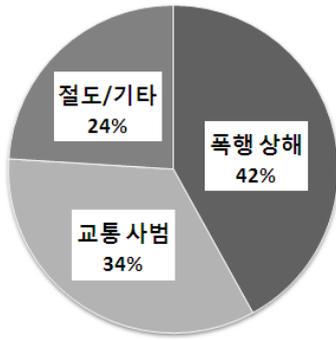
- ① 조리다 : 공포영화는 가슴 조리는 맛으로 본다.  
 줄이다 : 고등어는 줄인 것이 맛있다.
- ② 곤욕 : 뜻밖의 손님을 맞아 몹시 곤욕스럽다.  
 곤혹 : 그의 말투에 심한 곤혹을 당한 기분입니다.
- ③ 부치다 : 귀농을 하려 해도 부칠 땅이 없다.  
 붙이다 : 따귀를 붙이고 보니 손이 다 얼얼했다.
- ④ 돋구다 : 어머니께서 입맛을 돋구는 보약을 지어 보내셨다.  
 돋우다 : 시력이 나빠질 경우에는 안경의 도수를 돋워야 한다.
- ⑤ 흘뭇 : 임신하여 흘뭇이 아닌 누나를 보살피는 매형의 정성이 대단하다.  
 흘뭇 : 지난 해 이모부가 돌아가셔서 이모님은 흘뭇이 되셨다.

4.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한다.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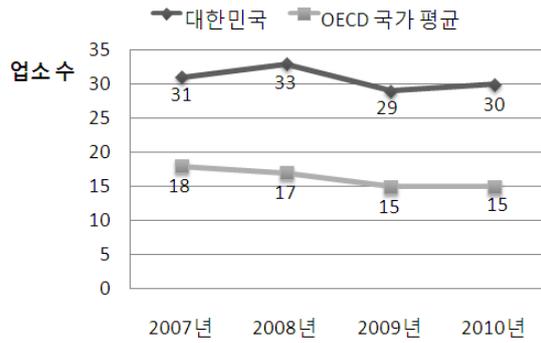
<보 기>

(가) 통계자료

1. 청소년 범죄 유형별 비율



2. 학교 주변 유해 업소 현황



(나) 심의 결과

아동용 만화 프로그램 ○○○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 아동의 올바른 행동 양식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관련 심의 규정과 시청 등급을 위반하였음.

(다) 신문 보도 내용

자정 이후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일명 ‘게임 섯다운제’가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그 시행을 위한 관련 법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라) 연구자료

- 대중매체는 인간의 현실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세상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 온라인 게임 중독과 청소년의 폭력성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게임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폭력성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 ‘(가)-1’과 ‘(라)-2’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폭력 범죄 비율이 높은 것이 온라인 게임 중독과 관련이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해야겠어.
- (나)를 활용하여, 아동용 만화 프로그램마저 유해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들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해야겠어.
- ‘(가)-2’와 (나)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야겠어.
- ‘(라)-1’을 활용하여, 대중매체가 청소년을 위한 건전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보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야겠어.
- (다)와 ‘(라)-2’를 활용하여, ‘게임 섯다운제’가 시행되면 온라인 게임 중독 수준과 폭력성 사이의 상관관계가 떨어질 것임을 강조해야겠어.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람들의 행동의 원인을 제 나름대로 설명하고, 그 설명에 기초하여 미래의 일을 예측한다. 사람들은 이처럼 설명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 이 세상을 잘 이해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의 이 같은 설명 행동을 ‘귀인(歸因)’이라고 한다. 귀인은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 내부 귀인과 외부 귀인으로 나뉠 수 있다. 내부 귀인은 사건이나 행동의 원인을 당사자의 성격이나 능력 등 내적 요인에서 찾으려는 것이며, 외부 귀인은 그 원인을 당사자의 환경이나 상황 등 외적 요인에서 찾으려는 것이다.

귀인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행위자-관찰자 편향 귀인’과 ‘자기 고양 귀인’이 있다. ‘행위자-관찰자 편향 귀인’은 사람들이 타인의 행동을 설명할 때는 주로 그 사람의 내적인 특성으로 귀인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때는 상황적인 변수들을 더 자주 사용하여 귀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기가 약속에 늦으면 ‘차가 막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약속에 늦으면 ‘책임감이 없어서’라고 내부 귀인을 한다. 동일한 선택과 행동을 하였지만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이렇듯 다른 설명을 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타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동과 관련해서는 자기가 처한 상황과 그 상황에서 내린 자신의 해석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타인의 행동과 관련해서는 그 행동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으므로 타인의 행동 그 자체만으로 설명한다. 그 결과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때보다 타인의 행동을 설명할 때 내부 귀인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같은 편향된 귀인 행위는 집단이나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든 경우에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내부 귀인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외부 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귀인의 동기가 자존감 유지에서 비롯될 경우에는 ‘자기 고양 귀인’을 한다. 예컨대 우리가 어떤 과제를 실패하는 경우나 타인이 성공하는 경우에 우리의 자존감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부 귀인을 하는 것이 자존감 유지에 유리하다. 반대로 우리 자신이 성공하거나 타인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내부 귀인을 통해 자존감을 유지한다. 다음 세 가지는 이러한 ‘자기 고양 귀인’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심리적 경향들이다.

첫째,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과 능력 같은 내적 요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것보다 우월하다고 믿는다. 최소한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자기가 실제로 발휘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강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주사위 던지기를 할 때, 던지는 방식은 실제 결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숫자를 원할 때는 부드럽게 던지고, 높은 숫자를 원할 때는 강하게 던진다. 셋째,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부정적인 사건들은 타인들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긍정적인 사건들은 자신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5.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 경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자신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 ②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 ③ 자신과 타인의 행동에 대해 다른 기준으로 설명한다.
- ④ 자존감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 도피적 충동을 느낀다.
- ⑤ 타인이 처한 상황과 그의 행동을 주관적으로 해석한다.

6.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대화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대화 1	남 자 : 전화할 시간이 없었어. 정말이야. 여 자 : 거짓말 마. 넌 내가 싫어진 거야.
대화 2	영 회 : 너 사회심리학 시험을 망쳤다면? 철 수 : 그건 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는 거야.
대화 3	선생님 : 오늘 지각했구나. 넌 정말 게으른 녀석이야. 학 생 : 선생님, 자세한 사정도 모르시면서 너무 해요.
대화 4	엄 마 : 너, 운 좋게 사관학교 합격한 줄 알아! 아 들 : 웬걸요, 제 머리가 좋은 거죠.
대화 5	A국 대표 : 당신들의 공격은 제국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요. B국 대표 : 무슨 소리! 우리는 당신들의 도발에 대해 정당방위를 한 거요.

- ① 대화 1 : ‘남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외부 귀인을 하고, ‘여자’는 ‘남자’의 행위에 대해 내부 귀인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② 대화 2 : ‘철수’는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귀인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③ 대화 3 : ‘선생님’은 학생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해서 ‘학생’의 행위에 대해 내부 귀인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④ 대화 4 : ‘아들’이 자신의 성공에 대해 내부 귀인을 한 것은 자기 고양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 ⑤ 대화 5 : 상대국의 행위에 대해 ‘A국 대표’는 외부 귀인을, ‘B국 대표’는 내부 귀인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7. <보기>는 한 사회심리학자의 실험 내용이다. 위 글을 바탕으로 실험 결과에 대해 반응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실험 방법]** 실험 참여자들을 둘로 나누어, 한 쪽에는 227개의 복권 중에서 한 장씩을 임의로 제공하고, 다른 쪽에는 한 장의 복권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복권을 팔 경우 받고 싶은 가격을 적어 내도록 하였다.

**[실험 결과]** 임의로 복권을 제공 받은 참여자들은 평균 1.96달러를 요구한 반면, 자신이 복권을 선택한 참여자들은 무려 평균 9달러를 요구하였다.

- ① 사람들은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된 상황에서는 외부 귀인을 하는 경향이 있군.
- ②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뛰어난 상황 판단 능력을 보여주는군.
- ③ 사람들은 통제권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그 이상의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군.
- ④ 사람들은 선택의 자유가 제한 받는 상황일수록 요행을 바라는 심리를 강하게 드러내는군.
- ⑤ 사람들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될수록 ‘행위자-관찰자 편향 귀인’을 하는 경향이 있군.

「8~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     |   |                               |       |
|-----|---|-------------------------------|-------|
| [A] | [ | 새가 나는 바깥에 하늘은 다하건만            | 鳥外天將盡 |
|     | ] | 근심 곁에 한은 하염없구나.               | 愁邊恨不休 |
| [B] | [ | 산은 대부분 북쪽에서 굽이쳐 오고            | 山多從北轉 |
|     | ] | 강은 절로 서쪽을 향해 흘러라.             | 江自向西流 |
| [C] | [ | <b>기러기</b> 내려앉은 모래펄은 아스라이 깔렸고 | 鴈下沙汀遠 |
|     | ] | 배 돌아오는 옛 기슭은 그윽하여라.           | 舟回古岸幽 |
| [D] | [ | 어느 때에야 세상 그물을 벗어나             | 何時拋世網 |
|     | ] | 흥을 타고 여기서 다시 노닐 수 있으려나.       | 乘興此重遊 |

— 김시습, 「소양정(昭陽亭)」

(나)

천상 백옥경(白玉京)\* 십이루 어디메오?  
 오색운 깊은 곳에 자청전(紫淸殿)\*이 가렸으니,  
**천문(天門) 구만리**를 꿈에라도 갈동말동  
 차라리 죽어져서 억 만 번 변화하여  
 남산 늦은 봄에 **두견**의 녀이 되어  
 이화(梨花) 가지 위에 밤낮을 못 울거든  
 삼청동리(三清洞裏)\*의 저문 하늘 구름 되어  
 바람에 흘러 날아 자미궁(紫微宮)에 날아올라  
 옥황 향안(香案)\*전에 지척에 나아 앉아  
**흥중에 쌓인 말씀** 실컷 사퇴리라.  
 어와 이 내 몸이 천지 간에 늦게 나니,  
 황하수 맑다마는 초객\*의 후신(後身)인가 상심도 끝이 없고,  
 가태부\*의 녀이런가 한숨은 무슨 일이고.  
 형강\*은 고향이라 **십년을 유락하니**  
 백구와 벗이 되어 함께 놀자 하였더니  
 어루는 듯 사랑하는 듯 남다른 입을 만나  
 금화성 백옥당(白玉堂)의 꿈조차 향기롭다.  
 오색실 이음 짧아 임의 옷을 못하여도  
 바다 같은 임의 은혜 추호나 갚으리라  
**백옥 같은 이 내 마음** 임 위하여 지켰더니,  
 장안 어젯밤에 **무서리** 마구 내려  
 일모수죽(日暮修竹)에 푸른 옷소매가 차고 얹구나!

— 조위, 「만분가(萬憤歌)」

\* 천상 백옥경 : 하늘 위의 궁궐.

\* 자청전 : 하늘의 신선이 산다는 궁궐.

\* 삼청동리 : 신선이 사는 고을 안.

\* 옥황 향안 : 옥황상제의 앞에 놓인 상.

\* 초객 : 초나라의 굴원을 가리킴. 누명을 쓰고 귀향을 가서 먹라수에 투신함.

\* 가태부 : 한나라의 가의를 가리킴. 벼슬에 있을 때 대신들의 시기를 받아 좌천됨.

\* 형강 : 중국 형산 근처의 강 이름.

(다)

어느 해인가 내가 서울에 살고 있을 때의 일이다. 집 근처에 소나무 네다섯 그루가 있었는데 키가 몇 자 밖에 되지 않고 작달막했다. ㉠ 나뭇가지는 아래로 드리워져 긴 것은 땅바닥에 닿고, 짧은 것은 줄기를 가릴 정도였다. 구부러지고 뒤틀려 엷힌 가지가 마치 뱀이 서리어 다투는 듯, 수레 덮개가 활짝 퍼진 듯, 오색실로 만든 술이 감기고 엷힌 듯, 들쭉날쭉 아래로 늘어져 있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놀라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타고난 성질이 어찌 저렇게 다를 수 있단 말인가?”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나무의 성질이 본래부터 그래서가 아닙니다. 이 나무도 처음에는 산에 있는 여느 나무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자랐을 때, 단단해서 잘 휘지 않는 것은 베어 없애고 어려서 부드러운 것은 끌어당겨 구부렸습니다. 높은 가지는 아래로 당기고, 위로 솟아오르는 가지는 묶어서 늘어뜨리지요. 또 곧은 가지는 구부려서 휘게 하고, 위로 뻗은 가지는 옆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태로 오랜 세월 바람과 서리를 맞힙니다. 그러면 줄기와 가지가 변해서 저 나무처럼 특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 가지 끝에서 새로 트면, 위로 향하려는 성질을 잊지 않고 다시 무성하게 곧추섭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또 가지를 잘라 없애고 구부리기도 하지요. 이렇게 해서 ㉢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고 기이한 나무가 된 것이니, 이것이 어찌 나무의 본성 때문이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탄식하면서 말했다.

“저 소나무는 정말 사람과 비슷한 점이 있구나. 자기의 선한 본성을 욕심 때문에 잃은 자들을 보면,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고 몸놀림은 약삭빠르다. 또 괴이한 행동을 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고 아첨하는 말을 늘어놓아 칭찬을 받으려고 하며, 남의 비위나 맞추려고 애쓰면서 오히려 이를 고상한 것으로 여긴다. 그리하여 마침내 자신의 참모습을 잃어버리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니, 이런 사람을 곧은 본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 비추어 본다면 어떠하겠는가? 또 ㉣ 굳센 호연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에 비추어 본다면 어떠하겠는가? ㉤ 세상에 아첨하면서 구차하게 남의 환심이나 사려고 하는 자들과 저 작은 소나무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아아,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은 그 나름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올바르게 자신을 수양하여 본성을 기르고 해를 당하지 않으면 사람 같은 사람이 되고, 만물도 제 모습을 잃지 않을 것이다.

— 이식, 「왜송설(矮松說)」

#### 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가)와 (나)에는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다.
- ② (나)와 (다)에는 현실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가)와 (다)에는 지향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④ (가)~(다)에는 모두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는 자세가 나타나 있다.
- ⑤ (가)~(다)에는 모두 자연물과의 교감을 통해 얻은 교훈이 제시되어 있다.

9. (가)의 '기러기'와 (나)의 '두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기러기'는 인격이 부여된 대상이고, '두견'은 자연적 배경이다.
- ② '기러기'는 시각적 이미지와, '두견'은 청각적 이미지와 연결된다.
- ③ '기러기'는 화자에게 긍정적 정서를, '두견'은 부정적 정서를 일으킨다.
- ④ '기러기'와 '두견'은 모두 화자와 대립하는 존재이다.
- ⑤ '기러기'와 '두견'은 모두 시상의 극적 전환을 유도하는 소재이다.

10.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A]의 '새'는 자신의 처지를 돌이켜 보게 하는 소재이다.
- ② [B]의 두 행은 유사한 통사 구조로 대응되고 있다.
- ③ [A]의 '근심'의 원인에 대한 단서를 [D]에서 짐작할 수 있다.
- ④ [B]와 [C]는 모두 계절적 소재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⑤ 화자의 시선이 [B]와 [C]에서는 외부 정경을, [D]에서는 자신을 향해 있다.

11.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만분가'는 연산군 4년(1498년) 무오사화(戊午士禍)로 인하여 전라도 순천에 유배되었던 조위가 유배지에서 지은 가사이다. 비분(悲憤)의 심정을 옥황상제에게 하소연하는 형식으로 노래한 작품이다.

- ① '천문 구만리'는 유배지에서 한양까지의 거리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군.
- ② '흥중에 쌓인 말씀'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과, 죄에 대한 참회를 내포하고 있군.
- ③ '십년을 유락하니'로 보아, 유배 생활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백옥 같은 이 내 마음'은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의미하겠군.
- ⑤ 장안에 내린 '무서리'는 화자가 유배된 원인인 무오사화를 말하겠군.

12. ㉠~㉣ 중 <보기>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점)

—<보 기>—

자신의 참모습을 잃고도 살아 있는 것은 요행히 죽음만 모면했을 뿐이다.

—공자(孔子)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기 직전, 한 생원은 아버지의 땅을 고을 원에게 억울하게 빼앗겼다. 그 후 한 생원은 빚에 쪼들려 나머지 논과 밭갓을 일본인 길천에게 비싼 값으로 팔아넘겼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일본인이 물러가자, 한 생원은 길천에게 팔았던 논을 고스란히 되찾을 줄 알고 희망에 들떠 있었다.

“이놈, 이 불한당놈들, 이 밭갓\* 별목한다는 놈이 어떤 놈이냐?”

비틀거리면서 고함을 치고 쫓아오는 한 생원을,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일하던 손을 멈추고 빼언히 바라다보고 섰다.

“이놈 너루구나?”

한 생원은 영남이라는 읍내 사람 별목 주인 앞으로 달려들면서, 한 대 갈길 듯이 지팡이를 둘러멘다.

명색이 읍사람이라서, 촌 농투성이에게 무단히 해거\*를 당하면서 공수\*하거나 늪은이 대접을 하려고는 않는다.

“아니, 이 늪은이가 환장을 했나?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놈, 네가 왜, 이 밭갓을 손을 대느냐?”

“무슨 상관여?”

“어째 이놈아, 상관이 없느냐?”

“뉘 밭갓이길래?”

“내 밭갓이다. 한덕문이 밭갓이다, 이놈아.”

“허허, 내 별풀 다 보니. ㉠ 팬시리 술잔 든질렀거들랑, 고히 삭히진 아녀구서, 나이께 먹은 것이, 왜 낚 일하는 데 와서 이 행악야, 행악이. 늪은인 다리뺨다구 부러지지 말란 법 있나?”

“오냐, 이놈, 날 죽여라. 너구 나구 죽자.”

“대체 내력을 말을 해요. 무엇 때문에 이 야론\*지, 내력을 말을 해요.”

“이 밭갓이 그새까진 길천(吉川)이 것이라두, 조선이 독립됐은간 인전 내 것이란 말야, 이놈아.”

“조선이 독립이 됐는데, 어째 길천이 밭갓이 한덕문이 것이 되는구?”

“길천인, 일인(日人)들은, 땅을 죄다 내놓구 간깐, 그전 임자가 도루 차지하는 게 옳지, 무슨 말이나?”

“오오, 이 녀이 이 밭갓을 전에 길천이한테다 팔았다?”

“그래서.”

“㉡ 그랬으니깐, 일인들이 땅을 다 내놓구 가니깐, 이 녀은 팔았던 땅을 공짜루 도루 차지하겠다?”

“그래서.”

“그 개 똥 같은 소리 인전 엔간치 해두구, 어서 없어져 버려요. ㉢ 난 빼것이 길천농장 산림관리인 강태식이한테 시퍼런 돈 이천 환 주구서 계약서 받구 샀어요. 강태식인 길천이가 해준 위임장 가지구 팔구. 돈 내구 산 사람이 임자지, 저, 옛날 돈 받구 팔아먹은 사람이 임자지?”

8.15 직후, 낡은 법이 없어지고 새로운 영이 서기 전 혼란한 틈을 타서, 잇속에 눈이 밝은 무리들이 일본인 농장이나 회사의 관리자와 부동(符同)이 되어 가지고, 일인의 재산을 부당 처분하여 배를 불린 일이 허다 하였다. 이 산판 사건도 그런 것의 하나였다.

그 뒤 훨씬 지나서 일인의 재산을 조선 사람에게 판다, 이런 소문이 들렸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 생원은 그 논 일곱 마지기를 돈을 내고 사지 않고서는 도로 차지할 수가 없을 판이었다. 물론 한 생원에게는 그런 재력이 없거니와, 도대체 전의 임자가 있는데 그것을 아무나에게 판다는 것이 한 생원으로 보기에 불합리한 처사였다.

한 생원은 분이 나서 두 주먹을 쥐고 구장에게로 쫓아갔다.

“그래 일인들이 죄다 내놓구 가는 것을, 백성들더러 돈을 내구 사라구 마련을 했다면서?”

“아직 자세한 모르겠어두,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쉬우리라구들 하드군요.”

해방 후에 새로 난 구장의 대답이었다.

“그런 놈의 법이 어딴단 말인가? 그래, 누가 그렇게 마련을 했는구?”

“나라에서 그랬을 테죠.”

“나라?”

“우리 조선 나라요.”

“나라가 다 무어 팔라비틀어진 거야? 나라 명색이 내게 무얼 해준 게 있길래, 이번엔 일인이 내놓구 가는 내 땅을 저이가 팔아먹으려구 들어? 그게 나라야?”

“일인의 재산이 우리 조선 나라 재산이 되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

“당연?”

“그렇죠.”

“흥, 가만 뒤두면 저절루 백성의 것이 될 걸 나라 명색은 가만히 앉았다 어디서 툭 튀어나와 가지구, 걸 뺏아서 팔아먹어? 그따위 행사가 어딴단가?”

“한 생원은, 그 논이랑 멧갓이랑 길천이한테 돈을 받구 파셨으니깐 임자로 말하면 길천이지 한 생원 인가요?”

“암만 팔았어두, 길천이가 내놓구 쫓겨 갔은간, 도루 내 것이 돼야 옳지, 무슨 말야. 걸, 무슨 탁에 나라가 뺏을 영으루 들어?”

“한 생원한테 뺏은 게 아니라, 길천이한테 뺏은 거랍니다.”

“흥, 둘러다 대긴 잘들 허이. 공동묘지 가 보게나. 핑계 없는 무덤 있던가? 저, ㉠ 병신년에 원놈(군수) 김가가 우리 논 열두 마지기 뺏을 제두 핑젠 다 있었드라네.”

“좌우간, 아직 그렇게 지레 염렐 하실 게 아니라, 기대리구 있느라면 나라에서 다 억울치 않두록 처단을 하겠죠.”

“일없네. ㉡ 난 오늘버튼 도루 나라 없는 백성이네. 제길, 삼십육 년두 나라 없이 살아왔으려드냐. 아-니 글썄, 나라가 있으면 백성한테 무얼 좀 고마운 노릇을 해 주어야 백성두 나라를 믿구, 나라에다 마음을 붙이구 살지. 독립이 됐다면서 고작 그래, 백성이 차지할 땅 뺏아서 팔아먹는 게 나라 명색야?”

그리고는 털고 일어서면서 혼잣말로,

“㉢ 독립됐다구 했을 제, 내, 만세 안 부르기, 잘했지.”

\* 멧갓 : 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가꾸는 산. 산판(山坂).

\* 해거 : 괴상하고 알궂은 짓.

\* 공수 : 왼손을 오른손 위에 놓고 두 손을 마주잡아 공경의 뜻을 나타내는 예.

\* 야료 : 까닭 없이 트집을 잡고 함부로 떠들어 댐.

13.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② 사투리와 구어체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③ 서술의 초점을 한 인물에 맞추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④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대립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 ⑤ 시대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사건 발생의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1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 ‘영남’은 ‘한 생원’의 행위를 술주정 정도로 여기며 알잡아 보고 있다.
- ② ㉡ : ‘영남’은 멧갓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한 생원’의 생각에 황당해 하고 있다.
- ③ ㉢ : ‘영남’은 합법적으로 멧갓을 취득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 ④ ㉣ : ‘한 생원’은 ‘원놈 김가’에게 속아 논을 빼앗긴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고 있다.
- ⑤ ㉣ : ‘한 생원’은 독립을 자신과 무관한 일로 여기며 냉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15.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공평한 토지 분배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 ② 해방 전보다 더 무질서한 사회 현실에 울분을 느꼈기 때문에
- ③ 삼강오륜의 유교적 도덕관념이 무너진 현실에 절망했기 때문에
- ④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지도층에 실망했기 때문에
- ⑤ 해방이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리라는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16.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채만식은 해방 이후의 작품에서 해방기의 혼란을 틈타 재빨리 변신을 꾀하는 친일파와 혼탁한 사회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또한 민중이 혼탁한 현실 속에서 고통 받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도, 해방의 진정한 의미와 국가의 존재 의의에 대해 무지하고 공동체 의식이 결핍되어 있는 민중의 모습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 제도와 민중의 관계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 ① ‘한 생원’은 해방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무지한 민중의 한 사람이겠군.
- ② ‘길천농장 산림관리인’은 시대의 혼란을 틈타 제 잇속을 챙기는 약삭빠른 인물이라 할 수 있군.
- ③ ‘한 생원’과 ‘영남’의 대화를 통해 국가의 존재 의의에 대한 무지가 초래할 수 있는 폐해를 보여 주고 있군.
- ④ 독립을 사적인 관점으로만 파악하려 한다는 점에서, ‘한 생원’은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인물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해방기 국가의 토지 정책에 대한 ‘구장’과 ‘한 생원’의 대립에서, 국가 제도와 민중의 관계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엿볼 수 있군.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상언어가 지니는 특성은 의미론적 측면과 구문론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의미론적 측면에서 영상언어는 ㉠ 도상성과 ㉡ 지표성을 지닌다. 도상성은 영상언어가 실제 대상의 외양을 모방해 내는 능력이다. 도상은 영상언어와 대상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 성질의 유사성에 의존하는 기호이다. 영상언어는 모두 도상성을 지닌다. 예컨대 초상 사진은 찍힌 사람과 분명한 유사성이 있어 도상성을 갖고 있다.

[A] 그러나 영상언어의 도상성은 단순히 사실의 재현에 있지 않다. 그것은 카메라 앵글, 이미지 크기, 조명 등의 ‘영상적 기법’과, 색채, 전체 구성, 추상적 모양 등의 ‘형식적·스타일적 특성’에 의해서 창의적으로 표현된다. 이미지의 생산자는 영상언어의 도상성을 활용하여 자신의 목적에 맞게 기호화하고, 이를 통해 수용자의 감정을 움직인다. 따라서 영상 이미지는 대상과의 유사성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 떠오르게 하고 그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영상언어의 도상성은 시각과 감정을 연결하는 특성을 지닌다.

영상언어의 지표적 기호는 인과관계에 의존하는 기호로서, 외양의 유사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 예측되는 기호적 특성을 지닌다. 집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그림을 보면, 사람들은 그 집에 불이 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연기와 불 사이의 인과관계 때문이다. 영상언어는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 문자언어보다 뛰어나다.

영상언어는 문자언어보다 구문론적으로(말하자면 쇼트와 쇼트 사이의 연결 관계의 측면에서) 비결정적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의 편집 방법으로 몽타주 기법\*을 생각할 수 있다. 어린아이, 신발, 나무, 바다의 쇼트(shot)\*가 연결된 장면을 떠올려 보라. 이 네 가지 쇼트는 언뜻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소설처럼 네 장면을 문자언어로 묘사한다면, 아마도 “어린아이가 누워 있다. 들판에 떨어진 낡은 신발 한 짝이 있다. 나무가 있다. 바다가 보인다.”라고 서술할 것이다. 이것은 너무 어색한 묘사이기 때문에 독자는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영화의 장면이라면 자연스럽게 네 가지 이미지가 이어진다. 영상언어는 해독 이전에 느낌과 정서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때 의미는 바라보는 관객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해독될 수 있다.

영상언어가 비결정적이라는 점은 바라보는 사람의 참여의 폭을 넓혀 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해독의 범위가 열려 있기 때문에 관객의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요소들도 영상언어로 표현될 때, 영상언어가 지니고 있는 모호성 혹은 비결정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 몽타주 기법 : 촬영된 쇼트(shot)들을 적절히 끊고 잇는 편집 과정의 조작을 통해 새로운 의미 효과를 만들어 내는 편집 기법.

\* 쇼트(shot) : (같은 말) 컷(cut). 촬영의 기본 단위로서, 한 번의 연속 촬영으로 찍은 장면을 이르는 말.

17. [A]를 고려하여 사진을 찍고자 할 때, 그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모델의 얼굴을 클로즈업하여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지.
- ② 모델의 얼굴을 정면으로 촬영하여 외양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지.
- ③ 모델의 붉은색 넥타이를 강조하여 열정적인 성격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지.
- ④ 모델의 시선보다 낮은 위치에서 촬영하여 자신감 있는 모습을 잘 살려야지.
- ⑤ 모델의 얼굴을 밝은 조명으로 촬영하여 행복한 내면심리가 나타나도록 해야지.

18. <보기>의 밑줄 친 사례 중, ㉠와 ㉡를 드러내는 것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3점)

—————<보 기>—————

(가) 농부가 노란 은행잎을 보고 있는 장면  
→ 농부 : ‘어느새 가을이로군. 세월이 참 빠르기도 하지.’

(나) 등산객이 물려오는 먹구름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  
→ 등산객 : ‘곧 비가 쏟아지겠어. 서둘러 산을 내려가야지.’

(다) 학생이 한반도 지도를 보고 있는 장면  
→ 학생 : ‘우리나라 전체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는군.’

(라) 운전자가 교통신호등에 적색불이 켜진 모습을 응시하는 장면  
→ 운전자 : ‘주행을 멈추고 정지해야겠군.’

	㉠	㉡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다), (라)
③	(나), (다)	(가), (라)
④	(나), (라)	(다)
⑤	(다)	(가), (나)

19. 위 글을 읽고 <보기>의 빈 칸을 채우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보 기>—————

영상언어는 비결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 ① 독창적인 방법의 동영상 편집이 가능하다.
- ② 수용자와 영상의 객관적 거리가 유지된다.
- ③ 함축적이고 모호한 특성을 지닌다.
- ④ 관객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 ⑤ 관객에게 정서적으로 수용된다.

20. 문맥상 ㉠과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환기(喚起)하고
- ② 추론(推論)하고
- ③ 상정(想定)하고
- ④ 모색(摸索)하고
- ⑤ 구상(構想)하고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표현 가운데는 어떤 대상을 직접 지시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직시(直示)라고 한다. 직시는 무엇을 지시하느냐에 따라 담화 직시, 장소 직시, 시간 직시 등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담화 직시란 담화의 어떤 부분을 직접 지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 회장은 개인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으로 밝혀졌다.’라는 담화에서 ‘그것’이 지시하는 것은 이 담화의 한 부분인 ‘개인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이다. 이 경우 ‘그것’이 바로 담화 직시 표현이다.

담화 직시는 시간 직시나 장소 직시에 사용하는 ㉠ 표현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담화가 일련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전개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유형의 직시와 마찬가지로 담화 직시에서도 ‘이, 그, 저’가 다양하게 사용된다.

(ㄱ) 위에서 우리는 환경 파괴의 주요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ㄴ) 다음 장에서는 발화 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ㄷ) 이것은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저렇게 말하고 나서 뒤에 다른 말을 하지는 않겠지?

담화 직시는 (ㄱ)처럼 그것이 지시하는 담화의 부분이 직시 표현에 선행하는 담화일 수도 있고, (ㄴ)처럼 후행하는 담화일 수도 있다. 또한 (ㄷ)처럼 앞뒤의 맥락에 따라 선행이나 후행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담화 직시에 ‘이, 그, 저’가 사용될 경우, (ㄷ)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화자 자신의 발화에는 근거리 표현인 ‘이’를 사용하고, 화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발화에는 원거리 표현인 ‘그’나 ‘저’를 사용한다. 이는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담화 직시는 ‘조응(照應)’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담화 직시가 담화 속의 언어적 표현 그 자체를 지시하는데 반하여, 조응은 언어적 표현이 가리키는 실체인 ‘지시체’를 지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ㄷ) A : 차림표에 설렁탕이라고 써 놓았더군.

B : 그래? 그것은 잘못 쓴 것이지?

(ㄹ) 영이는 크고 예쁜 꽃병을 깨뜨렸다. 그것은 생일 선물로 받은 것이었다.

(ㄷ)의 ‘그것’은 음식 설렁탕 자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차림표에 써 놓은 ‘설렁탕’이라는 언어적 표현을 지시하기 때문에 담화 직시에 해당한다. 하지만 (ㄹ)의 ‘그것’은 ‘크고 예쁜 꽃병’이라는 언어적 표현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적 표현의 지시체인 ‘꽃병’ 자체를 지시하기 때문에 조응에 해당한다. 이처럼 조응 표현은 앞에 나온 선행사와 지시 대상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 공지시적(公指示的) 관계에 있다고 한다.

담화 직시와 마찬가지로 조응 표현은, 지시 대상의 앞에 올 수도 있고 반대로 뒤에 올 수도 있다. (ㄹ)과 같이 선행사가 앞에 오고 그것을 지시하는 조응 표현이 뒤에 오는 조응을 전방 조응이라 하고, 뒤에서 언급할 대상을 앞에서 미리 지시하는 조응 표현을 후방 조응이라 한다.

21.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2점)

- ① 통시적 관점에서 대상의 변천 과정을 제시한다.
- ② 가설을 먼저 제시한 후, 과정에 따라 이를 증명한다.
- ③ 상반된 사례를 토대로, 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소개한다.
- ④ 대상 간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대상의 특징을 설명한다.
- ⑤ 대상과 관련한 논의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새로운 개념을 도출한다.

22. 위 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가) 여기는 눈이 오는데, 거기는 어떠니?
- (나) 미처 언급하지 못한 내용은 아래 단락에서 설명하겠습니다.
- (다) 그것은 이미 신문이나 방송 등의 언론에 의해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 (라) 골목길에서 그것을 밟을 뻔했어. 길 한 가운데에 소똥이 수북이 있는 거야.

- ① (가)의 ‘여기’와 ‘거기’는 담화의 일부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담화 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나)에서 ‘아래’는 장소 직시에 사용되는 표현이 담화 직시의 표현으로 실현된 경우에 해당한다.
- ③ (다)에서 ‘그것’은 앞뒤의 맥락에 따라 선행하는 담화를 가리킬 수도 있고, 후행하는 담화를 가리킬 수도 있다.
- ④ (다)에서 ‘그것’ 대신에 ‘이것’을 쓰면 발화의 내용과 화자의 심리적 거리가 좀 더 가깝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 ⑤ (라)의 ‘그것’은 ‘길 한 가운데에 수북이 있는 소똥’이라는 언어적 표현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담화 직시에 해당한다.

23. ㉠가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3점)

- ① 할머니께서 반지를 주셨는데, 이것은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야.
- ② 길에서 지갑을 주웠다. 그래서 관우는 그것을 경찰서에 가져다주었다.
- ③ 저것 좀 봐. 저 높은 곳에서 지상을 향해 송곳처럼 떨어지는 폭포수를.
- ④ 곧 반장 선거가 있어. 여기에 출마해 볼까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 ⑤ 장비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24. ㉡의 ‘으로’와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2점)

- ① 세상이 온통 암흑으로 변했다.
- ② 부모님께 조석으로 문안을 드려라.
- ③ 의사는 내시경으로 질병을 발견했다.
- ④ 그 학생은 계속된 지각으로 엄한 벌을 받았다.
- ⑤ 혜주는 어제 연극 동아리에 새 회원으로 가입했다.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파밭가에서

김수영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붉은 파밭의 ㉠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먼지 앓은 석경(石鏡)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붉은 파밭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붉은 파밭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나) 대장간의 유희

김광규

제 손으로 만들지 않아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버리고

숫돌에 갈아

㉞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퐁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다) 다리 저는 사람

김기택

핏뭇하게 걷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춤추는 사람처럼 보였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는 앉았다 일어서듯 다리를 구부렸고

그때마다 뒤통은 반쯤 쓰러졌다 일어났다.

그 요란하고 기이한 걸음을

지하철 역사가 적막해지도록 조용하게 걸었다.

어깨에 매달린 가방도

함께 소리 죽여 힘차게 흔들렸다.

못 걷는 다리 하나를 위하여

온몸이 다리가 되어 흔들어 주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기둥이 되어 우람하게 서 있는데

그 뻑뻑한 기둥 사이를

그만 홀로 팔랑팔랑 지나가고 있었다.

25.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대조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② 의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선명한 색채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모순 어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인상 깊게 표현하고 있다.
- ⑤ 하강의 이미지를 지닌 시어를 반복해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26.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와 ㉡는 모두 화자에게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다.
- ② ㉠와 ㉡는 모두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대상이다.
- ③ ㉠는 깨달음을 주는 대상이고, ㉡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함축되어 있는 대상이다.
- ④ ㉠는 현실의 모순을 심화하는 대상이고, ㉡는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게 하는 대상이다.
- ⑤ ㉠는 화자의 과거 모습을 상징하고, ㉡는 화자의 미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대상이다.

27. <보기>는 (나)에 나타난 소재와 그 성격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버 스	—	정해진 노선대로만 운행하며 한꺼번에 많은 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음.
아파트	—	한꺼번에 지어져 집집마다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음.
홍은동 사거리	—	과거에 대장간이 있었던 곳
대장간	—	쇠를 뜨거운 불에 달구고 망치로 때려 연장을 만드는 수작업 공간

- ①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에는 규정된 삶의 방식을 거부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군.
- ② ‘아파트’는 차별성이 없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플라스틱 물건’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군.
- ③ ‘홍은동 사거리’는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가 사라진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군.
- ④ ‘대장간’은 다양한 생활 도구를 제작한다는 점에서,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작가의 태도를 보여 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군.
- ⑤ ‘대장간’에서 수많은 담금질을 통해 가치 있는 물건이 만들어지듯이, 화자는 치열한 자기반성을 통해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군.

28. <보기>를 참고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영화의 스틸컷(still-cut) 기법을 응용하여, 한 대상을 제외하고 그 외의 사람과 사물들의 시간과 속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그 결과 시간과 속도가 배제된 대상은 후경화(後景化)되고, 화자가 주목한 대상이 주체로 부각된다. 그래서 독자들은 주체로 부각된 대상의 특정한 모습에 주목하여 대상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된다.

- ① 화자는 ‘춤추는 사람처럼 보’이는 인물을 주목하고 있다.
- ② 스틸컷 기법을 적용하여, 흔들리는 ‘온몸’ 대신 ‘뭇 걷는 다리 하나’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기둥이 되어 우람하게 서 있’는 것은, 시간과 속도가 배제된 대상이 후경화된 모습을 나타낸다.
- ④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뻑뻑한 기둥’이 된 적이 없었는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 ⑤ ‘홀로 팔랑팔랑 지나가’는 모습은 대상의 특정한 모습으로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최충도 깊이 느낀 바 있어 이렇게 말했다.

“나도 다시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지만, 처음에 이 아이를 금돼지의 자식이라며 버려 놓고 지금 다시 데려오면 남들이 나를 비웃지 않겠소. 이 때문에 난처해 하는 중이요.”

“비웃음거리가 되는 게 걱정이라면 병이 든 척하고 아전의 집에 잠시 머물러 계세요. 제 말대로 하면 우리 아이를 다시 데려오고도 절대 남들의 비웃음을 받지 않을 거예요.”

최충은 아내의 말을 따랐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영험한 무당이 관아에 온 일이 있었다. 최충의 아내가 자기 옷을 벗어주며 무당의 거처를 묻자 무당은 이렇게 대답했다.

“장끼골 이 첩지 집 앞에 삽니다.”

그 뒤 최충의 아내는 몰래 무당의 집에 사람을 보내 무당을 불렀다. 무당이 오자 아내는 비단 수백 필을 주며 이렇게 부탁했다.

“나를 위해 아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으면 좋겠네. ‘너희 사또가 자기 아들을 금돼지의 자식이라며 바닷가에 버리자 하늘이 너희 사또를 미워해서 그 벌로 병이 든 것이다. 지금 너희가 빨리 아기를 데려온다면 너희 사또의 병이 금세 나을 것이요, 너희들 역시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 사또뿐 아니라 너희들까지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리해 주겠나?”

무당이 승낙하여 말했다.

“분부대로 하지요.”

마침내 일어나 나가 최충의 아내가 한 말을 그대로 고을 아전들에게 퍼뜨렸다. 아전들은 놀랍고 두려워 최충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집으로 일제히 달려가서는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다. 최충이 여종을 시켜 이유를 묻자 아전들이 앞으로 나와 꿇어앉더니 이렇게 아뢰었다.

“저희들이 영험한 무당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희 사또가 자기 아들을 버렸기 때문에 하늘에 죄를 얻었다. 지금 빨리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 사또의 병은 절대 나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저희가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최충이 거짓으로 놀란 척하며 말했다.

“정말 이 아이 때문에 내가 하늘의 벌을 받아 병에 걸린 거라면 아이를 다시 데려와야겠구나.”

그러고는 이적을 아이가 있는 곳으로 보냈다. 이에 이적 일행이 바닷가로 가서 아이를 찾았으나 그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그만 돌아가려 하고 있을 때 문득 어린아이의 책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 섬을 바라보니 아이가 높은 바위 위에 홀로 앉아 책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침내 배를 타고 바위 아래로 다가가 위를 올려다보고 외쳤다.

“아버님이 중병에 걸리셔서 도련님을 만나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시러 이곳에 왔습니다.”

아이가 말했다.

[A] “나를 금돼지의 자식이라며 이곳에 버렸으면서 이제 와서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마음 없이 나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 옛날 양적의 큰 장사꾼 여불위는 진나라 왕에게 미녀를 바칠 때 미녀가 자기 아이를 임신한 걸 알면서도 바쳤더랬소. 미녀는 진나라 왕에게 간 지 일곱 달 만에 아이를 낳았으니, 임신한 아이는 사실 여불위의 자식이었던 거요. 하지만 진나라 왕은 차마 그 아이를 버리지 못했소. 하물며 우리 어머니는 나를 임신한 지 석 달이 되었을 때 문창에 왔고, 얼마 안 되어 금돼지에게 납치되었다가 한 달 만에 돌아왔으며, 다시 여섯 달이 지나 나를 낳았소. 그런데 내가 어찌 금돼지의 자식이란 말이요? 만일 내가 금돼지의 자식이라면 내 이목구비가 어찌 금돼지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단 말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처음부터 나를 금돼지의 자식이라며 여기에 버렸으니 이 얼마나 잔인무도한 일이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나더러 부모를 찾아뵈라는 것이요? 만일 또다시 나를 보고 싶다고 한다면 나는 바다로 뛰어들고 말거요.”

아이는 이때 겨우 세 살이었다. 이적 등이 곧바로 돌아와 최충에게 아이의 말을 자세히 전했다. 최충은 그제야 후회하며 말했다.

“내 잘못이다!”

최충은 고을 사람 수백 명을 거느리고 바다 어귀에 이르러, 아이를 위하여 섬 위에 누각과 정자를 짓고 아이를 불러와 이름을 짓게 했다. 아이는 정자의 이름을 ‘월영’이라 짓고 누각의 이름을 ‘망영’이라 지었다. 최충은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에게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

그리고는 쇠로 만든 지팡이를 아이에게 준 후 돌아갔다.

닷새 뒤 하늘에서 수천 명의 선비가 내려와 월영대에 구름처럼 모이더니 저마다 자신의 학문을 아이에게 앞 다투어 가르쳤다. 아이는 이로 말미암아 글을 크게 깨치고 마침내 문장에 통달하게 되었다.

**[중략 줄거리]** 아이의 글 읽는 소리가 중국의 천자에게까지 들리게 되었는데, 천자는 재주 있는 두 학사를 신라로 보내 학문의 깊이를 겨루게 한다. 두 학사는 월영대에서 아이를 만나 글재주를 겨룬다.

학사는 시 한 구절을 지어 보였다.

‘삿대는 물결 밑의 달을 꿰뚫고’

아이가 곧바로 이렇게 응대했다.

‘배는 물속의 하늘을 누르네.’

학사가 또 읊었다.

‘물새는 떠올랐다 가라앉고’

아이가 다시 화답했다.

‘산 구름은 끊어졌다 이어지네.’

**[B]** 학사가 또 아이를 놀려 이렇게 읊었다.

‘새와 쥐는 어이해 짹짹 우나?’

아이가 곧바로 대꾸했다.

‘닭과 개도 또한 멍멍 짹네.’

학사가 말했다.

“개가 멍멍 짹는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닭도 멍멍 짹는단 말이냐?”

아이가 대답했다.

“새가 짹짹 운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쥐도 짹짹 운단 말입니까?”

학사가 말문이 막혀 대답하지 못하더니 아이의 재주에 미칠 수 없음을 깨닫고는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나이 아직 일곱 살이 못 된 아이의 재주가 이 정도니 명망 있는 선비들의 글재주는 대체 얼마나 뛰어난겠나!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신라에 들어오긴 했으나 어찌 대적하여 글재주를 겨룰 수 있겠소? 그냥 돌아가는 게 좋겠소.”

— 작자미상, 「최고운전」

## 29.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점)

- ① 최충은 버린 자식을 데려오기 위해 아내의 계책을 따랐다.
- ② 최충이 보낸 이적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아이를 설득하려 했다.
- ③ 최충의 부인이 무당에게 시킨 말에 관아의 관리들은 속아 넘어갔다.
- ④ 최충은 아이의 말을 전해 듣고, 자식을 버린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 ⑤ 학사들은 월영대에서 만난 아이보다 뛰어난 인물이 신라에 많을 것이라 생각했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최고운전은 기존의 강대한 것과 약소한 것의 관계가 역전되는 모습을 통해, 자아를 억압하는 중세의 부당한 억압과 횡포를 고발하고 있는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는 명분, 체면, 신분, 형식 등을 중시하는 중세의 권위주의, 남성중심주의, 가부장적 질서 등을 거부하는 모습과 함께,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질서인 ‘중화주의’를 거부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기존의 한문 소설이 대개 사대부적 취향을 담고 있던 것과는 달리 이 작품에는 민중적 감수성과 상상력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

- ① 하늘에서 내려온 선비들이 아이에게 문장을 가르친 것은 강대한 것과 약소한 것의 역전된 관계를 보여 주는군.
- ② 남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꺼리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명분과 체면을 중시하는 중세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엿볼 수 있어.
- ③ 집으로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는 아이의 모습에서, 가부장적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사회의 단면을 엿볼 수 있어.
- ④ 남편을 자신 때문에 벌어진 상황을 스스로 수습하지 못하는 인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남성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어.
- ⑤ 중국의 학사가 신라의 어린 아이를 당하지 못하는 데서,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질서인 ‘중화주의’를 거부하고자 했던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31. [A]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고 있다.
- ② 요약적 진술을 통해 과거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③ 상대의 잘못된 행위를 언급하며 상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 ④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자신의 속마음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 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언급하며 상대방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

32. [B]의 상황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군.
- 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로군.
- ③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로군.
- ④ 가자니 태산이요, 돌아서자니 송산이로군.
- ⑤ 궁지에 빠진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격이로군.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신이 생각해 보니 인재를 얻기가 어렵게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온 나라의 인재를 다 뽑아 올려도 오히려 부족할까 염려인데, 하물며 그 열 가운데 여덟, 아홉은 버리는 것입니까? 온 나라 사람들을 다 가르치고 키우더라도 백성들을 일으키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그 열 가운데 여덟, 아홉은 내쳐버리는 것입니까? 소민(小民)은 그 버린 자이고, 중인(中人)도 버린 자입니다.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 개성, 강화도 사람도 버린 자요, 관동과 호남 사람도 반쯤 버린 자요, 서열(庶孽)도 그 버린 자입니다. 복인과 남인은 버린 것은 아니나 버린 사람과 같고, 버리지 않은 사람은 오직 문벌 좋은 수십 집뿐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어떤 사건에 관련이 되어 버림받은 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버림을 받은 사람들은 학문이나 정치, 경제, 군사 등의 일에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슬퍼하고 원통해 하며 노래나 부르거나 술이나 마시면서 방탕하게 생활합니다. 그래서 인재가 있어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인재가 나타나지 않는 집안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버림받아 마땅하다.” 아, 이것이 어찌 본디부터 그러했겠습니까? 어찌 천지와 산천이 수십 집의 사람들에게만 좋은 기운을 모아 주고 더러운 기운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뿌렸겠습니까?

태어난 곳 때문에 그들을 버리는 것입니까? 김일제\*는 휴도에게 태어났으니 서쪽 오랑캐 사람이고, 설인귀\*는 북방에서 태어났으니 북쪽 오랑캐 사람이며, 구준\*은 경주에서 태어났으니 남쪽 오랑캐 사람입니다. 그 어미의 신분이 천하다 하여 이를 버린다면, 한위공은 청주 관비의 아들이며, 범문정공의 어미는 추잡한 행실이 있었으며, 소강절은 형제 세 사람의 성(姓)이 각각 달랐으니, 이와 같은 사람은 모두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서자도 홍문관 관원이 되게 하자는 논의가 때로는 시행되기도 하고 때로는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되었어도 서자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세 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그들 모두 서자 출신이라면, 이는 서자가 하는 정언(正言)\*직을 얻었을 뿐, 진짜 정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리나 품계로 제한한다면, 이것은 사람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동서남북을 따지지 않고, 멀거나 가깝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가리지 않게 하여 중국과 제도를 같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뛰어난 사람은 적고 어리석은 사람은 많으며, 올바른 사람은 드물어도 공평치 못한 사람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이러한 법은 시행되지 못하고, 시행한다고 해도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시행할 만한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십 년마다 한 번씩 ‘무재이능과(茂才異能科)’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서북 지방과 개성, 강화도의 중인 계층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경전에

① **밝고** 행실이 뛰어나며 학문과 정치에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의정부나 홍문관, 예문관, 규장각, 사간원의 신하들에게 추천하도록 하고, 지방 수령들도 각자 재능 있는 사람들을 아는 대로 추천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백 명 정도를 추천하도록 하여 서울에서 경전이나 시부(詩賦), 논책을 시험합니다.

[A] 이들에게 옛날 나라가 흥하고 망한 자취를 묻고, 지금 나라를 위해 할 일을 물어서 열 명을 뽑아 과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과거에 합격한 사람은 아래로는 사간원이나 홍문관에서부터, 위로는 의정부나 이조에 이르기까지 가리지 말고 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 공이 많은 집안과 같이 대우하고 자손들도 대대로 좋은 집안의 자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라의 풍속을 고치지 않고도 숨어 있는 인재들을 뽑을 수 있고, 막힌 것을 트이게 할 것입니다.

\* 김일제, 설인귀, 구준 : 각각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때 벼슬한 사람.

\* 정언 : 사간원에 속한 조선 시대의 정육품 벼슬.

33. 위 글의 글쓴이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바르게 배열한 것은? (3점)

— <보 기> —

ㄱ. 설의적 표현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운다.  
 ㄴ.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모순점을 부각한다.  
 ㄷ. 기존 견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한다.  
 ㄹ.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인용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높인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4. 위 글로부터 이끌어 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차별이 심했음에도 문벌 좋은 집 출신자이면 버림 받은 적이 없었다.
- ② 서자 출신을 관직에 등용하는 정책이 부분적으로 시행되었다.
- ③ 당파의 대립으로 인한 폐해가 인재 등용에까지 미쳤다.
- ④ 중국은 인재 등용에 있어서 신분 차별을 하지 않았다.
- ⑤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 지역에 따른 차별이 심했다.

35. <보기>의 입장에서 [A]에 대해 품을 수 있는 비판적 의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싸움을 결판내는 것은 힘입니다. 힘이 모자라면 응원할 이를 청하고, 응원하는 이들이 모이면 당파가 됩니다. 그러므로 당파를 보호하려는 심정은 응원을 구하기 위함이고, 응원을 구하려는 것은 힘을 모으기 위함이며, 힘을 모으려는 심리는 서로 많이 먹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본다면 봉당(朋黨)은 그 출발부터가 너무 비열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① 관직 임명 과정에서 과거 시험의 일반 합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 ② ‘무재이능과’를 십 년마다 설치한다면 제때에 필요한 인재들을 발굴할 수 있을까?
- ③ 소외된 지역의 낮은 신분 사람 중에 백 명이나 추천할 만한 인재들이 있을까?
- ④ 추천 대상 지역 이외의 지역이 오히려 인재 등용에서 소외될 수 있지 않을까?
- ⑤ 관리들이 사심을 갖고 자기 사람을 편파적으로 추천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36. ㉠과 문맥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2점)

- ① 그 분야는 전망이 밝다.
- ② 그녀는 세상 물정에 밝다.
- ③ 그는 경우가 밝은 사람이다.
- ④ 그의 낮빛이 점점 밝아졌다.
- ⑤ 초저녁부터 달이 휘영청 밝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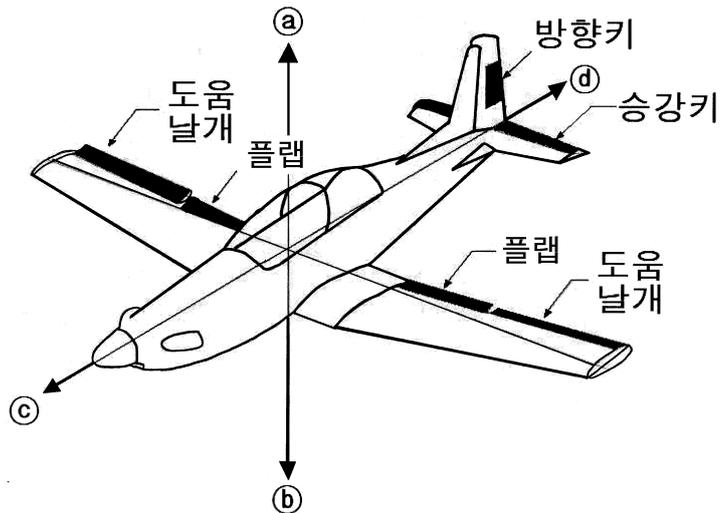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행기가 비행을 할 때 네 가지의 힘이 작용한다. 비행기에는 아래로 향하는 중력과, 위로 향하는 양력이 작용한다. 또한 공기의 저항에 의하여 항력이 발생하며, 그 힘을 이기고 비행기를 전진하게 하는 추력이 엔진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네 가지 힘들이 균형을 이룰 때 비행기가 안정을 이루며 비행할 수 있으며, 힘의 균형이 깨질 때 비행기는 상승 또는 하강하거나, 가속 또는 감속한다.

비행기가 중력을 이기고 하늘로 날아 오르기 위해서는 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양력 발생은 베르누이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베르누이의 원리는 공기(유체)의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낮아지고, 반대로 공기(유체)의 속도가 느려지면 압력이 높아진다는 원리이다. 날개의 단면을 보면 ㉠ 윗면의 길이가 아랫면의 길이보다 길다. 이러한 모양의 날개가 앞으로 진행할 경우, 같은 시간에 더 긴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윗면의 공기가 더 빨리 움직인다. 그 결과 아랫면을 지나는 공기보다 윗면을 지나는 공기의 속도가 더 빨라져서 압력이 낮아진다. 이때 날개 아랫면의 높아진 압력과 윗면의 낮아진 압력 사이의 차이만큼 위로 향하는 힘, 곧 양력이 생긴다.

비행기는 조종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조종면(control surface)이라고 한다. 비행기의 조종면으로는 몸통의 주 날개 끝에 위치한 도움날개(aileron), 비행기 뒤쪽의 꼬리날개의 수평안정판에 달린 승강기(elevator)와 수직안정판에 달린 방향키(rudder)가 있다. 그리고 이것들을 조종사의 의도대로 조작하는 장치로 조종간과 페달이 있다. 조종사의 조작에 따라 날개 뒷부분에 부착된 조종면이 꺾이며 날개의 형태가 바뀌게 되고, 그에 따라 양력이 변화한다. 조종면 외에도 플랩(flap)이 있다. 이는 날개의 안쪽에 위치하며, 속도가 낮은 이착륙 시 날개의 양력을 증가시켜 주는 고(高)양력 장치이다.

조종사가 비행기의 기수를 올리기 위해 조종간을 뒤로 당겨 승강기를 위로 꺾으면, 수평안정판에는 아랫방향으로 힘이 발생하여 비행기 앞부분이 들리게 된다. 또 비행기를 좌우로 기울게 하려면 좌우 도움날개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 도움날개가 내려간 쪽의 양력은 증가하고 도움날개가 올라간 쪽의 양력은 감소하므로, 비행기 좌우 날개의 양력이 이루는 평형이 깨지면서 비행기가 기울어진다. 예를 들어, 조종간을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오른쪽 날개에서는 아래쪽으로, 왼쪽 날개에서는 위쪽으로 힘이 발생하여 비행기가 오른쪽으로 기운다. 방향키의 경우는 조종사가 발로 페달을 밀어 조종한다. 오른쪽 페달을 밀면 방향키가 오른쪽으로 회전하게 되므로 수직 꼬리날개에서는 왼쪽 방향으로 힘이 발생하여 기수가 오른쪽으로 회전한다.



<비행기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주요 부분의 명칭>

3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비행기에 작용하는 힘을 유사한 사례에 빗대어 설명한다.
- ② 조종 방식을 중심으로 비행기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다.
- ③ 비행의 과학적 원리와 비행기 조종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 ④ 현재 사용 중인 비행기의 종류를 구조에 따라 나누어 설명한다.
- ⑤ 새로운 조종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비행역학 이론을 바탕으로 진단한다.

38. 위 글에 제시된 <그림>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양력, ㉡는 중력, ㉢는 추력, ㉣는 항력에 해당한다.
- ② ㉠>㉡,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비행기가 앞으로 날 수 있다.
- ③ ㉠~㉣의 균형이 깨질 때 비행기는 상하로 움직이거나 속도가 변화한다.
- ④ ㉠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날개 아랫면의 공기압이 윗면보다 높아야 한다.
- ⑤ ㉠와 ㉡는 비행기 자체에서 발생하고, ㉢와 ㉣는 자연적 조건에 의해 발생한다.

39. <보기>의 비행을 위한 조종면의 작동 방향이 바르게 배열된 것은? (3점)

— <보 기> —

오른쪽 그림은 정면 방향으로 수평 비행을 하던 비행기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왼쪽 위 방향으로 상승하는 모습이다.



	좌측 도움날개	우측 도움날개	승강기	방향키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40. <보기>를 참조할 때, ㉠과 성격이 동일한 것은? (3점)

— <보 기> —

㉠은 순 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로, 앞말과 뒷말 사이에서 ‘ㄴ’ 소리가 한 번 덧나는 사잇소리 현상을 보이고 있다.

- ① 잇몸
- ② 햇수
- ③ 제삿날
- ④ 예삿일
- ⑤ 전셋집

권  
말



### 언어 영역 정답표

문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답	②	④	③	⑤	④	⑤	③	③	②	④	②	④	①	④	⑤	③	②	⑤	②	①
문항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정답	④	⑤	⑤	③	①	③	④	②	②	①	④	①	④	①	⑤	②	③	⑤	⑤	③



2. 전기 절약 캠페인을 위한 스티커를 제작하고자 한다. <보기>의 조건에 따라 작성한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의도 : 전기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함.

표현 : 전기용품을 화자로 설정하고 실천을 간접적으로 촉구함.

- ① 빈방마다 전등이 다 켜 있군요.  
아무도 없는 방에 전등이 필요할까요?
- ② 수없이 여닫는 사람들이 있기에  
냉동실 속의 저는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 ③ 온종일 찬바람 쏘기에 제가 지쳐가도  
당신은 껌입을 옷만 더 찾으시는군요.
- ④ 제 몸을 뜨겁게 하여 옷의 주름을 펴듯이  
당신의 뜨거운 열정이 세상의 주름을 펴니다.
- ⑤ 빈 교실에서 저 혼자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전기를 아낄 수 있도록 스위치를 꺼 주시겠습니까?

3. <보기>는 미술전을 관람하고 난 후 쓴 감상문이다.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보 기> —

제목 : '마티스전'을 다녀와서

미술 수행 평가를 위해 '마티스전'을 관람하러 ㉠ 오랫만에 외출하였다. 그동안의 지루한 장마가 그쳤다. ㉡ 검은 구름 사이로 덮여 있던 새파란 하늘이 손수건만 하게 나타났다. 발걸음도 경쾌하게 미술관을 향하였다. 미술관에 도착하니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 사람들이 많은 전시장을 돌아보며 그림을 관람하고 있었다.

마티스의 그림을 책에서만 보았지 이렇게 직접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특히 마티스 예술의 진수인 단순성과 강렬함이 극대화된 「춤」은 매우 인상적인 작품이었다. ㉣ 마티스의 그림을 보고 당시 비평가들은 혹평하였다고 한다. 푸른 하늘과 언덕이 극도로 단순화 되었으며, 서로 손을 맞잡고 돌아가는 다섯 명의 무희는 강렬한 생명력을 만들어 냈다. 이 그림은 러시아의 부호 시츠킨의 의뢰로 탄생한 걸작이라 한다. 「춤」이 너무나 마음에 든 시츠킨은 그것과 짝이 될 만한, 음악을 주제로 한 그림을 또 의뢰하였다. ㉤ 그리고 마티스는 「춤」과 같은 색, 같은 형태의 구성이지만 조용하고 차분한 「음악」을 그렸다고 한다. 이번 '마티스전'을 계기로 다른 작가의 작품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 ① 맞춤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을 '오랜만에'로 바꿔야겠군.
- ② 표현이 어색하므로 ㉡을 '덮여 있던 검은 구름 사이로 새파란 하늘이'로 바꾸면 자연스럽겠군.
- ③ 의미가 모호하므로 ㉢은 '많은 사람들이 전시장을 돌아보며 그림을 관람하고 있었다'로 바꿔야겠군.
- ④ 글의 흐름으로 보아 불필요한 문장이므로 ㉣은 삭제해야겠군.
- ⑤ 접속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을 '하지만'으로 바꾸면 좋겠군.

4. <보기>는 발음이 비슷하여 일상생활에서 혼동하기 쉬운 말들을 조사한 것이다. 이를 참조하여 잘못 사용되고 있는 어휘를 고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바치다<sup>1</sup> : 무엇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거나 쓰다.  
 바치다<sup>2</sup> : 주접스러운 정도로 좋아하여 찾다.  
 받히다 : ‘받다’의 피동사 (\*받다 : 머리카락 따위로 세차게 부딪치다.)  
 받치다<sup>1</sup> : 심리적 작용이 강하게 일어난다.  
 받치다<sup>2</sup> : 어떤 물건의 밑이나 안에 다른 물체를 대다.

- ① 그는 설움에 받혀 울음을 터뜨렸다.(→받쳐)
- ② 그는 길을 건너다가 차에 받쳐 크게 다쳤다.(→받혀)
- ③ 초등학교 학생들은 공책에 책받침을 받치고 쓴다.(→받히고)
- ④ 이분을 위해서라면 몸과 마음을 받쳐야 된다는 생각뿐이었다.(→바쳐야)
- ⑤ 매일 그렇게 술을 받히더니 결국 간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입원했다.(→바치더니)

[ 5~8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김진희와 이혈룡은 출세하면 서로 돕기로 맹세한다. 양가 아버지가 모두 죽은 후 김진희는 과거에 급제하여 평양 감사가 되나, 이혈룡은 매우 궁핍한 처지가 된다. 이혈룡은 김진희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오히려 김진희는 이혈룡을 죽이려고 한다. 이혈룡은 기생 옥단춘에 의해 구출되고, 두 사람은 가연을 맺는다. 이후 과거에 급제한 이혈룡은 암행어사가 되나 걸인 행색으로 옥단춘을 찾아간다. 하지만 옥단춘은 이혈룡을 따뜻하게 맞아준다. 김진희가 연광정에서 벌인 잔치에 옥단춘이 불려나간다.

역졸들과 약속한 시각이 다가오자 이혈룡은 그 남루한 행색으로 성큼성큼 연광정 대상(臺上)으로 올라가니, 이때 당황한 나졸들이 와르르 달려들어 혈룡을 잡아서 층계 밑에 꿰려 놓으니, 김 감사가 대상에서 호통을 치니라.

“너 이놈 이혈룡이로구나. 네가 저번에 죽지 않고 또 살아서 왔느냐? 이번에는 어디 견디어 보라!”  
 “나도 전번에 너를 친구라고 신세를 지려고 하였으나, 나도 양반의 자식이라. 이놈 진희야, 들어보라. 떠나면 길에 너를 찾아 왔다가 영문에서 통기도 못하고 근근이 지내다가, 이 연광정에서 네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반가워하였으나, 너는 나를 미친놈이라고 대동강의 사공을 불러서 배에 태워 물 속에 던져서 죽이지 않았느냐. 내 물귀신 될 원혼이 오늘 또다시 네가 연광정에서 호유(豪遊)\*하기에 다시 보려고 왔다.”

<중략>

김 감사가 사공들에게 호령하여,  
 “이혈룡과 옥단춘이 두 연놈을 한 배에 싣고 나 보는 앞에서 대동강 깊은 물에서 던져 보리라!”  
 사공들이 저희들 목숨 산 것만 다행으로 여기고 물러나자, 김 감사는 또 영을 내려서 북소리를 세 번 덩 덩 울리니,

“그 연놈을 빨리 함께 죽여라!”

하니, 이때 아직 신분을 밝히지 않은 암행어사 이혈룡이 사공들에게 묶여서 배에 실려 오를 적에 탄식하고 하는 말이,

“붕우유신 쓸데없고, 결의형제 쓸데없구나. 전에는 ㉠ 너와 내가 생사를 같이 하자고 태산처럼 맺었더니,

살리기는 고사하고 죄 없이 죽이기를 일삼으니 그럴 법이 어디 있나. 오륜(五倫)을 박대하면 양화(殃禍)가 자손에까지 미치리라.”

하고, ㉠ **대동강의 맑은 물을 바라보며 한탄을 계속하니라.**

“대동강 맑은 물아, 내가 너와 무슨 원수로, 한 번 죽기도 억울한데, 두 번이나 죽이려고 이 모양을 시키느냐. 정말로 죽게 되면 가련하고 원통하다.”

이때 옥단춘이 이혈룡의 손을 부여잡고 만경창과 바라보며 기절할 듯이,

“원통하고 가련하다. 무죄한 우리 목숨 천명을 못 다 살고 어복중(魚腹中)의 원혼 되니, 청천은 감동하사 무죄한 이 인생을 제발 살려 주소서.”

하고 하늘에 호소할 때, 물에 던지기를 재촉하는 북소리가 한 번 울리니, 옥단춘은 더욱 기가 막히더라.

[A]

“애고 애고 이일을 어찌할까? 임아 임아 낭군님아, 어찌 하면 산단 말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죄 없으면 사느니라. 울지 말고 정신차려라.”

이때 북소리가 두 번 울리매, 춘이 자지러지게 놀라면서,

“임아 임아 서방님아, 이제는 꼭 죽었지 못살겠소. 살려주소. 살려주소. 무죄한 이 소첩을 제발 살려주소. 신명께 맹세하여 아무 죄도 없습니다.”

이때 세 번째 북소리가 들렸으니, 사공들은 당황히 재촉하니라.

“어서 물에 들어가소. 일사라도 지체하면 우리 목숨 죽을 테니 어서 물로 들어가소.”

하고 성화같이 재촉하니 옥단춘이 넋을 잃고,

“여보 사공님들 들어보소. 당신들도 사람이면 무죄한 이 인생을 왜 그리 죽이려 하오? 나만은 자결할

[B]

테니, 우리 낭군 살려주소.”

“아무리 야속해도 감사님 명령이 엄격하니, 살릴 묘책 없소이다. 어서 바빠 조처하소.”

옥단춘은 단념하고 두 눈을 꼭 감고 치마를 걷어 올려서 머리에 쓰고 이를 갈면서 별벌 떨고,

“에구머니 나 죽는다!”

㉡ **한 마디 지르고 풍덩 뛰어들려고 하는 순간**, 이혈룡이 깜짝 놀라서 옥단춘의 손을 부여잡고 가로되,

“춘아 춘아,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하고 잡아서 옆에 앉히고, 저쪽 연광정을 흘겨보면서,

“애들, 서리 역졸들아!”

하고, 부르는 소리 천지를 진동하니, 난데없는 역졸들이 벌떼처럼 달려들며, 우레 같은 고탈 소리와 함께,

“암행어사 출도하옵시오!”

하는 ㉢ **소리가 연광정과 대동강을 뒤엎을 듯 하니라.**

<중략>

어사또의 호령이 내리자, 좌우의 나졸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번개같이 곤장 태장으로 두들겨 대며 가로되,

“애고애고, 어사또님 제발 살려 주십시오, 제가 죽을죄를 진 것은 저도 모를 귀신이 시켜서 그랬사오니, 죽고 사는 것은 어사또 처분이오니, 죽을죄 지은 놈이 무슨 말씀하오리까. 처분만 바라오며 잔명을 비웁니다.”

“네 이놈, 나쁜 아니라 죄 없는 옥단춘까지 나와 함께 죽이려 한 것은 무슨 까닭이냐? 네 죄를 생각하면 도저히 살려 둘 수 없다.”

어사또는 전에 자기를 배에 싣고 물에 넣으러 가던 사공들을 불러 놓고,

“너희들 이 놈을 배에 싣고 대동강 깊은 물에 던져 버려라.”

사공들이 어사또의 영을 듣고 김진회를 끌어다 배에 싣고 만경창과 물위로 떠나기 시작하니라. 이때 어사또가 어진 마음으로 다시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서,

“저 놈의 죄는 만 번 죽여도 부족하지만, 나로서 옛정을 생각하니 차마 죽일 수가 없구나.”

하고 나졸을 불러서 분부하니라.

“너희들 급히 배에 가서 그 양반을 물 속에 한참 넣었다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도루 건져서 배에 싣고 오너라.”

“네잇”



[ 9~1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일반적으로 기억은 부호화, 저장, 인출의 세 단계를 거친다고 본다. 이는 인간의 기억 체계를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에 비유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중심으로 기억을 살펴보면, 정보는 저장되기 전에 기억 체계에 맞게 부호화되어야 한다. 이 부호화는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전법으로 바꾸어 입력하는 것과 같다. 저장 이후에는 정보를 인출하는 단계가 있다. 처리된 정보를 저장만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정보를 사고 과정이나 다른 인지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인출 단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세 단계를 거치는 도중에 망각이라는 문제가 생긴다.

(나) 일상에서 어떤 대상을 기억할 때 그 대상 자체의 성질이 기억을 크게 좌우한다. 예를 들면 일상에서 사용하는 어휘 중 어떤 것은 기존 지식과 관련하여 기억에 **유리**하고 어떤 것은 **불리**하다. 이와 같이 어휘에 대한 기존 지식은 기억의 용이성을 크게 좌우한다. 어떤 실험에서 이를 통제하기 위해 실제 어휘가 아닌 음절자를 만들었다. 이를 무의미 음절자라 하는데 ‘TAK’, ‘찰’ 등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은 대상을 학습시켜 그 기억 정도를 검토하여 **망각**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시간이라는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망각은 시간에 따른 정보의 **상실**에서 비롯된다. 이는 기억의 ㉠ 저장 단계에 문제가 있는 망각이다.

(다) 시간과 무관한 망각도 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망각된 기억을 **회복**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어떤 사람을 지나칠 때 그가 매우 친숙하지만 누구인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다가 영화를 보던 중 문득 기억해 낼 수 있다. 나중에 기억을 회복한 점을 보면, 그를 기억하지 못했던 당시에도 그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저장 단계가 아니라 ㉡ 인출 단계에서 비롯된 망각이다. 기억 속에서 항목들은 의미의 맥락에 따라 서로 관련되어 있어 그 맥락을 잡을 수 있는 단서가 있어야 정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다.

(라) 한편 정보가 저장될 때 왜곡되는 망각도 있다. 법정에서 빚어지는 기억에 대한 시비가 그 예이다. **강력** 사건의 목격자는 사건 당시의 공포나 그 순간을 회피하려는 동기 등으로 범인의 얼굴을 보긴 했지만 제대로 부호화하여 저장하지 못해 그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처음의 부호화가 **빈약**하여 왜곡되는 경우를 ㉢ 부호화 단계에서 비롯되는 망각이다.

(마) 이처럼 망각은 기억의 세 단계 모두에서 일어나고 각 단계에서 비롯되는 망각은 서로 다르다. 기억은 크게 음운 부호와 의미 부호로 정보를 저장한다. 이 두 부호 중에서 어느 부호로 기억되느냐에 따라 각 단계의 망각 양상은 달라진다. 부호화 단계에서 음운 부호는 발음 감각 그대로, 의미 부호는 기존 지식과 관련하여 정보를 부호화한다. 이때 의미 부호가 기존 지식의 맥락에 맞지 않는다면 쉽게 망각된다. 저장 단계에서 음운 부호는 발음 감각이 **단기**적으로만 보존되어 정보는 쉽게 잊게 된다. 하지만 의미 부호는 기존 지식에 체계화되어 쉽게 망각되지는 않는다. 즉 저장 단계에서 음운 부호는 빨리 망각되고 의미 부호는 **장기**적으로 지속된다. 인출 단계에서 음운 부호는 발음 감각 그대로 쉽게 인출된다. 하지만 의미 부호는 의미의 맥락을 찾아야 하므로 단서가 없으면 쉽게 망각된다. 이렇게 의미 부호는 음운 부호보다 부호화 단계와 인출 단계에서 망각에 더 약하다. 기억의 단계와 관련하여 망각을 고려하면 기억을 훨씬 높일 수 있다.

9.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언급하면서 논의할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나) : 실험 내용을 근거로 들어 저장 단계에서 비롯된 망각을 설명하고 있다.
- ③ (다) : 일상의 경험을 들어 인출 단계에서 비롯된 망각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라) : 구체적 사례를 들어 부호화 단계에서 비롯된 망각을 설명하고 있다.
- ⑤ (마) : 기억의 단계에 따라 망각이 부호화되는 과정을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10. <보기>의 사례를 ㉠~㉣과 바르게 연결한 것은? (2점)

— <보 기> —

㉠ : 어떤 교통사고를 함께 목격한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 :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을 며칠 후 잊어버리는 경우  
 ㉢ : 친구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고 입 안에서 맴도는 경우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 ⑤ ㉠ - ㉢, ㉡ - ㉠, ㉢ - ㉡

11. (마)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독자가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단어를 암기하는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면 먼저 학습한 단어와 마지막에 학습한 단어의 기억 정도가 높았고 중간에 학습한 단어의 기억 정도가 낮았다. 이것은 중간에 학습한 단어보다 처음 학습한 단어를 더 망각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결과였다.

- ① 학습한 단어의 기억 정도에는 음운 부호와 의미 부호의 차이도 영향을 주겠군.
- ② 중간에 학습한 단어보다 처음과 마지막에 학습한 단어가 기존 지식과의 관련성이 높을 수도 있어.
- ③ 중간에 학습한 단어의 인출을 높이려면 그 단어와 관련된 맥락을 잡을 수 있는 단서가 있어야겠군.
- ④ 의미 부호보다 음운 부호가 저장 단계에서 망각이 잘 이루어져서 중간에 학습한 단어의 기억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겠어.
- ⑤ 시간적 경과가 있었음에도 처음에 학습한 단어가 더 많이 기억되는 것은 기존 지식에 체계화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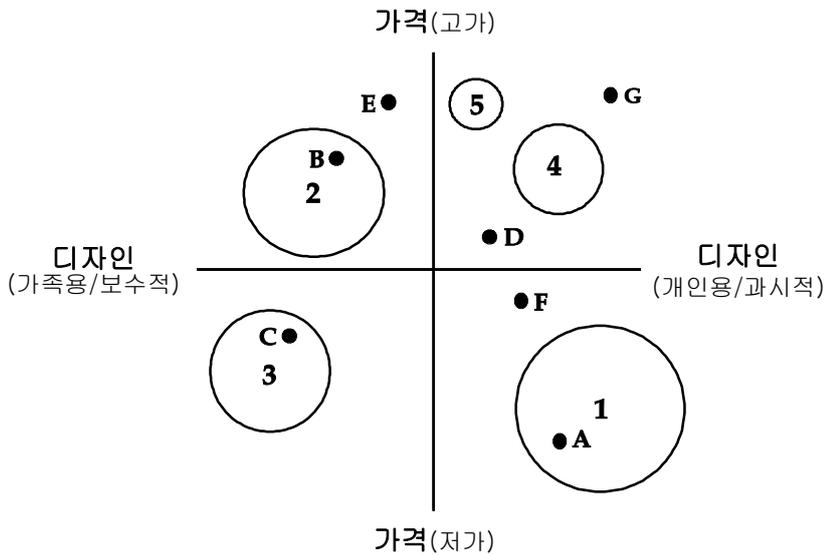
12. 문맥을 고려할 때, 위 글에 사용된 단어의 의미 관계가 이질적인 것은? (2점)

- ① 유리 - 불리
- ② 기억 - 망각
- ③ 상실 - 회복
- ④ 강력 - 빈약
- ⑤ 단기 - 장기

[ 13~16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마케터가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어떤 시장에 진입하고자 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다. 첫째는 구매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 집단을 적당한 방법으로 분류하는 ‘시장 세분화(Segmenting)’이고, 둘째는 그 세분화된 시장 가운데 가장 적절한 시장을 선택하는 ‘목표 시장 선정(Targeting)’이며, 셋째는 목표 시장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포지셔닝(Positioning)’이다. 포지셔닝은 마케팅의 여러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 중에서 광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 세 가지의 영문 이니셜을 따서 ‘STP 전략 수립’이라고 한다.

마케팅에서 STP 전략 수립에 응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법은 지각도이다. 지각도는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브랜드가 현재 소비자의 머릿속에 어떻게 지각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어떤 특성의 브랜드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런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등 마케팅 전략 수립에 관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을 도식화한 것이다. 우리가 어떤 장소를 찾아갈 때 지도가 있으면 훨씬 쉽듯이 마케터는 지각도를 활용하여 현재의 위치와 나아갈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 A~G : ‘갑’ 회사의 자동차 브랜드

㉠ 왼쪽 지각도를 중심으로 살펴 보자. 지각도 작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세 종류의 정보가 필요하다. 첫 번째 정보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속성이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선택할 때에 가장 중시하는 것을 가격과 디자인이라고 하자. 이때 이 두 가지 속성은 지각도의 축이 된다.

두 번째 정보는 소비자 각자가 추구하는 각 속성의 이상적 수준이다. 이것은 소비자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가격이 싼 경제적인 차를 원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고가의 품위 있는 차를 원한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 중

심적이어서 보수적인 스타일을 원한다. 이와 같은 이상적 수준들의 위치를 그림에서처럼 몇 개의 원으로 나타낼 수 있다. 원의 크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위치를 이상적이라 생각하는가를 의미한다.

세 번째 정보는 소비자들의 기존 브랜드에 대한 인식 또는 이미지이다. 이것은 지각도상의 점으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C는 경제적이고 가족중심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G는 고급 스포츠 자동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목표 시장을 선정할 때 유용하다. 이상적인 목표 시장은 규모가 커야 하고 경쟁이 약해야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 상충된 요건을 겸비한 시장은 찾기 힘들다. 그리고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 규모는 1번과 2번이 가장 크지만 인근 브랜드들과의 경쟁이 예상된다.

어떤 시장을 선택하는 것은 마케팅 관리자의 주관적 판단에 달려 있으나 지각도는 시장 상황을 도식화하여 보여 줌으로써 새로운 시장 진입을 위한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마케팅 기법이라 하겠다.

## 1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점)

- ① 시장은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이상적 수준에 의하여 나뉜다.
- ② 포지셔닝은 광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 ③ 목표 시장 선정에서 규모가 크고 경쟁이 약한 시장을 찾기는 힘들다.
- ④ 기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는 목표 시장을 선정할 때 유용한 정보가 된다.
- ⑤ 마케팅 전략 수립에 중요한 요소들을 도식화한 것을 STP 전략 수립이라 한다.

## 14. 위 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3점)

- ① STP 전략 수립에 지각도는 어떠한 유용성이 있는가?
- ② 지각도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어떤 것이 있는가?
- ③ 지각도는 기존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④ 마케팅 전략 수립에 응용할 수 있는 기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⑤ 새로운 시장 진입에 마케터가 고려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15. 위 글을 읽은 독자가 ㉠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F 자동차는 A 자동차와 경쟁을 하지 않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겠군.
- ② 과시적 디자인에 저가 자동차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1번 시장의 규모가 큰 것이군.
- ③ B 자동차가 점유하고 있는 시장은 E 자동차가 가격을 낮추면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군.
- ④ D 자동차는 가격을 올리더라도 과시적 디자인으로 개선하면 4번 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겠군.
- ⑤ 3번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은 가격이 저렴한 보수적 디자인의 가족용 자동차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군.

## 16. 밑줄 친 단어 중, ㉡과 의미가 이질적인 것은? (2점)

- ① 그들의 주장은 서로 배치(背馳)된다.
- ② 그는 아내와 의견이 상반(相反)되었다.
- ③ 이 사실은 저 사실과 배반(背反)하는 관계이다.
- ④ 지금 상황은 목적과 수단이 전도(顛倒)되어 있다.
- ⑤ 이 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모순(矛盾)을 안고 있다.

[ 17~20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명경(明鏡)에 띄 끼거던 갑주고 닷글 줄  
아희 어른 업시 다 밋쳐 알건마는  
갑업시 닷글 명덕(明德)을 닷글 줄을 모르는다.

성의관(誠意館) 도라드러 팔덕문(八德門) 바라보니  
크나큰 혼 ㉠ 길이 넓고도 곳다마는  
엇지타 온종일 행인이 오도가도 아닌 게오.

구인산(九仞山) 긴 솔 베혀 제세주(濟世舟)를 무어 너야  
길 닐근\* 행인을 다 건너려 헐었더니  
사공도 무상(無狀)하야\* 모강두(暮江頭)에\* 버릇나다.

- 박인로, 「자경가(自警歌)」

\* 길 닐근 : 길 잃은

\* 무상(無狀)하야 : 변변치 못하여

\* 모강두(暮江頭)에 : 저물어 가는 강가에

(나)

조용함과 서두름이 비록 길은 다르나  
활동에 휴식에 다 적절히 맞네.  
홀로 나는 유배를 당하여도  
외물(外物)에 거리낌이 없는지라.  
행동을 엮매여도 몸은 되레 편하고  
명예는 손상돼도 도(道)는 더욱 곧네.  
지팡이 가죽신으로 그윽한 곳 찾고  
시서(詩書)에 애오라지 정을 붙이네.  
얻고 잃은 것을 어찌 다시 말하랴  
세상 운수는 절로 순환하니,  
세상살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서  
초연히 남은 생애를 보내리라.

靜躁雖異途  
動息皆有營  
獨我遭竄逐  
而無外累嬰  
跡拘身反逸  
名毀道彌貞  
杖屨或尋幽  
詩書聊寓情  
得喪那復云  
世運自回榮  
偃仰從舒放  
超然送餘生

- 신희, 「감사(感事)」

(다)

무릇 사물 중에서 아름다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갖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물건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더욱 많게 되며, 그것을 얻기도 더욱 힘들게 된다. 비옥한 전답과 높은 집, 길다란 인끈\*과 포근한 갓옷\*, 아리따운 여자와 좋은 말 같은 것은 평생토록 얻으려고 애쓰지만, 어떤 사람은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얻지 못한다. 그것을 얻을 때는 마치 사나운 새와 짐승이 먹이를 움켜잡고서 사방을 둘러보는 것과 같으며, 그것을 얻지 못할 때는 마치 궁한 귀신이 슬퍼 울부짖는 것과 같으니 또한 가련하지 않은가.

무릇 천하 만물의 아름다움을 따져보아도 하늘에 있는 물건의 아름다움만은 못하다. 그러나 해는 너무

뜨겁고, 별은 너무 희미하며, 구름과 안개는 너무 쉽게 없어지니,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점에서는 모두가 달만 못한다.

만약 하늘과 땅 사이에 예로부터 달이 없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달을 얻게 되었다면, 그가 달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 만족해하여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 어찌 야광주(夜光珠)와 수극벽(垂棘壁)\*을 가진 것쯤에 비교가 되겠는가. 다만 달이 예로부터 하늘에 있어 모든 사람이 그것을 얻었으므로, 본체만체하며 버려두고 돌아보지도 않는 것이다. 슬프다. 내가 참으로 그것을 갖는다면 이는 내가 얻은 것이다. 그 예로부터 존재하여 모든 사람이 얻었던 것이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오로지 사사로운 욕심과 혼자만이 차지하려는 마음을 애써 버려야 할 것이다.

— 정약용, 「득월당기(得月堂記)」

\* 인끈 : 병권(兵權)을 가진 무관이 발병부(發兵符) 주머니를 매어 차던, 길고 넓직한 끈

\* 갓옷 : 짐승의 털가죽으로 안을 댄 옷

\* 수극벽(垂棘壁) : 중국 수극명에서 생산되는 큰 구슬

17.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가), (나)의 화자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 ② (가), (다)의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도피하고자 한다.
- ③ (나), (다)에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④ (가), (나), (다) 모두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
- ⑤ (가), (나), (다) 모두 화자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가 드러나 있다.

18. 밑줄 친 시어 중, ㉠과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3점)

- ①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보네  
고인을 못 봐도 가던 길 앞에 있네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할고 — 이황
- ② 길 위에 두 돌부처 벗고 굽고 마주 서서  
바람 비 눈 서리를 맞도록 맞을망정  
인간의 이별을 모르니 그를 부러워하노라 — 정철
- ③ 설악산 가는 길에 개골산 중을 만나  
중에게 묻는 말이 풍악(楓岳)이 어떻더냐  
이 사이 연(連)하여 서리 치니 때 맞았다 하더라 — 조명리
- ④ 조그만 이 한 몸이 하늘 밖에 떠다니니  
오색 구름 깊은 곳의 어느 것이 서울인고  
바람에 지나는 검불 같아서 갈 길 몰라 하노라 — 이정환
- ⑤ 전원엔 남은 흥을 전나귀에 모두 싣고  
계산(溪山) 익은 길로 흥치며 돌아와서  
아이야 금서(琴書)를 다스려라 남은 해를 보내리라 — 김천택

19.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신흙의 「감사(感事)」는 그가 53세 되던 해 춘천 유배지에서 지은 작품이다. 유배 생활 속에서 외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초연한 자세로 살아가려 하는 화자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화자는 힘든 유배 생활조차도 순리에 따라 자연을 즐기며 사는 전원생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외물에 거리낌이 없는지라’는 유배 생활에 초연한 화자의 태도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② ‘행동을 얽매어도’와 ‘명예는 손상돼도’는 유배 생활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③ ‘그윽한 곳 찾고’는 자연을 즐기며 살고자 하는 화자의 삶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④ ‘얼고 잃은 것을 어찌 다시 말하랴’는 외적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화자의 마음가짐을 말한 것이겠군.
- ⑤ ‘세상 운수는 절로 순환하나니’는 삶에 대한 무상감을 자연의 순환에 빚댄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20. (다)를 [A]와 같이 정리할 때, [B]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		[B]
사물 중에서 아름다운 것은 사람들이 다 같이 갖고 싶어 한다.	→	일반적인 현상에 대해 언급하며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①
↓		
물건이 아름다울수록 얻기 힘든데,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가련하다.	→	세태에 대해 언급하며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②
↓		
천하 만물 중에서도 하늘에 있는 물건이 가장 아름답다.	→	아름답다고 여기는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을 엿볼 수 있다. ...③
↓		
하늘에 있는 것 중에서는 달이 으뜸이다.	→	대상 간의 비교를 통해 중심 소재의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④
↓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달을 혼한 것으로 여겨 만족해하지 않는다.	→	사람들의 한계를 드러내며 이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 ...⑤
↓		
참으로 소유하려는 마음을 갖고 사사로운 욕심을 버려야 한다.	→	참된 소유의 의미를 밝히며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 21~24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군대에 간 아우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어린 시절의 경험을 편지에 쓰기 시작한다.

(가) 먼지 나는 길, 공장의 담, 까마중 열매 다음에 생각나는 건 땅에 반쯤 묻혀있던 노깡\*들이야. 사택 앞의 쓸쓸한 가로를 따라서 가죽나무가 서 있고, 나뭇가지에는 하늘소벌레가 살았고, 벽돌벽의 어지러운 선전문 자국들, 창고의 탄환 흔적, 그리고 인가 끝에 상두도가 있었고, 실개천을 가로지르며 노깡들이 엇갈려 길게 누워 있었지. 노깡 속엔 우리가 그 무렵에 눈이 시뻘개서 찾아다니던 총알이 많이 나오곤 했었다. 총알을 찾으러 캄캄한 노깡 속에 들어갔다가 내가 기절했던 걸 어머니에게서 아마 들었을 거야. 애들이 그 속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며 전혀 접근을 꺼려하길래 어느 날 나 혼자 들어갔지. 안은 아주 비좁구 캄캄했는데 물이 질퍽하게 괴어 있더구나. 손으로 더듬으며 중간까지 가보니까 예상대로 기관포 탄환이 많이 있더랬어. 나는 아이들의 찬탄과 선망을 독차지할 일을 생각하고 온통 가슴이 떨렸어. 탄창 사슬에 끼인 게 한 줄이나 되더라. 나는 정신없이 파구 또 팠지. 한참 동안을 파는데 꺼림직한 기분이 들구 뭔가 손가락에 걸려 나오는 거야. 나뭇조각인 줄 알았어. 돌보다는 가볍구 나무보단 좀 듬직하단 말이야. 그 래 눈앞에 바짝 갖다 대구 들여다보니까 뺨다귀야. 둥그런 관절두 달려 있는 진짜 뺨다귀 말이지. **㉠ 이 크……. 나는 그제 날 잡구 늘어지는 기분이더라. 양쪽 입구를 보니까 꼭 관솔 빠진 구멍만큼 보이는 거야. 소릴 지르다가 뺨드러졌어.** 근처 실개천서 빨래하던 아줌마가 나를 끌어내줬단다. 어머니가 야단쳤어.

“너 그런 데 들어가면 귀신이 잡아먹는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

어린애들이 그런 일루 호되게 놀라게 되면 잠잘 때 악몽을 꾸어서 식은땀을 흘리며 경기를 일으키는 거야. **㉡ 내가 몸이 불편할 때 꿈을 꾸면 말이야, 언제나 그 노깡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어느 때는 그제 우리 영단 집의 시멘트 굴뚝 속이 되고, 피뢰침 달린 유리공장의 벽돌도가니 안이 되고, 시궁쥐가 많이 사는 공중목욕탕의 하수도 속이 되는 거야. 끝은 언제나 비슷하지. 양쪽 입구가 무너져, 해골바가지나 뺨다귀 손이 쑥 솟아올라서 내 머리털이나 발목을 말야 꼭 잡구 안 놓는 거야. 상두도가집 아이가 그 자리에 찾아가서 침을 세 번 뱉고 왼발로 세 번 구르면 된다기에 그대루 했는데두 여영 무서운 기분이 가시질 않았어.

내가 일단 자기의 공포에 굴복하고 승복하게 되자, 노깡 속에서의 기억은 상상을 악화시켜서 나를 형편 없는 겁쟁이루 만들고 말았다. **㉢ 그런데 어떤 아름다운 분이 나타나 나를 훨씬 성숙한 아이로 키워줬지.** 눈빛처럼 흰 여학생 칼라 뒤로 얇전히 빗어 묶은 머리를 길게 땀아 늘였고, 목소리가 노래하는 듯 고운 분이었어.

[**중간 줄거리**] 반장이 된 영래는 담임선생님이 자리를 비우면 자기 마음대로 학급 동료들을 부린다. ‘나’는 이런 부당한 상황에 거부감을 느끼나 영래를 두려워하고, 그런 자신에게 수치심을 느낀다. 이때 아름다운 소녀 같은 교생선생님이 오시게 되고, 교생선생님을 좋아하게 된 ‘나’는 그분의 말씀에 용기를 얻게 된다.

(나) 그러나 자치회 때의 일로 영래와 종하 은수 그 애들은 선생님을 점점 미워하게 되었고, 자기네와 별로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 소녀라고 놀려보려 했던 것이다. 그 애들은 병아리 선생님에 관한 음탕한 욕지거리를 지껄이거나 그이가 돌아서서 칠판에 글씨를 쓸 때 일어나 쑥떡을 먹이며 이상스런 몸짓을 하는 거였다. 나는 이 공공연한 모독에 의한 아이들의 수치심이 점차로 깊이 만연되어가고 있었던 상태를 전혀 느끼지도 못했었다. 어느 산수시간에 뒷자리 아이로부터 내게까지 작게 접은 종이조각이 건네져 왔으며, 펴보고 나서 나는 드디어 더 이상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다. 종이조각에는 “본 다음에 앞으로 돌려 줬. 임중하.”라고 써어 있고 밑에다 그이에 관한 욕설에 곁들여 변소에서조차 간혹 볼 수 있는 추잡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그림을 책갈피에 끼워 넣고 시간이 끝나기를 애가 달아 기다렸다. **㉣ 그동안 나**

는 별의별 무서운 공상에 시달렸다. 나는 언어터진다. 머리가 깨어져 다 죽게 된다. 그이가 나를 업고 간다. 몇 날 몇 달을 끝없이 간다. 시간이 끝나고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뒤에서 종하가 대견한 짓이라도 해냈다는 듯이

㉠ “애들아, 그 쪽지 어디까지 왔는지 이쪽으루 다시 돌려라.”

하며 떠들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겁내지 않으려 애쓰면서 말했다.

㉡ “내가 가졌다 왜. 정말 너 이따위 장난만 하거나?”

종하와 은수가 얼굴을 마주보더니 어이없다는 듯 낄낄 웃어댔다.

“그게 니 깔치니?” / “구경했으면 고맙다구 그럴 게지, 이 새끼가…….”

나도 지지 않고 말했다.

“너희들 사과 안 하면 그냥 안 둔다.”

그에게로 가서 종이조각을 내밀어 주었다.

“사과해, 너는 선생님을 욕보인 나쁜 놈이다.” / ㉢ “그래 병아리 선생님은 좋은 분이야.”

하고 석환이가 잇달아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자 이걸 네 손으로 찢어버려.” / ㉣ “이 새끼가…… 맞아 볼래?”

종하가 내 멱살을 잡아 앞뒤로 흔들다가 바닥에 쓰러뜨렸다. 은수와 영래가

“밟아버려, 밟아.”

의치는 소리도 들렸다. 아이들이 뒤로 한꺼번에 몰려들어 제각기 떠들었다.

“너희들이 잘못이다,” / “우리는 병아리 선생님을 좋아한다.”

“그분은 훌륭한 사람이야.”

기가 죽어지내던 장판석이라도 종하를 내게서 떼어 밀치면서 말했다.

“애들 때리면 재미적이다.”

은수와 종하는 아직도 영래의 행동을 기다리며 씨근거렸다. 아이들이 사방에서 한마디씩 했다.

“학급비를 거둬다 우리한테 알리지두 않고 맘대로 쓴 건 잘못이다.”

“요전에 동열이를 때린 것도 잘못이라구 생각한다.”

“한 번도 자치회에서 물어보지도 않구 혼자 맘대로 한 건 더욱 잘못이다.”

영래는 자기가 반 아이들에게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걸 알았는지 얼굴이 셋노랑게 질려있었다

“너희들 반장에게…… 이렇거나?” / “너는 반장 자격이 없어.” / “그만둬라.”

나는 종하에게 종이쪽지를 내밀었다. 종하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듯이 영래를 바라보자 그 애는 의외로 나약해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 “찢어, 입마.”

종하가 그걸 찢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내게 사과 안 할 테냐?”

아이들이 거칠어지고 있었다.

“그래 사과하란 말야, 짜식들야.” / “사과 안 하면 물매를 놓아서 쫓아내라.”

종하가 아주 비굴하게 들릴까말까한 음성으로 말했다.

“미안하다.”

우리는 모두가 그 애들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풀이 죽은 걸 보고서 어리둥절해질 지경이었다. ㉥ 나의 들끓던 수치감은 그때에 딱 몰려 있던 오줌이 방광을 비집고 쏟아져 나올 때처럼 외부로 터져 나갔고, 가벼운 몸서리를 흠칫 느꼈던 것이었다.

— 황석영, 「아우를 위하여」

\* 노강[土管] □ 시멘트나 흙을 구워서 만든 둥글고 큰 관. 우물이나 굴뚝 또는 배수로 따위에 쓴다.

## 2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상징적 소재를 주체의 형상화에 활용하고 있다.
- ② 서술자를 교체하여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
- ③ 섬세한 묘사를 통해 작중 상황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과거 경험의 회상을 통해 사건 당시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22. 위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2점)

- ① (나)의 사건은 (가)의 사건보다 나중에 일어난 것이다.
- ② (가)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듯이 서술하고 있다.
- ③ (나)의 ‘그 애들’은 ‘나’에게 적대적인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 ④ (가)는 문제 상황을, (나)는 문제 상황의 원인을 서술하고 있다.
- ⑤ (가)에서는 내적 갈등을, (나)에서는 외적 갈등을 서술하고 있다.

## 2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기세가 살아서 아이들을 부리는 고압적인 어조로 말한 것이다.
- ② ㉡은 선생님을 모욕하는 상대의 행동에 항의하고 있는 것이다.
- ③ ㉢은 ‘나’의 행위에 용기를 얻어 ‘나’의 주장에 동의함을 나타낸 것이다.
- ④ ㉣은 ‘나’를 굴복시키기 위해 협박하는 말이다.
- ⑤ ㉤은 상대방의 행위를 강요하기 위해 강한 어조로 말한 것이다.

## 24. &lt;보기&gt;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트라우마(trauma)’는 생명을 위협하는 신체적인 충격이나 정신적인 충격을 경험한 후 나타나는 정신적 장애를 가리킨다.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사고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감정이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다. 분노, 피해의식, 수치심을 잘 느끼고, 어린이의 경우에는 악몽을 꾸는 경향이 있다.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① ㉠의 경험 때문에 ‘나’에게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겠군.
- ② ㉡의 악몽은 트라우마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의 ‘아름다운 분’은 ‘나’의 트라우마 극복을 도와준 인물이겠군.
- ④ ㉣에서 무서운 공상에 시달린 것은 불안정한 감정 상태에 해당하겠군.
- ⑤ ㉣은 ‘나’가 트라우마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겠군.

[ 25~28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많은 사람들은 점자를 생각할 때, 일반 글자 모양을 그대로 양각화하여 촉각으로 감지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점자는 일반 글자의 모양을 본뜬 것이 아니라 한 칸에 들어 있는 가로 2개, 세로 3개로 배열된 6개의 점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별도의 기호 체계이다. 이 6개의 점은 위치에 따라 왼쪽 위에서 아래로 각각 1점, 2점, 3점,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각각 4점, 5점, 6점으로 정하여 부르고 있다.

(나)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점자가 세계 공통이라는 것이다. 현재 한 칸이 6개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6점식 점자 체계를 사용하는 것은 세계 공통이다. 하지만 일반 글자가 각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기초하고 있듯이, 점자도 그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문자를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들도 외국어를 공부하려면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언어의 점자를 배워야 한다.

(다) 한글과 로마자를 기본으로 하는 언어들은 음소 단위로 점자가 규정되고 이것들을 조합하여 음절이나 단어를 형성하게 된다. 일본어 점자는 음절 단위로 점자가 규정되어 있고, 중국어 점자는 수만 개에 달하는 한자에 1:1로 점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발음되는 소리를 분석하여 그것을 점자로 표기하고 있다. 즉 한자는 표의문자인데 비해, 중국어 점자는 표음문자인 셈이다.

(라) 그렇다면 한글 점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의 점칸은 6개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6개의 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점형의 수는 63가지이다. 한글 점자는 이 63가지의 점형을 한글의 기본 자모와 대응시키고, 그것들을 풀어쓰기 방식에 따라 순서대로 쓰도록 구성되어 있다. 자음용 점형은 첫소리 자음과 받침 자음 각각 14개씩 28개, 모음용 점형 21개, 숫자용 점형은 수를 표시하는 수표 1개를 포함하여 11개, 영문자용 점자는 대문자를 표시하는 점형 1개를 포함하여 27개가 있다. 아래의 표는 첫소리 자리에 쓰이는 기본 자음자 14개와 기본 모음자 10개를 제시한 것이다. 점의 명칭은 첫소리 ㄱ은 4점, ㄴ은 1-4점('일사점'이라고 읽는다.), ㄷ은 2-4점이다.

지음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ㅊ	ㅎ
첫소리 글자	⠠	⠠	⠠	⠠	⠠	⠠	⠠	(⠠)	⠠	⠠	⠠	⠠	⠠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	⠠	⠠	⠠	⠠	⠠	⠠	⠠	⠠

(마) 첫소리 ㅇ은 소릿값 없이 모양만 나타내는 것이어서 점자의 양을 줄이기 위해 표기하지 않고 생략한다. 그리고 첫소리 자음과 받침 자음을 별도의 점형으로 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 '가고(ㄱㅏ ㄱㅓ)'와 '각오(ㄱㅏ ㄱㅓ)'와 같은 경우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소리 자음, 모음, 받침 자음에 해당하는 각각의 점자 기호를 익히고 그것을 조합해야 점자로 쓰인 한글 낱말이나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



[ 29~3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국 프린스턴대의 진화생물학자인 존 타일러 보너 교수는 자신이 쓴 『크기의 과학』에서 “지구 역사상 유기체 크기의 상한선은 항상 열려 있고, 대부분의 생물은 몸집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라고 말한다. 거대동물의 큰 몸집은 과학자에게 흥미로운 주제가 된다. 아직까지 확실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진화의 방향성을 놓고 볼 때 몸집이 커지는 쪽이 당연하다는 것에는 대개의 관련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동물은 몸집이 커지면 유리한 점이 많다. 천적이 줄어들고, 다른 경쟁 상대에 비해 먹잇감을 얻기가 쉬워진다. 대형 초식동물이 늘면 포식자들도 효과적으로 사냥하기 위해 몸집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화하기 마련이다.

동물의 몸집이 커지는 쪽으로 진화하는 데는 환경적인 요인도 작용한다. 예를 들어 차가운 기후에서 포유류와 같은 온혈동물의 몸집은 더 커져야 한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큰 몸집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양서류나 파충류와 같은 냉혈동물은 따뜻한 기후에서 몸집이 더 커진다. 몸집이 커지면 외부 열을 차단하기에 그만큼 유리하다. 대기 중 산소 농도가 크기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도 있다. 과학자들은 석탄기에 살던 바퀴벌레가 고양이<sup>㉠</sup>만 했던 까닭이 대기 중 산소 농도가 지금보다 두 배 높았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다. 거대 곤충들은 다리에 산소를 공급하는 기관과 힘줄, 신경 다발이 발달했는데, 이들 기관이 산소를 몸 곳곳에 충분히 공급하면서 몸집이 커졌다는 얘기다. 서식지 면적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 어떤 학자들은 북극해 랭스 섬에 살던 매머드의 크기가 유라시아 대륙에 살던 매머드의 65%에 불과했던 것은 서식지의 면적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덩치가 큰 동물일수록 먹잇감을 충분하게 공급하는 넓은 면적의 서식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더라도 동물의 몸집이 무한정 커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생물의 크기는 세포 수가 결정한다. 세포의 자체 크기나 모양보다는 얼마나 많이 분열하느냐에 따라 몸집이 결정된다. 쥐와 코끼리가 세포 종류에서 차이가 없지만 몸집이 다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몸의 크기는 또 성장호르몬의 종류와 양에 따라 달라진다. 성장호르몬이 세포의 분열을 계속 명령해서 세포의 숫자가 점점 많아진다면 덩치도 따라서 커진다. 그러나 세포가 계속해서 분열<sup>㉡</sup>만 한다고 해서 무한정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생물 스스로의 조절 능력을 벗어난 세포 분열은 일어나지 않는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설 『걸리버 여행기』에 등장하는 거인국 사람을 보자. 키가 정상인의 2배만 돼도 쓰러져 머리를 부딪치면 그 충격은 30배나 된다. 또 땀박질은 물론 제자리에서 폴짝 뛰는 것도 어렵게 된다. 뛰었다 떨어지는 순간 몸무게 때문에 다리뼈가 박살날 수도 있다. 과학자들은 『걸리버 여행기』에 등장하는 사람의 다리는 물리적인 구조상 거의 코끼리 다리 수준으로 굵어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뼈뿐만 아니라 근육도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신체 각 부분의 크기 비율이 달라져야 한다. 코끼리보다 몸무게가 14배나 더 무거운 대왕고래는 부력 덕분에 수중에서는 살 수 있지만 만약 육지에 올라온다면 중력의 영향으로 생존하기 어렵게 된다. 동물은 몸집이 커지면 그에 맞게 신체 구조도 함께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 29.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전문가의 견해를 근거로 거대 동물이 출현하게 된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동물의 몸집이 커지는 요인을 밝힌 후 거대화의 한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 ③ 환경적 요인이 거대 동물의 출현에 미친 영향을 상반된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 ④ 진화의 과정에서 동물의 몸집이 커지는 이유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나열하고 있다.
- ⑤ 거대 동물의 진화 방향을 결정하는 원인을 분석한 후 중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30.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열대 지역의 개구리보다 온대 지역의 개구리가 몸집이 커야 생존에 유리하겠군.
- ② 대왕 고래가 육지로 올라온다면 중력의 영향으로 자신의 몸을 지탱하기 어렵겠군.
- ③ 코끼리 크기의 얼룩말이 늘어난다면 사자도 몸집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화해야겠군.
- ④ 같은 종의 초식동물이라면 면적이 좁은 섬보다 넓은 육지에 사는 것이 더 커지겠군.
- ⑤ 대기 중 산소 농도가 지금보다 더 낮아지면 바퀴벌레의 몸집이 더 작아질 수 있겠군.

31.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몸집이 큰 생명체는 작은 생명체보다 대사율이 떨어진다. 코끼리가 한 번 먹는 식사량은 쥐 한 마리가 한 끼 먹는 양보다 절대적으로 많다. 그러나 코끼리는 자기 몸무게만큼의 쥐들이 먹는 음식물보다 훨씬 적은 양을 먹어도 살 수 있다. 외신에 따르면 유전자 공학을 이용하여 육우의 몸집을 키우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머지않아 거대육우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① ‘거대육우’는 늘어난 몸무게 때문에 일반소와는 신체 구조가 달라지겠군.
- ② 몸집이 커진 ‘거대육우’를 기르는 농가는 사료비용의 증가로 적자를 보겠군.
- ③ 분열한 세포들의 수가 너무 많아지면 ‘거대육우’의 수명을 단축시키게 될 것 같아.
- ④ 세포 수가 증가하면 ‘거대육우’의 무게가 증가하니 초지에 방목해서 길러야 하겠군.
- ⑤ 몸집이 커진 ‘거대육우’는 세포가 비정상적인 상태가 될 테니 일반소와 고기맛이 다르겠군.

32. <보기>에서 ㉠, ㉡와 문맥적 의미가 유사한 것을 각각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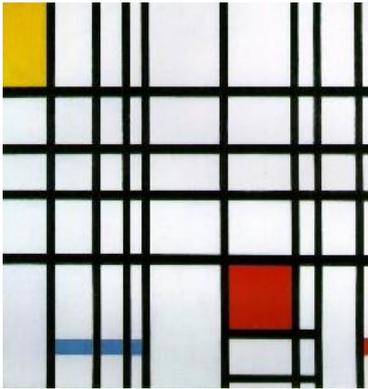
— <보 기> —

가. ㉠만 물건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나. ㉡풍의 영향으로 짐채만 한 과도가 몰려온다.  
 다. ㉢하루 종일 잠만 잤더니 한참동안 머리가 멍했다.  
 라. 열 장의 복권 중에서 하나만 당첨되어도 바랄 것이 없다.

- | <u>㉠</u> | <u>㉡</u> |
|----------|----------|
| ① 가      | 나        |
| ② 가      | 라        |
| ③ 나      | 다        |
| ④ 다      | 라        |
| ⑤ 라      | 가        |

[ 33~36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일 표현주의자들이 강렬한 표현을 추구하고 있을 때, 몬드리안은 네덜란드의 모더니즘을 이끌어 나가며 새로운 미술 양식을 만들어냈다. 젊은 시절 다양한 예술 형태와 양식을 시도했던 그는 1917년 『데 스틸』이라는 종합예술전문지를 발간한 데오 반 도스버그와 함께 활동했다. ‘데 스틸’은 ‘양식’이라는 의미로, 건축가, 디자이너, 화가, 이론가들이 모여 가장 완벽하고 모든 이치에 통달한, 거스름이 없는, 가장 보편적인, 그러면서도 새로운 추상 예술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은 야심 찬 운동이었다.



<‘적황청의 구성’(1921)>

① 미술이 수학적인 것이 되기를 바랐던 몬드리안은 자연의 형상을 소거하고 새로운 추상으로 나아갔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유명한 ‘적황청의 구성’이다. 3가지 기본 색과 기본 톤으로 색을 제한한 것도 본질적인 요소를 제외한 불필요한 것을 배제하려는 의도에서였다. 그는 오로지 빨강, 노랑, 파랑 같은 삼원색과 흰색, 검은색, 회색 같은 무채색만을 조심스럽게 계산하여 배치하면서, ‘불평등한 균형, 그러나 평온한 대칭’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 때문에 그의 격자형 그림들은 서로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각각은 정확히 계산된 완전히 다른 그림이다. 또한 그는 수직선과 수평선이 일종의 음(陰)과 양(陽)처럼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이라고 보았다. 몬드리안은 수직선이 생기를, 수평선이 평온함을 나타낸다고 생각했고, 이 두 선들을 서로 적절한 각도에서 교차시키면 ‘역동적인 평온함’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몬드리안은 여러 가지 요소를 혼합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보기에 가장 주된 색과 선만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지엽적이거나 특수해서 장르 간 교환이 불가능한 모든 이미지를 제거한, 어떠한 분야와 대상에도 적용 가능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자 했다.

몬드리안의 예술이 혁명적으로 새롭다는 것은 그가 최초로 비대칭적인 것 속에서 균형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그림으로 실현시켰다는 점이다. 이전의 미술가들은 균형이란 항상 중심축을 둘러싸고 대칭되게 배치될 때, 다시 말해 측면부가 중심부에 종속되어 중심부가 측면부보다 우세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대칭은 하나의 계층적 질서로서 복종과 지배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 여겨졌다. 하지만 몬드리안은 대칭 개념의 오랜 속박에서 벗어나, 대등 관계를 자유롭게 하는 데서 조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도 그것을 완성했다.

몬드리안은 평생 지독하리만큼 절제하는 생활을 했다. 자신이 완성한 완전한 수직 수평선과 삼원색의 조화 안에서만 작업을 해나갔다. 그가 사선을 비롯한 다양하고 화려한 색과 표면 질감과 같은 붓 터치에 눈을 돌리지 않았던 것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았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것에의 애정,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제거해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긍정적인 절제를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 3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점)

- ① 몬드리안은 본질적인 요소가 될 수 없는 색상을 배제하려 하였다.
- ② 몬드리안은 어떤 분야와 대상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미지를 구현하려 하였다.
- ③ 몬드리안은 대등 관계를 자유롭게 하는 데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 ④ 몬드리안은 구성 요소의 복종과 지배 관계를 통해 대칭적 질서를 구현하려 하였다.
- ⑤ 몬드리안은 수직선과 수평선의 적절한 교차를 통해서 역동성과 평온함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 37~40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서른 먹은 사내가 하나 잠을 못 잔다.  
 먼 기적 소리 처마를 스쳐가고  
 잠들은 아내와 어린것의 베갯말에  
 밤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향시 곤두박질해 온 생활의 노래  
 지나는 **돌팔매**에도 이제는 피곤하다.  
 먹고 산다는 것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는다.  
 담배를 피워 문다.  
 쓸쓸한 것이 오장(五臟)을 씻어 내린다.  
 노신이며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온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상해(上海) 호마로(胡馬路) 어느 뒷골목**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  
 ㉠ **등불이 나에게 속삭여린다.**  
 여기 하나의 상심한 사람이 있다.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 김광균, 「노신」

(나)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 머릿잎 몇 장 더 없어  
 뒤란으로 간다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 또 있다  
 개밥바라기 벌이  
 내 눈보다 먼저 땅을 들여다본다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쪽도 볼 수 없다  
 눈독길 너머 길 끝에는 보리밭이 있고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있다  
 바람은 자꾸 등짝을 때리고 절골의 그림자는  
 암처럼 깊다 나는  
**몇 번 머리를 흔들고** 산 속의 산  
 산 위의 산을 본다 산은 올려다보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저기 저  
 하늘의 자리는 싱싱하게 푸르다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친다 올라가라고  
 그래야 한다고 나를 부추기는 솔바람 속에서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 번쩍 제정신이 든다

정신이 들 때마다 우짚는 내 속의 목탁새들  
 나를 깨운다 이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 수가 없다 산 옆구리를 끼고  
 절벽을 오르니 천불산이  
 몸속에 들어와 앉는다  
 내 맘속 수수밭이 환해진다

- 천양희, 「마음의 수수밭」

(다)

몸이 서툴다 사는 일이 늘 그렇다  
 나무를 하다보면 자주 손등이나 다리 어디 찢기고 긁혀  
 ㉠ 돌아오는 길이 절뚝거린다 하루해가 저문다  
 비로소 어둠이 고요한 것들을 빛나게 한다  
 ㉡ 별빛이 차다 불을 지펴야겠군

이것들 한때 숲을 이루며 저마다 깊어졌던 것들  
 ㉢ 아궁이 속에서 어떤 것 더 활활 타오르며  
 거품을 무는 것이 있다  
 몇 번이나 도끼질이 빗나가던 웅이 박힌 나무다  
 그건 상처다 상처 받은 나무  
 이승의 여기저기에 등뼈를 꺾인  
 그리하여 일그러진 것들도 한 번은 무섭게 타오를 수 있는가

언제쯤이나 사는 일이 서툴지 않을까  
 내 삶의 무거운 웅이들도 불길을 타고  
 ㉣ 먼지처럼 날았으면 좋겠어  
 ㉤ 타오르는 것들은 허공에 올라 재를 남긴다  
 흰 재, 저 흰 재 부추밭에 뿌려야지  
 흰 부추꽃이 피어나면 목숨이 환해질까  
 흰 부추꽃 그 환한 환생

- 박남준, 「흰 부추꽃으로」

37.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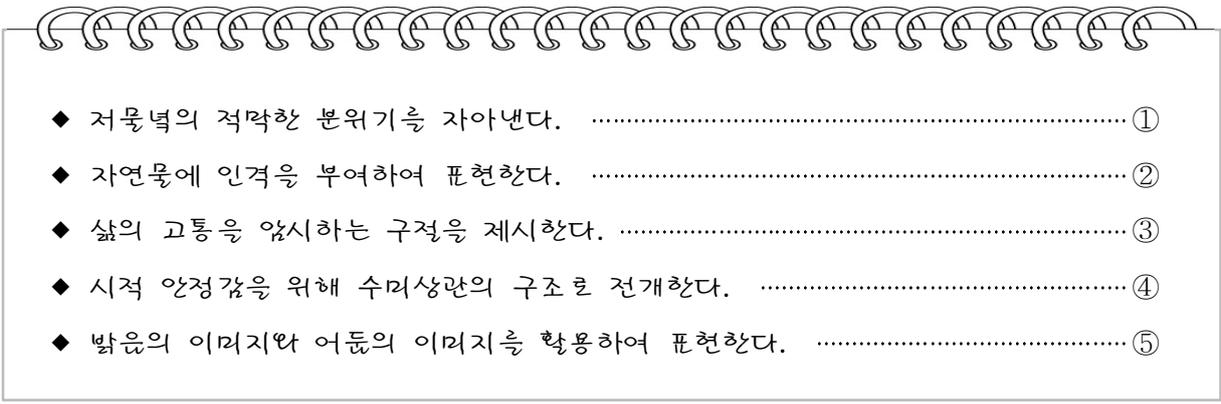
- ① 삶의 고뇌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식의 변화가 드러나 있다.
- ②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을 통해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있다.
- ③ 수동적인 삶에 대해 반성하며 열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다.
- ④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로 인한 고뇌로 절망감에 빠져 있다.
- ⑤ 일상적 삶의 고통을 초월적 존재를 통해 해소하려 하고 있다.

38. (가)~(다)의 시어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의 '상해 호마로 어느 뒷골목'과 (나)의 '수수밭'은 화자의 내면에 떠오른 공간이겠군.
- ② (가)의 '돌팔매'는 (다)의 '도끼질'과 달리 현실적 시련을 극복하려는 행동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가)의 '등불'과 달리 (다)의 '웅이 박힌 나무'는 화자의 삶이 투영된 대상이겠군.
- ④ (나)의 '환해진다'와 (다)의 '환한 환생'은 화자가 지향한 바가 성취된 상태로 볼 수 있겠군.
- ⑤ (나)의 '몇 번 머리를 흔들고'와 달리 (다)의 '언제쯤이나 사는 일이 서툴지 않을까'는 삶에 대한 화자의 회의감을 드러낸 것이겠군.

39. <보기>는 (나)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메모한 내용이라 가정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보 기> —



- ◆ 저물녘의 적막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 ①
- ◆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표현한다. .... ②
- ◆ 삶의 고통을 암시하는 구절을 제시한다. .... ③
- ◆ 시적 안정감을 위해 수미상관의 구조로 전개한다. .... ④
- ◆ 밝음의 이미지와 어둠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표현한다. .... ⑤

40. ㉠과 유사한 발상의 표현을 (다)에서 찾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언어 영역 정답표

문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답	②	③	⑤	③	③	①	②	②	⑤	④	④	④	⑤	③	①	④	⑤	①	⑤	⑤
문항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정답	②	④	⑤	⑤	②	⑤	④	④	②	①	①	③	④	③	③	①	①	②	④	①



2. ‘정보 보호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에 관한 기사를 쓰기 위해 모은 자료의 일부이다. 이를 토대로 쓸 기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정보 침해의 유형별 경험 (2007년)			
구분	해킹	웹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비율(%)	15.4	55.9	56.8

㉡ 정보 통신 시설과 서비스 보호,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여러 법에 산재해 있어 정보 침해 사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

정보 보호 시장의 성장 추이 [단위 : 억 원(국내), 백만 달러(국외)]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세계	32,331	35,686	41,668
국내	6,807	7,052	7,432
세계 시장 점유 비율(%)	2.11	1.98	1.78

㉣ 2007년 현재 국내 정보 보호 인력은 4,874명으로 디도스 공격과 같은 정보 침해에 대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우리나라의 정보 보호 관련 예산은 2007년에는 277억 원, 2008년에는 273억 원으로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2008년을 기준으로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 보호 예산이 미국의 경우 9.2%인 반면 우리나라는 4.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 ① ㉠과 ㉡을 활용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 ② ㉠과 ㉢을 활용하여 정보 보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제시한다.
- ③ ㉢과 ㉣을 활용하여 정보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제안한다.
- ④ ㉢과 ㉤을 활용하여 정보 보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원 예산의 확보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 ⑤ ㉡과 ㉤을 활용하여 정보 보호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차원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3. <보기>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막이 확대되고 있다. 사막화의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의 자연 파괴이다. ㉠ 인간은 식량 생산을 위해 삼림 개간을 확대한 결과를 들 수 있다. 지금도 아마존이나 아프리카에서는 농경지와 초지를 만들기 위해 삼림에 불을 지르고 있다. 삼림이 훼손되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토양의 생산력은 저하된다. 농경지와 초지는 삼림과 같은 수준의 물 저장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나무나 풀이 자라기가 어려운 황무지로 변하기 쉽다. 이러한 상황에 가뭄이라도 닥치면 황무지는 ㉡ 금세 사막으로 변한다. ㉢ 사막의 오아시스는 그나마 물이 남아 있는 곳이다.

사막으로 변한 곳은 경작과 목축에 이용할 수 없다. 인간은 다시 삼림에 불을 질러 농경지와 초지를 만든다. 그렇게 만든 농경지나 초지는 다시 황폐화되고 사막으로 변하는 악순환이 거듭된다.

아마존의 삼림은 지구의 허파로 불린다. 이런 아마존의 숲이 사라지면 지구의 탄소 순환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 ㉣ 그리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지구온난화가 심화되어 사막화는 한층 가속화된다.

삼림을 개간하여 농경지를 늘리고 초지에 많은 가축을 풀면 당장의 이익은 증가할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처럼 사막화가 급속하게 진행된다면 인간의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다. 더 늦기 전에 사막화를 막아야 한다, ㉤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 ① ㉠: 문장의 호응이 어색하므로, ‘확대한 결과를 들 수 있다’를 ‘확대해 왔다’로 고친다.
- ② ㉡: 맞춤법에 어긋나므로 ‘금세’를 ‘금새’로 고친다.
- ③ ㉢: 논지의 흐름에 비추어 보아 불필요한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 ④ ㉣: 접속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리고’를 ‘그러면’으로 바꾼다.
- ⑤ ㉤: 속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으로 바꾼다.

4.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例)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보 기>

[조건1]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조사  
 [조건2]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조사

	[조건1]	[조건2]
①	과 이 책은 내가 갖고 있는 것과 같다.	경숙과 민희는 여고 동창이다.
②	와 개는 늑대와 비슷하게 생겼다.	너와 내가 아니면 우리 조국을 누가 지키라.
③	랑 저는 어머니랑 많이 닮았대요.	나는 영희랑 철수랑 영수를 우리 집에 초대했다.
④	하고 내 모자는 그것하고 다르다.	배하고 사과하고 감을 가져오너라.
⑤	이며 그림이며 조각이며 미술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옷이며 신이며 죄다 흩어져 있었다.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큐멘터리’란 1930년대 현실 참여 다큐멘터리의 대가 존 그리어슨이 로버트 플래허티의 「북극의 나누크」를 묘사하기 위해 붙인 명칭이다. ‘기록물’, ‘여행록’이라는 어원이 말해주듯 초창기 다큐멘터리는 다른 문화를 기록하는 도구로서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충실한 관찰 기록물’로 관객에게 받아들여졌다. 이는 다큐멘터리의 제작 방식이 극영화의 방식에 비해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이 크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주류를 이루는 다큐멘터리는 설명적 양식의 다큐멘터리이다. 다큐멘터리와 같은 영상물은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통해 정보를 전달한다. 그런데 이 양식에서는 이미지보다는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voice over narration)이 정보를 전달하는 중심 역할을 한다. 내레이션이 절대적인 기능을 하는 이 양식에서는 이미지가 독립된 의미를 갖지 못하고, 시각적 증거물이자 보충물에 불과하다.

화면 밖에 존재하는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은 화면에 펼쳐지는 이미지들을 관객에게 설명하고, 이미지들의 의미를 해석하며, 그것들에 대해 논평을 한다. 이때 내레이터는 사건의 모든 정황을 이해하고 꿰뚫어 보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사건에 개입하지 않고 충실히 관찰하는 보편적이고 중립적인 정보 전달자의 위치에 있다고 관객들에게 받아들여진다. 관객들의 이런 태도는 다큐멘터리의 ‘객관성’과 ‘사실성’을 보증하는 강력한 ㉠ 기제가 된다. 증거 화면까지 효과적으로 주어지는 상황에서 신뢰감을 주는 성우의 목소리가 전달하는 ‘객관적인 설명’을 들으며 관객이 다큐멘터리의 객관성과 사실성을 의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이 양식의 ㉡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을 ‘신의 음성’이라 일컫기도 한다.

하지만 촬영 대상을 선택하고 렌즈 종류를 선택하는 등의 행위 하나하나에 이미 제작자의 주관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제작자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객관성, 사실성에 대한 믿음은 과장된 것이다.

이러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 ㉢ 자기반영적 양식의 다큐멘터리이다. 이 양식은 기존의 주류 다큐멘터리가 리얼리티 효과를 위해 사용하지만 관객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기법들을 폭로하면서 다큐멘터리를 둘러싼 객관성, 사실성의 신화를 벗겨내고자 한다. 이 양식의 제작자들은, 루미에르의 기행 다큐멘터리에서 로버트 플래허티의 「북극의 나누크」까지 초창기의 다큐멘터리들의 제작 동기가 이국적인 풍물과 문화에 대한 유럽 중심주의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리고 기존의 주류 다큐멘터리가 철저하게 서구 백인 남성의 시선을 중심으로 타문화, 유색 인종, 여성 등을 호기심과 관찰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각성을 다큐멘터리 제작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리하여 카메라를 통해 관찰하는 자와 관찰의 대상이 되는 자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 관계를 드러내어 이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구성할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각성과 목표를 바탕으로 자기반영적 양식의 다큐멘터리는 투명성의 외피를 쓴 기존의 주류 다큐멘터리 제작자의 절대적 권위를 대안적인 화면 구성 방법으로 해체하고 관객의 능동적 사고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시도한다.

이 양식에서는 촬영되는 대상과 함께 그 대상을 촬영하는 촬영자가 화면에 나타난다. 때로는 대상을 촬영하는 카메라의 그림자가 화면에 나타나기도 하며 에펠탑 크기의 카메라가 스스로 시내를 걸어 다니는 비사실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얼굴 쇼트의 안정적 구도 대신 카메라를 위아래로 움직여 대상의 손발을 보여주기도 한다. 화면 속 인물의 움직임이 정지되기도 하며, 관객에게 안전한 거리감과 편안함을 주기 위해 30~40도 각도로 인터뷰 대상자를 촬영하던 기존의 관습을 거부하고 카메라를 직시하는 대상자를 정면으로 클로즈업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촬영 기법과 이것에 의해 구성되는 화면은, 화면에 담기는 시청각적 정보가 카메라에 의해 자동적으로 기록되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재구성되는 제작물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 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다큐멘터리 명칭의 유래를 소개하고 있다.
- ② 설명적 양식의 다큐멘터리에 대한 통념을 지적하고 있다.
- ③ 자기반영적 양식의 다큐멘터리가 등장한 배경을 밝히고 있다.
- ④ 설명적 양식의 다큐멘터리가 발달해 온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자기반영적 양식의 다큐멘터리에 쓰이는 기법과 그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 6. 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관습적인 경우와는 다른 각도에서 대상을 촬영하여 새로운 심리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 ② 화면에 펼쳐지는 이미지는 내레이터가 전달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보조적 역할을 한다.
- ③ 화면에 나타나는 비사실적인 이미지를 통해, 보이는 이미지가 창작물임을 알 수 있게 한다.
- ④ 이미지에 나타나는 카메라의 그림자를 통해 이미지가 인위적인 도구에 의해 제작된 것임을 드러낸다.
- ⑤ 촬영되는 대상과 함께 촬영자가 등장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제3자의 입장에서 이미지를 바라보게 한다.

## 7. ㉑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한 것은? (2점)

- ① 마음의 작용과 의식의 상태
- ②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의 작용이나 원리
- ③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내세우는 것
- ④ 어떤 일을 해 나가거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취하는 수단이나 방식
- ⑤ 어떤 일을 이루게 하거나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상태나 요소

## 8. ㉒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내레이터가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 ② 내레이션이 다큐멘터리의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이다.
- ③ 내레이터가 다큐멘터리를 믿도록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 ④ 내레이터가 관객에게 부조리한 현실을 깨닫게 해 주기 때문이다.
- ⑤ 내레이터가 관객에게 다큐멘터리의 허구성을 알게 해주기 때문이다.

「9~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밝은 뜰 봄은 좋아 꽃들은 활짝 피고,  
하늘을 떠도는 버들개지 흩날린다.  
거울 앞 엷은 화장, 맥없이 걷는 걸음,  
정채(精彩)\*도 줄어들고, 곱던 얼굴 수척하다.  
패물 찬 허리 맵시, 소매 걷은 옥 같은 팔,  
길목 지켜 바라보는 아리따운 그 눈매여!  
아쟁 소리 한 곡조에 슬픈 가락 하염없고,  
두 줄기 구슬 눈물 연지불에 흥건하다.  
가신 임 방탕하여 돌아올 길 이리 늦고,  
피꼬리 노래 소리 애간장 다 끊인다.  
맑은 꿈 홀로 나[飛]는, 기나 긴 한밤중에,  
집마루의 밝은 달만 한가로이 짝해 줄 뿐,  
감도는 깊은 시름 갈래갈래 얽혔는데,  
정을 봉해 짜낸 비단 붉은 무늬 찬란컨만,  
㉠ 인편도 끊어졌고 기러기도 아니 오니,  
길은 멀고 한은 길어 하늘만 아득하다.

- 이규보, 「미인원(美人怨)」

(나)

천리일별(千里一別)에 해 벌써 바뀌도록 일자가신(一字家信)\*을 꿈에나 들었을까 운산(雲山)이 막혔는 듯 하해(河海)가 가렸는 듯 의창전(依窓前)\* 한매소식(寒梅消息)\* 물어볼 길 전혀 없네 일천 리가 머다도 하려니와 ㉡ 약수 삼천 리에 청조(靑鳥)가 전신(傳信)하고 은하수 구만 리에 오작(烏鵲)이 다리 놓고 북해상 기러기는 상림원(上林苑)에 날아나니 내 가신(家信) 어이 하여 이다지 막혔는고 꿈에나 혼이 가서 고향을 보련마는 원수의 잠이 올 제 꿈인들 아니 꾸랴 흐르나니 눈물이요 지어나니 한숨이라 눈물인들 한 이 있고 한숨인들 끝이 있지 내 눈물 모였으면 추자섬이 생겼으며 이 한숨이 쌓였으면 한라산을 덮었으니 해안에 낙조하고 어촌에 연기날 제 사공은 어데 가고 빈 배만 매였는고 산상구적(山上口笛) 소리는 소 모는 아해로다 황독(黃犢)\*은 하산하여 외양을 찾아오고 자는 새는 투림(投林)하여 옛집으로 날아드니 금수도 집이 있어 돌아갈 줄 알았는가

- 안조환, 「만언사(萬言詞)」

(다)

위로하는 친구 하나 없고, 부형들만 모여서 슬피 우셨네. 슬프게 우는 어린 자식과 불쌍한 젊은 아내를 두고 떠나네. 북악산이 보일락 말락 점점 멀어짐이여. 임금님 계신 궁궐은 멀고도 깊숙하구나. 속히 돌아 오지 못할 줄을 앎이여. 서울을 돌아보고 눈물지었네. ㉢ 지는 해는 어둑어둑 서산에 걸렸는데, 이상한 새 들은 숲속에서 울며 날아다니는구나. 관서 지방을 바라보니 몇 리나 될까? 길을 물으니 이 천리라네. 대동강을 넘고 청천강을 건너고 나니 기한(岐漢)의 푸른 언덕에 이르렀구나.

동뢰(東瀨)를 건넌 뒤 남쪽을 바라보니, 외로운 성이 흙덩어리 하나 놓인 것 같구나. 서해의 장연(瘴煙)을 누르고 있고, 북쪽 오랑캐의 가죽 움막과 통하고 있네. 진웅(秦雍)같은 역센 기운은 많고, 추로(鄒魯)의 시서(詩書)는 적구나.

외진 곳에 땅을 빌려 띠집을 엮음이어. 무릎 하나 들어갈 만하면 그만이네. 아, 화(禍)에 걸린 것이 너무도 크고 보니, 누구인들 나의 어려운 처지를 불쌍히 여기려 할 것인가? 오막살이집이 너무도 조용하니 참새들만 지저귀고, 섬들은 오래되어 이끼만 푸르네. 마른 재에 붙은 사위고, 외로운 침상에 달빛만 가득하네. 양식 향아리에 거미줄 치고, 솔바닥에 이끼 끼었네. 홀로 살아 짝이 없음이어. 눈물만 눈에 가득하네.

[A] 먼 포구에 봄은 깊고, 허물어진 성에는 해가 저문다. 물가에 풀은 우복우복 돌아나고 강에 내리던 비 잠깐 깰 때, 포구에 구름은 침침하고, 물가의 마름만 푸르네. 님 생각 간절하나 볼 수 없어, 그윽한 난초를 맺어 걸고 우두커니 서 있네. 파초 앞에 바람 울고, 차가운 창에 빗방울 흩뿌릴 때, 기러기 하늘 높이 날고, 기름 다한 등잔에 등불만 가물거리네.

내 태어난 날이 좋지 못함을 탄식하며, 부모님이 길러 주신 은혜를 생각하네. 형제가 헤어져 있음을 슬퍼하고, 부모님이 늙어 가심을 통곡하네. 늘 뒤척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함이어, 마음은 답답하고 열은 올라 타는 듯하구나.

- 이원, 「술지부(述志賦)」

- \* 정채(精彩): 정묘하고 아름다운 빛깔.
- \* 일자가신(一字家信): 집에서 온 짧은 소식.
- \* 의창전(依窓前): 창문 앞에.
- \* 한매소식(寒梅消息): 겨울에 피는 매화 소식.
- \* 황독(黃犢): 송아지.

9.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
- ②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대상을 대하는 인식의 변화가 드러나 있다.
- ④ 대상과의 단절에서 오는 정서가 드러나 있다.
- ⑤ 자연에 의지하여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 하고 있다.

10. <보기>의 관점에 근거하여 (가)가 [A]를 형상화한 작품이라 가정할 때, 이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대부들의 시가에서 임의 사랑을 잃은 ‘원녀(怨女)’의 노래는 임금의 사랑을 잃은 신하를 의미하는 ‘고신(孤臣)’의 노래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사대부들은 남녀 간의 애정에 빗대어 임금의 사랑을 잃은 후의 상황과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태도를 노래하기도 한다.

- ① [A]의 ‘나의 어려운 처지’는 (가)의 여인의 ‘백없이 걷는 걸음’, ‘수척한 얼굴’ 등의 묘사를 통해 나타낸 것 같아.
- ② [A]의 ‘홀로 살아 짝이 없음’은 (가)의 ‘맑은 달만 한가로이 짝해’ 주는 상황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
- ③ [A]의 ‘봄’ 풍경 묘사에서 볼 수 있었던 ‘나’와 ‘봄’ 사이의 심리적 거리는 (가)의 ‘꽃’, ‘버들개지’ 등을 통해 극복되고 있는 것 같아.
- ④ [A]의 ‘그윽한 난초’는 (가)에서 ‘정을 봉해 짜낸 비단’의 이미지로 변형되었다고 할 수 있어.
- ⑤ [A]의 ‘가물거리는 등불’에 내포되어 있는 ‘나’의 내면은 (가)의 ‘아쟁 소리’, ‘피꼬리 노래 소리’를 들으며 여인이 느끼는 심정과 유사한 것으로 보여.

11. (나)의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구절을 창작해 보았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3점)

<보 기>

- 4·4조의 기본 율격을 지킬 것.
- 의미상으로 짝을 이루는 방식으로 전개할 것.

- ① 고향산천이 어제 본듯 하는구나
  - ② 부귀공명 다 던지고 성은을 갚으리라
  - ③ 보이는 것이 다 좋고 듣는 것이 다 기쁘다
  - ④ 이 사람은 무슨 일로 돌아갈 줄 모르느고
  - ⑤ 저 새를 벗 삼아도 이내 시름 잊을 길이 없도다
1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의 '길은 멀고'는 화자가 느끼는 심정적 거리로 해석할 수 있다.
  - ② ㉡의 '약수', '은하수'는 '청조', '오작'에 의해 극복되는 공간이다.
  - ③ ㉢의 '이상한 새'는 화자의 스산한 감정이 이입된 소재로 볼 수 있다.
  - ④ ㉠와 ㉡의 '기러기'는 ㉢의 '전신'을 수행하는 존재로 볼 수 있다.
  - ⑤ ㉠의 '하늘', ㉢의 '지는 해'는 화자의 심리가 전환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13. <보기>를 활용하여 (다)에 대해 설명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보 기>

(다)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시적 공간을 중심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textcircled{\text{㉠}}$   
 서울

➔

$\textcircled{\text{㉡}}$   
 관서의 외진 곳

- ① ㉠에서 ㉡로의 이동 경로는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다.
- ② ㉠에 대한 서술 내용으로 보아 ㉡에서 화자는 제한된 공간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에 비해 ㉡에 대한 서술에는 친족에 대한 화자의 심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 ④ ㉠에 대한 서술에서는 주로 서울을 떠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 ⑤ ㉡에 대한 서술에서는 화자가 현실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부인 왕씨와 두 첩 장씨와 송씨를 둔 명나라 승상 진양의 아들 숙문은 예부상서 석홍의 딸 난영과 혼인한다. 한편 유시량은 천자의 첩인 누이를 동원하여 숙문을 강제로 자신의 딸 매영과 혼인하게 한다.

일일은 숙문이 부모님께 문안인사 들어오다 도로 나가니 송씨가 바삐 따라 나와 문 왈, “낭군이 아까 들어오다가 도로 나가심은 어찌뇨?”

숙문이 왈, “불상견(不相見)할 사람이 있으며 도로 나간 것이다.”

송씨가 왈,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더이까?”

숙문이 왈, “전일 보지 못하던 사람이 있더이다.”

송씨가 노왈, “그 사람은 곧 낭군의 부인이거늘 어찌 피하리오?”

숙문이 왈, “생의 부인은 다만 석씨니, 또 누가 있으리오?”

송씨 대로(大怒) 왈,

“낭군의 병세가 중하여 신부더러 진가 집안에 먼저 찾아와 성례(成禮)하라고 하시더니 이제 와 다른 말씀은 어찌이뇨?”

숙문이 미소 지으며 왈,

“성인이 법을 정하사 삼강오륜이 있나니, 혼례는 납빙(納聘)\*한 후 신랑을 보내어 신부를 맞나니 생은 가지 않았고, 또 유씨의 근본이 유 시량의 적녀가 아니라 하니 차마 부인으로는 대접할 수 없나이다.”

송씨가 근본이 탄로남을 알고 침음(沈吟) 왈,

“그래도 유씨를 첩으로는 삼을 수 없나이다. 유 시량이 처를 내친 후 첩이던 제 친 언니를 부인으로 삼고 그 딸을 적녀를 삼았으니 어찌 부인이 못 되리오?”

숙문이 왈,

“아무리 금달공주라도 부인으로는 못하리니, 서모(庶母)가 유씨를 첩 삼는 것이 미안하거든 명문거족(名門巨族)에 구혼하여 백년을 화락하게 하소서.”

<중략>

매영이 대로(大怒)하여 상을 박차고 왈,

“소축생(小畜生)의 무례함이 어찌 이 지경에 미치리오. 내 당당히 축생(畜生)\*과 요녀를 죽여 고기를 찢고 말리라.”

하고 설난각에 이르니, 석 소저가 축을 대하여 고서를 보다가 매영이 움을 보고 목연히 단좌하더니, 매영 바로 난간에 올라 눈썹을 거스리고 눈을 독히 뜨고 꾸짖어 왈,

“나는 유 낭량의 친조카요, 유 시량의 천금 소교(小嬌)\*라. 존귀함이 금지옥엽을 부러워 아니커늘, 천명을 받자와 진생의 소실(小室)이 되니 어찌 욕되리오. 네 아버 불충을 품고 모반의 마음이 있음을 내 알되, 차마 입 밖에 내지 않았더니, 석씨 천녀가 교언영색으로 진가 적자를 농락하여 나를 없애고같이 하니 내 어찌 잠잠하리오. 네 일찍 돌아가면 함구하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천자에게 고하여 너희 부녀의 머리를 베리라.”

석 소저가 뜻밖에 참욕을 보매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나 안색을 바로 하고 목연히 단좌하매, 매영이 더욱 노하여 집기(什器)를 부수고 대답치 아니함을 따져 물으니, 석 소저가 대로하여 눈썹을 거스리고 욕성을 가다듬어 왈,

“네 스스로 존귀함을 금달공주에 비하나, 내 일찍 능멸함이 없고 또 묻나니 뉘라서 나의 가친이 모반의 마음을 품었다 하느뇨? 허무맹랑한 말로 나를 모함하니 어찌 신명이 두렵지 않으리오? 나의 거취는 너의 알바 아니니 생심(生心)도 방자히 굴지 말라.”

말을 마치매 사기 썩썩하니 매영이 더욱 노왓,  
 “네 아비 왕망(王莽)\*과 동탁(董卓)\*보다 더함을 만민이 다 아는 바이니, 뉘 모르리오?”  
 하고, 서안(書案)을 박차니,  
 송씨가 이르러 매영의 손을 이끌고 나오며 왓,  
 “이런 욕을 보시니 어찌 애달프지 않으리오? 나 같을진대 즉각 죽어 무안함을 씻으리로다.”  
 말을 마치자 냉소하고 나가니, 석 소저가 그 숙질(叔姪)의 거동을 십분 분해하나 안색을 변하지 않고,  
 다만 참욕이 아비에게 미침을 탄식하더라.

매영이 처소에 돌아와 숙문의 박정함을 이르고 애통해 하니, 송씨 왓,

“내 여차여차 이르면, 진냥은 대현군자라 반드시 석씨에 대한 은혜(恩愛)를 읊기리니, 이리 한 후에 설계(設計)하리라.” 하니, 매영이 감사해 하더라.

일일은 송씨가 병을 핑계로 불출(不出)하니 숙문이 설희당에 와 송씨를 보니, 송씨가 울며 왓,  
 “첩이 십오 세에 장씨와 함께 존문에 의탁하매 부인이 은덕으로 거느리시니, 첩 등이 그 은혜를 폐부에 새겼더니, 근일로 승상께서 길거리의 이슬처럼 보시매 바람이 끊친지라. 장씨는 일너를 두었으나 첩은 바람이 오직 낭군이라. 석 소저가 나의 무자(無子)함을 업신여김이 심하매, 설움을 품고 세월을 보내더니, 의외에 유씨 수절하여 규방에 늙으려 하매 낭군께 천거함이러니, 석 소저가 존당과 낭군의 안전(眼前)에서는 효순하나 첩을 사사로이 보면 이를 갈며 왓, ‘네 목숨이 내 손에 달렸다.’하며 욕을 보이니, 비명횡사할까 두렵고 낭군이 또 유씨를 박대함이 지극히 심하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나이다. 첩의 설움은 하늘 밖에 뉘 알리오?”

[A] 숙문이 듣기를 마치고 사죄 왓,

“자(子)의 우둔함으로 석씨 여차하니 쫓고자 하나 존당이 계시매 능히 결단치 못하나이다.”

하고 위로하나 심중에,

‘석씨의 근본 성덕으로 보건대 어찌 이리 행하리오? 그러나 서모의 말이 이 같으니 혹자 일시 분을 참지 못하여 힐난함이 있는지 동정을 살펴보리라.’ 하고 설난각에 이르니, 석 소저가 서안을 의지하여 신세를 탄식하여 옥안에 눈물이 어롱져 있더니, 숙문을 보고 근심스런 얼굴을 거두고 맞이하니, 숙문이 부인을 살펴보니 안색에 근심이 가득하거늘 이 반드시 이유 있음을 알고 물어 왓,

“그대가 집안에 들어온 후 특별히 험한 일이 없더니, 송 서모의 말이 여차여차하니 그 죄 어디까지 이뇨? 진실로 그러하면 내 비록 어리석으나 가만 보고 있지 않으리라.”

① 소저가 숙문의 심한 질책을 들으니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라. 놀라고 또 그 사리 분명치 못함에 다만 들을 따름이라. 숙문이 헤아리되, ‘송서모의 말이 옳도다.’하며 소매를 떨치고 나가니 소저가 한탄하더라.

— 작자 미상, 「수저옥란빙」

\*납빙(納聘): 혼인할 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냄.

\*축생(畜生): 짐승

\*소교(小嬌): 아리따운 미녀.

\*왕망(王莽)과 동탁(董卓): 전한과 후한의 간신.

1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 ② 인물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 ③ 선한 인물과 악한 인물의 대립이 나타나 있다.
- ④ 대화를 중심으로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 직접 개입한 부분이 있다.

15.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2점)

- ① 숙문은 매영과의 만남을 꺼리고 있다.
- ② 숙문은 매영의 근본이 미천함을 알고 있다.
- ③ 석 소저는 매영과의 충돌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 ④ 숙문은 송씨의 말을 들은 후 석 소저를 질책한다.
- ⑤ 매영은 예법을 갖춘 혼례를 정식으로 올리지 못했다.

16. [A]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송씨의 계략	—	숙문의 인품을 이용함.	..... ①
		숙문의 동정심을 유발함.	..... ②
		숙문의 이중적 태도를 원망함.	..... ③
		제거하고자 하는 대상을 음해함.	..... ④
↓			
		숙문이 석 소저에 대해 의심을 품음.	..... ⑤

17. ㉠의 상황에서 ‘석 소저’의 심정에 가장 가까운 것은? (3점)

- ① 임이 생각해주시매 철썹 같이 믿었더니  
    날 생각하던 마음이 어디로 사라진고.  
    처음부터 미워하던 것이면 이토록 서러우랴.
- ② 마음이 어린 후(後)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만중운산(萬重雲山)에 어니님 오리마는,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 권가 하노라.
- ③ 금생려수(金生麗水)라 한들 물마다 날 것이며  
    옥출곤강(玉出崑岡)이라 한들 뵈마다 날 리 없네.  
    아무리 사랑이 증타한들 님님마다 좃으랴.
- ④ 내 일이 망령된 줄 내라하여 모를손가.  
    세사(世事) 묵어지고 인사(人事)도 묵었으니  
    천사만사(千事萬事) 씻어내고 옛 인연 이읍소서.
- ⑤ 간 밤에 울던 여울 슬피 울어 지내여다.  
    이제야 생각하니 님이 울어 보내도다.  
    저 물을 거슬러 흐르고져 나도 울어 네리랴.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물질은 자외선의 에너지를 흡수하였다가 다시 내놓는 과정에서 가시광선을 방출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형광현상’이라 한다. 형광등은 이 현상을 이용하여 빛을 낸다.

형광등은 양쪽 끝이 봉해진 좁은 유리관과 유리관에 발린 형광물질, 두 개의 전극으로 되어 있다. 관에는 미량의 아르곤, 네온, 크립톤 가스와 함께 한두 방울의 액체 수은이 들어 있다. 액체 수은 중의 일부는 증발해 수은 가스가 되는데, 유리관 속 가스의 약 1,000분의 1 밖에 안 되는 이 수은 가스가 빛을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형광등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양쪽의 전극 사이에 전자가 이동해야 하는데, 형광등의 경우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하나는 전극을 가열하여 전자가 전극에서 튀어나오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쪽 전극에 높은 전압을 걸어 전자가 방출되게 하는 것이다. 일단 전류가 흐르면 형광등의 전극에서는 전자가 지속적으로 방출된다. 이 전자들은 유리관 속의 수은 원자들과 충돌하여 그 에너지를 수은 가스의 원자에 전달한다.

고전물리학의 원자모형에서 원자는 핵과 몇 개의 궤도를 따라 돌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자는 보통 에너지가 낮은, 핵에 가까운 궤도에 위치한다. 이러한 전자 배열을 ‘바닥상태’라고 한다. 상온에서 유리관 속 수은 원자의 전자들은 이러한 바닥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은 원자가 전자와 충돌하면 수은 원자의 전자는 비어있는 바깥쪽의 다른 궤도로 옮겨 가게 된다. 이처럼 바닥상태가 아닌 전자의 상태를 ‘들뜬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들뜬상태는 오래 가지 않는다. 수은 원자의 전자는 에너지를 방출하며 원래의 궤도로 내려오는데 이를 ‘전이과정’이라 하며, 이 과정에서 들뜬 상태와 바닥상태의 궤도가 가진 에너지의 차이만큼 빛을 방출하게 된다.

수은 원자의 전자궤도는 서로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방출하는 빛도 대부분 높은 진동수인 자외선이다. 우리 눈은 가시광선 영역만을 볼 수 있으므로, 이 자외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접 쬐일 경우 해롭기까지 하다. 따라서 형광등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과정이 필요하다.

수은 원자가 방출하는 자외선은 유리관에 도포된 형광물질을 자극함으로써 형광물질 원자의 전자를 들뜨게 하며, 일부 에너지는 열로 변환된다. 따라서 들뜬 상태의 형광물질 원자의 전자가 바닥상태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방출하는 빛은 원래 흡수했던 자외선의 에너지보다 적게 된다. 또한 형광물질의 원자는 수은 원자와는 달리 전자궤도 간 에너지 준위 차가 크지 않으므로 방출하는 빛은 자외선보다 낮은 진동수의 가시광선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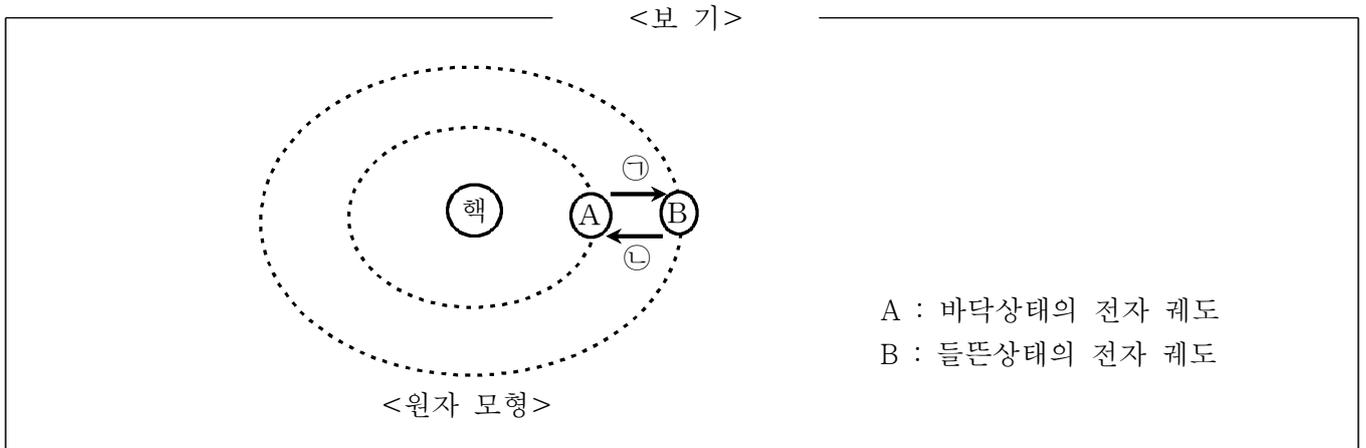
이처럼 들뜬 원자가 전이과정에서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는 그 원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원소가 방출하는 빛의 고유한 진동수는 자외선·가시광선과 같은 빛의 종류, 가시광선 내에서의 빛깔을 결정한다. 형광등의 백색광은 형광물질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 색이며, 형광물질을 달리하면 다양한 빛깔의 형광등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흰 옷을 더욱 희게 만드는 세제에도 이용된다. 자외선을 흡수하여 파란색을 방출하는 형광물질을 세제에 사용하면, 세탁 후 옷감에 남아있는 형광물질이 빛의 삼원색인 빨강, 파랑, 초록 중 파란색의 가시광선을 방출함으로써 흰 색을 더욱 하얗게 보이도록 할 수 있다. 물질에 따라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가 달라지는 현상은 과학적 탐구에도 이용된다. 어떤 물질을 분석할 때 자외선을 쬐어 나오는 빛을 분석하면 물질의 구성원소를 알아낼 수 있으며 별빛을 분석하여 원소가 방출하는 고유한 빛을 통해 별을 이루고 있는 원소를 알 수 있다.

18.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2점)

- ① 형광등을 구성하는 요소
- ② 형광등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 ③ 형광등에서 전자를 방출시키는 방법
- ④ 형광등을 다양한 색으로 만들 수 있는 이유
- ⑤ 형광등의 수은 원자가 자외선을 방출하는 이유

19. <보기>를 활용하여 위 글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형광등의 수은 원자에서 ㉠과 ㉡의 과정이 진행되면 빛이 방출된다.
- ② 형광등에서 수은 원자는 형광물질 원자보다 A와 B의 에너지 차가 크다.
- ③ 수은 원자와 형광등의 형광물질 원자에서 전자는 A에 위치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 ④ 형광등의 형광물질이 흡수한 에너지의 양은 ㉡의 과정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과 같다.
- ⑤ 수은 원자와 형광물질의 원자가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는 A와 B의 에너지 차에 의해 결정된다.

20. 위 글의 ‘형광등’과 <보기>의 ‘고압 수은등’을 비교하여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거리의 가로등으로 쓰이는 고압 수은등은 수은 원자가 방출하는 가시광선을 이용한다. 수은은 자외선은 흡수하고 가시광선은 흡수하지 않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수은은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비율이 매우 낮지만, 수은의 압력을 충분히 높게 하면 높은 밀도로 인해 한 원자가 내놓는 자외선을 옆의 원자가 다시 흡수하는 현상이 반복되어 나타나므로 가시광선의 방출량을 계속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방출되는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것이 고압 수은등이다.

- ① ‘형광등’과 ‘고압 수은등’의 수은 원자 밀도는 다르다.
- ② ‘형광등’과 ‘고압 수은등’은 모두 수은 원자가 방출하는 빛을 직접 이용한다.
- ③ ‘고압 수은등’에서는 ‘형광등’보다 수은 원자가 자외선을 흡수하는 빈도가 높다.
- ④ ‘고압 수은등’에서는 ‘형광등’보다 수은 원자에서 발생하는 가시광선의 양이 많다.
- ⑤ ‘형광등’과 ‘고압 수은등’에서 수은 원자는 가시광선을 흡수하지 않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질푸른 산아. 숲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뚱뚱 산을 넘어, 흰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너뭇 골\* 골짜기서 울어 오는 뻐꾸기…….

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 소리에 내사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찌면 만나도질\* 불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 부는 세상에도, 별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린 불이 고운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티어 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 와 줄 불이 고운 나의 사람.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뻐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 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 박두진, 「청산도(靑山道)」

\* 너뭇 골 : 저 너머의 골짜기.

\* 만나도질 : 만나질지도 모르는.

(나)

얼음을 깬다.

강에는 얼은 물

깼수록 청청한

소리가 난다.

강이여 우리가 이를 수 없어

물은 남몰래 소리를 이루었나.

이 강을 이루는 물소리가

겨울에 죽은 땅의 목청을 트고

이 나라의 어린 아희들아

물은 또한 이 땅의 풀잎에도 운다.

얼음을 깬다.

얼음을 깨서 물을 마신다.

우리가 스스로 흐르는 강을 이루고

물이 제 소리를 이를 때까지

아희들아.

— 정희성, 「얼은 강을 건너며」

(다)

포옹(抱擁)할 ㉠ 꽃 한 송이 없는 세월을  
 얼룩진 역사(歷史)의 찢긴 자락에 매달려  
 그대로 소스라쳐 통곡하기에는 머언 먼 가슴 아래 깊은 계단(階段)에  
 ㉡ 도사린 나의 젊음이 스스로워 멈춰 선다.

좌표(座標) 없는 대낮이 밤보다 어둔 속을  
 어디서 음악(音樂) 같은 가녀린 소리  
 철그른 가을비가 스쳐 가며 흐느끼는 소리  
 조국(祖國)의 아득한 햇무리를 타고 오는 소리  
 또는 목마르게 그리운 너의 목소리  
 그런 메아리 속에 나를 묻어도 보지만,

연이어 달려오는 인자한 얼굴들이 있어  
 ㉢ 너그럽고 부드러운 웃음을 머금고  
 두 손 벌려 ㉣ 차가운 가슴을 어루만지다간  
**핏발 선 노한 눈망울로** 하여  
 다시 나를 질책(叱責)함은  
 아아, 어인 지혜(智慧)의 빛나심이뇨!

당신의 거룩한 목소리가  
 내 귓전에 있는 한,  
 귓전에서 파도처럼 멀리 부서지는 한,  
 이웃할 별도 가고, 소리 없이 가고,  
 어둠이 황하(黃河)처럼 범람할지라도 좋다.

얼룩진 역사에 만가(輓歌)를 보내고 참한 노래와 새벽을 잉태(孕胎)한 함성(喊聲)으로  
 다시 억만(億萬) 별을 불러 ㉤ 사탄의 가슴에 창(槍)을 겨누리라.  
**새벽 종(鐘)이 울 때까지** 창을 겨누리라.

- 신석정, 「전아사(餞迓詞)」

21. (가) ~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 ② 부정적 현실에 순응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 ③ 자신을 희생하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 ④ 현실보다 미래를 지향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⑤ 절대적 존재에 의지하여 고통을 극복하고 있다.

22. (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유사한 시구의 반복으로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② 대립적인 시어를 통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다양한 음성 상징어로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④ 명령형 종결 어미를 통해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⑤ 감각적 이미지를 다양하게 활용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3. (나)와 (다)를 비교하여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의 ‘청청한 소리’와 (다)의 ‘핏발 선 노한 눈망울’은 화자를 일깨우는 계기를 표현한 시구로 볼 수 있어.
- ② (나)의 ‘겨울에 죽은 땅’과 (다)의 ‘대낮이 밤보다 어둔 속’은 화자가 처한 현실을 표현한 시구로 볼 수 있어.
- ③ (나)의 ‘얼음을 깬다’와 (다)의 ‘창을 겨누리라’는 화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표현한 시구로 볼 수 있어.
- ④ (나)의 ‘운다’와 (다)의 ‘새벽을 잉태(孕胎)한 함성(喊聲)으로’는 화자의 내면적 고통을 표현한 시구로 볼 수 있어.
- ⑤ (나)의 ‘물이 제 소리를 이룰 때까지’와 (다)의 ‘새벽 종이 울 때까지’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 시구로 볼 수 있어.

24. <보기>를 고려할 때, ㉠~㉤ 중 이질적인 것은? (3점)

<보 기>

(다)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목의 뜻부터 알아야 한다. 제목 ‘전아사(餓逆詞)’는 ‘작별하고 새로 맞으며 부르는 노래’로 풀이 할 수 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시적 화자는 보내고 싶은 것과 맞이하고 싶은 것이 있다.

- ① ㉠: 꽃 한 송이 없는 세월
- ② ㉡: 도사린 나의 젊음
- ③ ㉢: 너그럽고 부드러운 웃음
- ④ ㉣: 차가운 가슴
- ⑤ ㉤: 사탄의 가슴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 신화는 기록으로 전하는 문헌 신화와 구비로 전승되는 구비 신화가 있다. 문헌 신화는 시조의 출생과 국가의 창건 과정을 기술한 건국 신화가 대부분이고, 구비 신화는 서사 무가로 구연되는 무속 신화가 대부분이다.

건국 신화는 하늘을 상징하는 남신과 땅이나 물을 상징하는 여신이 결합하고 시조가 왕으로 즉위하는 과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주몽 신화」와 같은 북방의 건국 신화와 「박혁거세 신화」와 같은 남방의 건국 신화는 내용상 차이를 보인다.

북방 신화에서는 천신계의 남성과 지신 혹은 수신계의 여성이 결합하여 혼례를 올린 후, 시조가 출생하여 왕으로 즉위한다. 예를 들어 「주몽 신화」에서 주몽은 하늘에서 내려온 해모수와 수신인 하백의 딸 유화부인 사이에서 알로 탄생한다. 그런데 주몽은 해모수의 왕국을 계승하여 즉위한 것이 아니라 금와왕이 다스리던 동부여에서 성장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즉, 주몽은 해모수족과 하백족이 통합된 새로운 집단에서 성장하여 권력투쟁을 통해 새로운 국가의 통치자가 된 것이다. 이처럼 시조의 출현 이전에 부모의 혼례 과정이 기술되어 있는 북방 신화는 시조의 부모가 다스리던 국가가 먼저 존재했음을 말해 준다.

반면에 남방 신화는 시조의 부모가 나타나지 않고 하늘과 땅의 결합을 상징하는 분위기만 서술된 상태에서 시조는 알로 탄생한다. 그리고 시조가 왕으로 즉위한 후 시조의 혼례 과정이 제시된다. 예를 들어 「박혁거세 신화」를 보면 신라는 건국되기 이전에 여섯 씨족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씨족마다 각각의 촌장이 다스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박혁거세가 탄생하자 여섯 촌장이 모여 공통의 통치자로 박혁거세를 ㉠ 추대함으로써 비로소 씨족 단위의 공동체와는 다른 국가가 형성되었다. 이처럼 시조가 왕으로 즉위한 이후 알영과 혼례를 올리는 것은 그 지역에 처음으로 국가가 세워지고 첫 번째 통치자가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박혁거세는 육촌에서 태어난 인물이 아니었고, 그의 부인 알영도 다른 곳에서 도래한 존재였다. 박혁거세와 알영이 육촌민들에게 성인으로 존경 받고 통치권을 행사했다는 것으로 보아 그들이 육촌민보다 문화 수준이 높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 신화에서 건국신화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속신화이다. 무속신화는 고대 무속 제전에서 형성된 이래 부단히 생성과 소멸을 거듭했다. 이러한 무속 신화 중에서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창세 신화」와 「제석본풀이」는 남신과 여신의 결합이 제시된 후 그 자녀가 신성의 자리에 오른다는 점에서 신화적 성격이 북방의 건국신화와 다르지 않다. 한편, 무속신화 중 성주신화에서는 남성 인물인 ‘성주’가 위기에 빠진 부인을 구해내고 출산과 축제를 통해 성주신의 자리에 오른다. 이는 대부분의 신화가 보여주는 부자(父子) 중심의 서사 구조가 아닌 부부 중심의 서사 구조를 보여준다.

이렇게 특이한 유형을 보여주는 신화 중에 제주도의 「삼성 신화」가 있다. 「삼성 신화」에서는 남성이 땅속에서 솟아나고 여성이 배를 타고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다. 남성이 땅에서 솟아났다는 점은 부계 혈통의 근원을 대지에 두었다는 것으로 본토의 건국 신화와 대조된다. 그리고 여성이 배를 타고 왔다는 것은 여성이 도래한 세력임을 말해 준다. 특히, 남성은 활을 사용하고 여성이 오곡의 씨를 가지고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남성으로 대표되는 토착 수렵 문화에 여성으로 대표되는 농경 문화가 전래되었음을 신화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 25.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2점)

- ① 건국 신화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② 한국 신화는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 ③ 북방 신화와 남방 신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④ 무속 신화가 건국 신화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 ⑤ 건국 신화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26.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와 같이 의견을 나누었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영은 : 문학 시간에 발표할 과제로 건국 신화를 창작하면 어떨까?  
 두호 : 좋았어. 남방의 건국 신화 형태로 쓰자.  
 영은 : 그렇다면 시조의 부모를 굳이 등장시킬 필요는 없겠네. .... ①  
 두호 : 그래도 시조의 부계 혈통은 그 근원을 하늘에 두어야겠지. .... ②  
 영은 : 그렇지. 남성을 외지로부터 이주해 온 존재로 설정해야지. .... ③  
 두호 : 시조가 혼례 과정을 거친 후 왕으로 즉위하는 순서로 서술하자. .... ④  
 영은 : 처음으로 국가가 세워지고 첫 통치자가 등장한 면도 넣어야 할 거야. .... ⑤

27. 위 글을 읽고 독자가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건국 신화에는 부자 중심의 사고가 반영되어 있군.
- ② 무속 신화는 고대 무속 제전에 그 기원을 두고 있군.
- ③ 대부분의 신화는 남신과 여신의 결합을 다루고 있군.
- ④ 「삼성 신화」에는 여성이 도래한 존재로 설정되어 있군.
- ⑤ 건국 신화에서는 결국 토착 세력이 통치권을 장악하는군.

28. ㉠과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옹립(擁立)            ② 천거(薦舉)            ③ 추천(推薦)
- ④ 선정(選定)            ⑤ 선출(選出)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산’의 첫소리를 ‘싼’의 첫소리와 다른 소리라 인식하지만, ‘췌’의 첫소리와는 같은 소리라 인식한다. 이러한 우리들의 인식은 철자법에 반영되어 ‘산’과 ‘췌’의 첫소리를 같은 글자로 표기하고 ‘싼’의 첫소리는 다른 글자로 표기한다. 우리는 왜 ‘산’의 첫소리는 ‘췌’의 첫소리와 같은 소리이고 ‘싼’의 첫소리와는 다른 소리라고 판단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싼’의 첫소리는 ‘산’과 ‘췌’의 첫소리와는 달리 소리를 내는 방법, 즉 조음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세게 발음되는 된소리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그 소리가 나는 위치, 즉 조음 위치에 관한 한 ‘산’의 첫소리는 ‘싼’의 첫소리에 가깝다. ‘산’의 첫소리와 ‘싼’의 첫소리는 혀끝을 윗잇몸에 접근시켜 조음하는 반면 ‘췌’의 첫소리는 혀의 앞부분을 셴입천장에 접근시켜 조음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산’과 ‘싼’의 첫소리를 다른 소리로 인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다. 우리 두뇌는 다양한 음성을 ‘음소(音素)’라고 부르는 심리적이고 추상적인 소리 단위로 구분하여 받아들인다. 이 음소는 음성의 의미를 변별하여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로서 음소가 바뀌면 사람들은 서로 다른 소리로 인식하게 된다.

이처럼 서로 다른 두 소리가 어떤 특정한 언어에서 언중들에게 다른 소리로 인식되고 또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가지면 그 두 음은 대립관계에 있다고 한다. 또 어떤 한 가지 소리의 차이만으로 의미가 달라지는 소리의 짝을 ‘최소대립쌍’이라 한다. 예를 들어 ‘산’과 ‘싼’은 중간소리, 끝소리는 모두 같은데 단지 첫소

리에 /ㄱ/과 /ㄴ/ 중에서 어느 것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여기에서 /ㄱ/과 /ㄴ/은 서로 대립관계에 있으며, /ㄱ/과 /ㄴ/은 최소대립쌍이다. 두 소리가 서로 다른 음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려면 최소대립쌍이 있는지를 찾아보면 된다.

한 음소 내에서도 여러 다른 소리들이 있다. ‘물’의 /ㄹ/과 ‘바람’의 /ㄹ/은 서로 다른 소리로 실현되는데도 언중들은 이 두 소리를 같은 음소라고 인식한다. ‘물’의 /ㄹ/은 혀가 윗잇몸 쪽에 닿아 혀의 양 옆으로 공기가 흘러가면서 만들어지는 소리 [l]이고, ‘바람’의 /ㄹ/은 혀끝이 윗잇몸에 가볍게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 [r]이다. 이렇게 하나의 음소도 발음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소리로 실현되는데, 이 소리들을 그 음소의 ‘변이음’이라고 한다.

한 음소에 속하는 변이음이 나타나는 환경은 서로 ㉠ 뒤바뀌지 않는 성질을 가진다. ‘물’의 경우처럼 음절 끝, 즉 자음 앞이나 휴지(休止) 앞에서 /ㄹ/이 [r]로 실현되거나, ‘바람’의 경우처럼 모음 사이에서 /ㄹ/이 [l]로 실현되는 일은 없다. 이럴 때 [l]과 [r]은 상보적 분포를 가진다고 말한다.

한 언어에서 음소로 분류되지 않는 변이음이 다른 언어에서는 서로 다른 음소로 인식되기도 한다. ‘바람’[param]의 [r]과 ‘물’[mul]의 [l]은 /ㄹ/이라는 한 음소의 변이음이지만 영어에서는 다른 음소이고, 반대로 위에서 보았듯이 ‘산’의 /ㄱ/과 ‘싼’의 /ㄴ/은 영어에서는 같은 음소지만 국어에서는 다른 음소로 인식된다.

29. 위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3점)

- ① 한 언어에서의 변이음이 다른 언어에서는 음소가 될 수 있다.
- ② 한 언어에서 소리는 달라도 동일한 음소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 ③ 한 언어에서 동일한 소리가 서로 다른 음소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 ④ 한 언어에서 조음 위치가 같아도 조음 방법에 따라 소리가 달라질 수 있다.
- ⑤ 한 언어에서 어떤 소리의 최소대립쌍이 존재하면 그 소리는 음소로 인정된다.

30. 위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2점)

- ① 음소의 개념
- ② 최소대립쌍의 기능
- ③ 대립 관계의 의미
- ④ 변이음과 상보적 분포의 관계
- ⑤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른 음소의 분류

31. 위 글을 바탕으로 하여 <보기>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보 기>  
‘발’, ‘밥’, ‘보리’, ‘불’, ‘뿔’, ‘풀’

- ① ‘발’의 /ㄹ/과 ‘보리’의 /ㄹ/은 변이음이다.
- ② ‘불’과 ‘발’의 /ㅍ/와 /ㅂ/는 대립 관계에 있다.
- ③ ‘불’과 ‘밥’의 중성 /ㄹ/과 /ㅍ/은 최소대립쌍이다.
- ④ ‘불’, ‘뿔’, ‘풀’에서 /ㅍ/, /ㅃ/, /ㅍ/은 의미를 분화하고 있다.
- ⑤ ‘발’과 ‘밥’의 첫소리 /ㅍ/은 조음 위치가 같다.

32. ㉠의 ‘뒤-’와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3점)

- ① 뒤엎다    ② 뒤엎다    ③ 뒤섞다    ④ 뒤덮다    ⑤ 뒤꿘다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장은 크게 경쟁시장과 비경쟁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경쟁시장은 자유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시장이 가격을 결정한다. 비경쟁시장은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은데, 이는 다시 과점시장과 독점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독점시장에서는 하나의 공급자가, 과점시장에서는 몇몇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독과점은 시장 질서의 왜곡, 소비자들의 피해, 기업 경쟁력 약화 등 많은 병폐를 낳기 때문에 정부는 독과점금지법으로 이러한 행위를 견제한다. 그러나 정부가 각종 인허가 정책이나 보조금 정책 등을 써서 독과점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수도, 전기 등과 같은 공공재를 생산하는 공적 기업,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조선, 자동차 등의 대형 기업 부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독과점시장에서는 기업이 가격을 정하게 되므로, 그 가격은 일반적으로 적정가격보다 높아지게 된다. 이때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통해 ‘최고가격’을 정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한다.

이러한 최고가격제는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가 수요자인 상품에 적용된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격 정책을 시행한다. 또한 최고가격제는 공평성을 추구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핸드폰에 최고가격제를 도입하여 가격을 10만원 아래로 묶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핸드폰을 살 수 있어 공평성이 증가된다. 최고가격제는 전시(戰時)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필수품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활용된다. 비상시에 가격이 급등한 쌀을 정부에서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낮게 정하면 소비자들은 쌀을 좀 더 원활하게 공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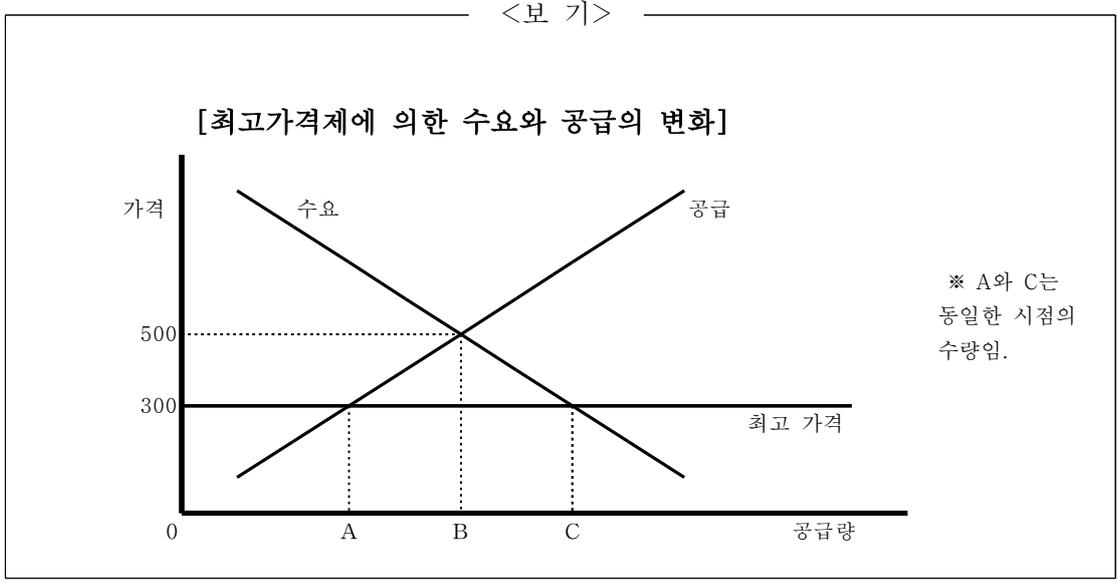
최고가격제를 실시할 경우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재화의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 ‘균형 가격’보다 낮아진다. 독과점을 형성하여 수요자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공급자는 이전보다 수익이 감소하여 공급을 줄이는 반면, 낮아진 가격으로 인해 수요는 늘어난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가 공급을 늘리는 것뿐이다. 정부의 보충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실시한 최고가격제가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재화를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암시장이 생겨 정부가 제한하기 전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재화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시장에 맡겼더니 가격이 너무 싸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쌀농사가 풍년이라 공급이 대폭 늘어났다고 하자. 쌀의 가격이 싸다고 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으므로 균형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이에 농부들은 생산 비용도 건질 수 없다. 이럴 경우 정부는 농부들의 최저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가격 이하로는 쌀을 거래할 수 없도록 ‘최저가격제’를 실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농부들의 수익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균형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최저가격으로 인하여 수요보다 많은 쌀이 생산된다. 이때 정부는 그 잉여량을 구입했다가, 흉년 때 방출하여 쌀 가격의 상승을 막을 수도 있다.

### 3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점)

- ① 최고가격제는 공평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 ② 최고 가격과 최저 가격을 교정하는 기준은 균형 가격이다.
- ③ 과점시장에서는 공급자들끼리 가격을 담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 ④ 정부는 독과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⑤ 가격 정책에 의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부정적 효과를 동반할 가능성도 있다.

34.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는 최고가격제에 의해 가격이 제한되었을 때의 공급량이다.
- ② B는 최고가격제를 실시하기 전에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 가격이다.
- ③ C는 최고가격제로 인해 늘어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량이다.
- ④ 최고가격제가 실시되면 B에서 A를 뺀 분량만큼 공급량이 감소된다.
- ⑤ 최고가격제가 실시되면 정부는 C에서 B를 뺀 분량만큼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

35. 글쓴이가 <보기>의 자료를 접했다고 할 때, 위 글에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2001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태로 시민들의 일상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으며, 도시의 기능이 마비되었다. 이 사태는 공공재였던 전기 공급 사업을 민영화하면서 생겨난 것이다. 당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민간기업들끼리 경쟁하면 전기 요금이 더 싸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민영화 이후 발전회사들은 전기 요금 인상을 요구했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담합하여 발전 시설을 인위적으로 폐쇄하고 전기 공급을 중단한 것이다.

- ① 정부의 가격 정책은 최소한의 경우로 제한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 ② 비경쟁시장이 경쟁시장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함을 입증한다.
- ③ 정부의 시장 개입이 경제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경고한다.
- ④ 공공재가 자유 경쟁에 맡겨졌을 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⑤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는 독과점이 부분적으로 허용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36. ㉠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은? (3점)

- ① 노인 복지 요양 시설의 설립 기준을 강화한다.
- ② 장애인에게 차량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 ③ 대중교통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준다.
- ④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를 위한 대출 이자율을 고정시킨다.
- ⑤ 서민용 아파트 구입 자금의 일부를 싼 이자로 대출해준다.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미 오래 전에 폐기 처분했어야 할, 여러 시간대를 거치오면서 누적된, 그에게 달라붙어 있던 약간의 기우——언젠가는 한 번쯤 쓰일지도 모른다는 헛된 기우——와 결단력의 부족으로 시골에서 하숙집으로 하숙집에서 누나네 집으로 누나네 집에서 이 방까지 따라오게 된, 물론 책의 내용보다는 책의 크기와 두께에 의해 분류되어 정연한 더미를 만들면서 얇고 좁은 널빤지를 받쳐 주는, 언제라도 눈에 띄기를 기다리며 제목을 앞쪽으로 내보이며 쌓여 있는 수직적 투자가치 전문 서적과는 구별돼, 수평으로 무더기로 뒤죽박죽 쌓여 있는 책 더미들을 그는 위에서 아래로 따라간다. 교과서와 잡지들, 교양서적과 소설류, 한 번도 읽히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끼어들게 된 자서전류와 사전류, 충동으로 구입되어 한두 장 넘겨진 후 폐기처분되기 전에 그의 방에 임시주차하고 있는, 심령과학, 경제정보, 육법전서…… 같은, 그의 방에 들어왔기 때문에 받침대 구실을 하는 책들의 제목을 그는 읽지 않는 채로 보고 있다. 방심한 그의 시선은 아래층까지 내려오고 두드러지는 두께와 질은 표지의 『최신 지리부도』에 잠시 머문다.

그는 여행을 떠날 수도 있다. 기차나 버스로. 비행기를 탈 수도 있다. 산간 지방이나 제주도, 홍콩과 마카오, 대만이나 하와이 정도까지는. 혹은 배를 타고 일본의 규슈나 오사카까지는. 거리에 따라, 이박 삼일 정도, 혹은 삼박 사일, 최대한 사박 오일 정도까지는 문제없이. 당일이라면 어디든 비행기로 편도여행 정도는 할 수 있다. 칸이나 뉴욕, 블라디보스톡이나 통북투까지. 그는 언제든지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야자수 밀을 반바지를 입고 거닐며 호텔의 수영장에서 마사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호화 호텔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카지노에서 일확천금을 벌 수도 있다. 향료 냄새가 풍기는 이국 식당에서 바다가재 요리를 맛볼 수도 있다. 안내서를 펴들고 박물관을 거닐고 접는 의자를 들고 공원의 녹음을 바라보며 신문을 볼 수도 있다. 혹은 호텔 방 안에서 모르는 나라 말의 텔레비전 앞에 누워 지구 어디에나 풍성한 멜로드라마를 보면서 야자수 열매를 깨물어 먹을 수도 있다.

[A] 딱딱한 장정과 크기 때문에 맨 밑층으로 가게 된, 책장 전체의 무게를 받고 있는 그 책을 꺼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그는 정화된 집중력과, 놀라운 체계를 동원해 그 방법을 생각하면서 담배를 켜. 한층 한층 비우면서 맨 밑층의 책 더미에 다다를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널빤지가 약간 왼쪽으로 기울 것을 감안하면서, 좀 힘이 드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무릎으로 널빤지를 받친 후, 그 책이 끼어 있는 맨 밑의 더미에서 그 한 권만을 빼낼 수도 있다. 혹은, 그보다 나은 방법도 있다. 아래층의 널빤지를 메우는 책의 높이보다 약간——일이 센티미터 정도——더 높은 책 더미를 바로 옆에 준비해 밀어 넣은 다음 그 책이 끼어 있는 더미를 빼내 절망적으로 밑에 깔린 그 책을 손에 넣을 수도 있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그 모든 해결책은 그를 설득하지 못한다. 그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으며, 지리부도를 꺼내는 일을 포기한다. 설령 애를 써서 그 책을 꺼냈다고 하자. 이미 출판된 지 십년이 넘은 『최신 지리부도』가 지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사이 너무도 많은 국경이 변경되었고 지금도 변경중이다. 게다가 꼭 필요한 장소는 늘 지도에 나와 있지 않다. <중략>

그는 매일 외출한다. 나가기 전에 서랍에서 지폐 한 장씩 집어 들고, 그는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가지 않는다. 기껏해야 서울역이나 남산, 야구장 근처나 대공원. 주머니에 손을 넣고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사람들, 엉덩이를 굽으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 손을 잡고 의자에서 침묵하는 연인들, 것처럼 가만히 앉아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돌아온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붙이지 않고, 성냥불 부탁이나 시간을 묻는 일 이외에 그도 그들도 말할 것이 없다. 그것은 야만의 시대를 터득한 그들의 철학에 어긋나는 일이다.

어느 날 서랍을 열었을 때, 그를 바라보던 지폐의 얼굴 대신 빈 서랍 밑바닥의 누런 합판이 잘못 숨긴 거짓말처럼 드러난다. 그렇지만 그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는 굶어죽지는 않을 것이다. 굶어죽다니. 그는 외출을 멈춘다. 그렇지만 꼭 더 이상 지폐가 없어서는 아니다. 사실을 말하면 그는 이제는 어떤 이유건 꼭 외출을 할 필요도 없으며 외출이라면 할 만큼 했다. 없어지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 일이라면 할 만큼 했다.

무엇에 대해서나 모른다고, 싫다고, 아마라고 대답하면서 이방인을 꿈꾸는 사람들, 완벽한 척하는 세상의 실추를, 부재를 통해 증명해 보이려고 잠자는 사람들, 천재가 되어 버린 박제들, 그는 수많은 그들조차 되지 못했다. 그들의 길고 긴 계보는 아득히 끝이 없지만 그는 그 비밀결사에 입적을 할 수도 없다. 그들은 무서워했고 걱정했으며 경종을 울렸고 좌절하거나 이겨 냈다. 그들은 너무 완벽했으며 비극적이었고 진지했으며 감동적이었다.

그가 부재한 사이 세상이 개과천선을 한 것도 아니고, 그의 발밑에서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지도 않았으며, 그는 그 사이 더 현명하게 사는 법을 터득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다. 게다가 그는 시간을 멈추면서 주인이 되어 보려는 것도 아니었고 현명해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으며 증명할 것도 없었다. 그는 더 비싸지지도 않았으며 더 싸지지도 않았다. 어쨌건 그는 살았다. 그 동안 잠시 잘, 살고 있음을 잇을 정도로 잘, 살았을 뿐이다.

어느 날 그는 군악대의 북소리와 함께 일어난다, 잠시 죽은 척하고 있다가 사 분 후면 다시 호들갑 떠는 북소리와 함께. 그는 전화를 한다. 아무 용건도 없이. 그는 편지를 쓴다. 그는 찻잔을 씻고 책상을 정리하며 침대보를 깔고, 저 더운 대륙의 늙은 대령을 흉내내며 병 밑에 늘어붙은 커피를 긁어낸다.

책상에 앉기 전에 그는 자동적으로 오디오의 버튼을 누른다. '푸른 기차'. 그가 다시 들은 음악의 제목은 이렇다. 모든 음악을 듣는 이유가 늘 그렇듯이, 이유 없이. 어떤 음악이 있다. 처음 듣고 조금 좋아한다. 혹은 처음 들었을 때는 그다지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는 음악도 있다. 그리고 잊어버린다. 어쩌다 한 소절이 머릿속에서 돌아다닌다. 그리고 이 곡은, 서서히, 하루를 지내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된다. 다른 곡, 다른 핑계에 매달리기 전, 잠시 동안. ㉠ '푸른 기차'는 그를 사랑한다. 그러니 어쩌잔 말인가.

- 최윤, 「푸른 기차」

### 37. 등장인물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현실에 동화되지 않고 거리를 두고 있는 인물이다.
- ② 운명에 저항하며 자유로운 삶을 지향하는 인물이다.
- ③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며 현실을 부정하는 인물이다.
- ④ 미래보다는 현실에 만족하는 삶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 ⑤ 세속적 가치에 연연하며 내면적으로 갈등하는 인물이다.

### 38.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그'를 누군가 관찰하여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여기서 '그'는 '나'의 변형된 모습이라 할 수 있어.
- ② '그'는 거리를 배회하며 사람들을 보는데, 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못하는 '그'의 내면 의식이 드러나 있어.
- ③ '그'는 '야만의 시대를 터득한 그들의 철학'을 긍정하며 '외출'을 통해 삶의 진정성을 찾은 인물로 보아야 할 거야.
- ④ 『최신 지리부도』를 보며 '그'가 여행을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생각이 연상 작용을 일으켜 다음 생각을 이끌어 내고 있군.
- ⑤ '현명하게 사는 법을 터득하지도 않았고', '현명해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으며' 등과 같은 반복되는 부정문을 통해 삶에 대한 '그'의 태도를 읽을 수 있어.

## 39. [A]에 나타난 ‘그’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2점)

- ① 여우가 포도밭을 지나다가 탐스럽게 달린 포도를 보았다. 여우는 그 포도를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그런데 포도는 조금 높은 곳에 달려 있었다. 여우는 포도를 따 먹을 궁리를 이리저리 해 보았지만 자신의 키로는 닿지 않을 것 같았다. 결국 여우는 ‘저 포도는 분명히 신 포도일 거야.’라며 포기한다.
- ② 목이 몹시 마른 까마귀가 물을 찾아다니다가 물이 담긴 단지 하나를 발견했다. 하지만 주둥이가 짧아서 물을 먹을 수가 없었다. 이리저리 궁리하던 까마귀는 부근의 돌을 물어다가 단지 속에 집어넣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그렇게 하니 물 높이가 훨씬 높아졌다. 그리하여 까마귀는 물을 마실 수 있었다.
- ③ 고집이 센 나귀를 몰고 산길을 가는 사내가 있었다. 그런데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서 낭떠러지 쪽으로 가려 고집을 부렸다. 사내는 나귀를 잡아당기며 얼마 동안 씨름을 계속했다. 나귀의 기운을 이겨 낼 수 없었던 사내는 나귀의 줄을 놓아 버렸다. 그러자 나귀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 ④ 욕심 많은 개가 고기 덩어리를 물고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그러다 다리 아래를 보니 저와 같은 개 한 마리가 커다란 고기를 물고 올려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욕심 많은 개는 그 고기를 빼앗으려고 눈을 부릅뜨며 쾅쾅 짖었다. 그러자 입에 물고 있던 고기가 물에 ‘퐁당’ 하고 떨어졌다.
- ⑤ 쥐 한 마리가 낮잠을 자고 있는 사자를 그만 깨우고 말았다. 화가 난 사자가 쥐를 잡아먹으려 하자, 쥐는 살려만 주면 은혜는 꼭 갚겠다고 빌었다. 사자는 작은 쥐가 무슨 은혜를 갚을 수 있겠냐고 비웃으며 쥐를 놓아 주었다. 며칠 후 밭에 걸려 울부짖는 사자를 본 쥐는 날카로운 이빨로 밧줄을 쏘아서 사자를 구했다.

## 40. ㉠을 &lt;보기&gt;와 같이 표현하지 않은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보 기> —

그는 ‘푸른 기차’를 사랑한다.

- ① ‘그’와 ‘푸른 기차’를 동일시하여 표현하기 위하여
- ② ‘그’가 수동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 ③ ‘그’의 미래가 암담하고 불투명함을 암시하기 위하여
- ④ ‘그’가 ‘푸른 기차’를 좋아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 ⑤ ‘그’와 같은 현대인의 전도된 가치관을 부각하기 위하여



## 2010학년도 육사 정답

문항	언어
1	②
2	②
3	②
4	⑤
5	④
6	②
7	②
8	③
9	④
10	③
11	④
12	⑤
13	⑤
14	⑤
15	③
16	③
17	①
18	②
19	④
20	②
21	④
22	④
23	④
24	③
25	⑤
26	④
27	⑤
28	①
29	③
30	⑤
31	③
32	①
33	②
34	②혹은⑤
35	④
36	③
37	①
38	③
39	①
40	②
41	
42	
43	
44	
45	



# 2009학년도 육군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 제 1 교시

## 언어 영역

공 통

성명

수험번호

1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문제는 2점 20문항, 3점 20문항 총 40문항입니다.(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조하십시오.)

1. <보기>의 주제에 따라 글쓰기 계획을 세웠다고 할 때, 세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보 기>—

- 주 제 : 혼혈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정립
- 주제문 :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혼혈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을 버려야 한다.

순 서	세부 내용
문제 인식	○ 혼혈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 다수가 아직도 편견을 가지고 혼혈인을 바라보고 있다. .... ①
예상 독자 설정	○ 일반 시민을 비롯하여 학생 및 학부모들을 예상 독자로 설정한다. .... ②
전개 방향 결정	○ 문제 인식과 관련된 실태를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 뒤,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순서로 전개한다. .... ③
문제 원인 분석	○ 설문 조사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일 민족 국가라는 의식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밝힌다. ○ 혈연 및 지연을 중시하는 의식 구조가 다른 나라보다 강하다는 점을 통계 조사 자료를 인용하여 제시한다. .... ④
해결 방안 제시	○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열린 의식을 강조하고, 혼혈인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⑤ ○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혈연과 지연을 중시하기보다는 같은 인간이라는 시각에서 혼혈인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함을 홍보한다.

2. <보기>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교육’에 관한 글을 작성하고자 할 때,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보 기>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루브 골드버그 장치’를 만드는 평가가 있었다. ‘루브 골드버그 장치’란 단순한 일을 복잡하고 번거롭게 수행하는 장치이다. 최종 10명의 후보들은 로켓이 발사되는 단추를 최소한 열다섯 단계를 거쳐 누르는 장치를 만들어야 했다. 예를 들어 전원 스위치를 넣으면 골프공이 발사되고, 그것이 굴러가서 무엇인가를 건드리면 성냥에 불이 붙고, 그 불이 램프를 켜서 용기의 물을 끓이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 마지막에 장난감 자동차가 발사 단추를 누르는 식이다. 이 장치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공학적 지식 외에 물리·화학적 지식 등이 필요할 뿐 아니라, 기발한 과학적 상상력과 만드는 이의 유머 감각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미국의 피듀 대학에서는 매년 ‘루브 골드버그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미국의 중·고등학교에서도 방학 숙제로 이 장치를 만들어오게 하는 경우가 많다.

- ① 인과 관계의 학습을 통하여 논리적인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② 학습을 통해 배운 지식을 실제에 적용해 보는 것이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
- ③ 학생의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④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도 중요하지만 여러 지식을 종합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 ⑤ 협동심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각종 경시대회를 많이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보기>를 활용하여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 탐구하고자 할 때,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국어에서 받침으로 쓸 수 있는 자음은 대표음 일곱 개뿐이다. 이 외의 자음이 음절 끝에 오면 그것은 일곱 자음 중의 하나로 바뀌어 발음된다. 이는 소리 나는 자리가 같은 자음들이 음절의 끝에서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다.

발음 환경	발음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절의 끝 또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 앞인 경우 ..... ㉠</li> <li>○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되는 경우 ..... ㉡ (단, ㅎ받침은 제외)</li> <li>○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등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 .....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박], 앞[압]</li> <li>• 옷[온], 있[고][인][꼬]</li> <li>• 낮[남], 낫[남], 낯[남], 히읃[히은]</li> <li>• 옷이[오시], 꽃을[꼬츨], 밭에[바테]</li> <li>• 값이[갑시], 쌀고[할꼬], 앓고[안꼬], 밭지[밭찌], 넓어[널버]</li> <li>• 부엌 안[부어간], 잎 위[이뷔], 옷 안[오단]</li> </ul>

- ① ㉠ - ‘ㄱ, ㅋ, ㆁ’은 대표음 [ㄱ]으로, ‘ㄴ, ㄷ’은 대표음 [ㄴ]으로 발음된다.
- ② ㉠ - ‘ㅏ, ㅑ’은 ‘ㅓ, ㅕ, ㅗ, ㅛ’와 마찬가지로 대표음 [ㅓ]으로 발음된다.
- ③ ㉡ - 홑받침으로 쓰인 자음은 음가를 살려 뒤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
- ④ ㉡ - 겹받침의 경우, ‘ㅃ, ㅆ, ㅌ, ㅍ, ㅍ, ㅍ’은 첫째 자음이 발음되고, ‘ㄹ, ㄹ’은 불규칙적으로 발음된다.
- ⑤ ㉢ -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여 대표음으로 바꾸고,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4. <보기>의 ㉠~㉣을 고쳐 쓰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보 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연인들이 강가에서 데이트를 할 때 물수제비를 ㉠ 떨우는 장면이 흔히 등장하곤 한다. 영화나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면 성공적인 데이트를 위해서는 물수제비를 잘 하는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

2004년 저명한 과학 잡지인 『네이처』에 프랑스 과학자 크리스토퍼 클라네 박사의 물수제비 관련 논문이 실렸다. 이 논문에 따르면, 물수제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한다. 먼저 둥글고 납작한 지름 5cm의 돌이 있어야 하고, 돌과 수면의 각도는 20도를 유지해야 하며, 초속 2.5m 이상의 속도로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과학자가 물수제비에 관심을 갖는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는가?

우주선이 지구로 귀환하기 위해서는 지구를 둘러싼 대기권으로 ㉡ 진입할 수 있다. 우주선이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순간의 상황이 돌맹이가 수면에 닿는 순간의 상황과 비슷하다. 계산을 잘못했다가는 우주선이 대기권에 거대한 물수제비 무늬를 남기며 튕겨나갈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주 과학자들은 이를 막기 위해 물수제비 현상을 연구하고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다.

㉢ 그러므로 항공 공학에서는 물수제비의 원리를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비행기가 40km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하강하면서 대류권과 만나면 물수제비처럼 통통 튀어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한다. 이론적으로는 시카고에서 로마까지 72분 만에 갈 수 있다니 실제로 가능하다면 연료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사실 과학자들이 물수제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부터다. 우주 과학과 항공 공학에서 물수제비에 대한 연구가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작은 돌맹이 하나가 보여주는 묘기가 놀라운 과학적 아이디어로 변하는 순간을 생각하면 ㉣ 웬지 짜릿하지 않은가!

- ① ㉠은 어휘가 부적절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뜨는’으로 고쳐야겠어.
- ② ㉡은 호응 관계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진입해야 한다.’로 고쳐야겠어.
- ③ ㉢은 앞뒤 단락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반면에’로 바뀌야겠어.
- ④ ㉣은 논지 전개 of 일관성을 위해 셋째 단락 첫머리에 넣어야겠어.
- ⑤ ㉣은 논리적 비약이 심하므로 ‘허무맹랑하지 않은가!’로 고쳐야겠어.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어다 보니  
 아주 캄캄한 밤,  
 \*어험스런 뜰 앞 잣나무가 자꾸 커올라간다.  
 돌아서서 자리로 갔다.  
 나는 목이 마르다.  
 또, 가까이 가  
 유리를 입으로 쪼다.  
 아아, 항 안에 든 금붕어처럼 갑갑하다.  
 별도 없다, 물도 없다, 휘파람 부는 밤.  
 소증기선처럼 흔들리는 창.  
 ㉠ 투명한 보랏빛 \*누리알 아,  
 이 알몸으로 끄집어 내라, 때려라, \*부룻내라.  
 나는 열이 오른다.  
 뺨은 차라리 연정스레이  
 유리에 비빈다, 차디찬 입맞춤을 마신다.  
 쓰라리, 아련히, \*긋는 음향 —  
 머언 꽃!  
 ㉡ 도회에서 고운 화재가 오른다.

- 정지용, 「유리창 2」

\* 어험스런 : 짐짓 위엄 있어 보이는 / \* 누리알 : 우박알  
 \* 부룻내라 : 부서뜨려라 / \* 긋는 : 끊어지다. 그치다.

(나) 어찌랴, 하늘 가득 머리 풀어 울고 우는 빗줄기, 뜨락에 와 가득히 당도하는 저녁나절의 저 음험한 비애의 어깨들 오, 어찌랴, 나 차가운 한잔의 술로 더불어 혼자일 따름이로다 뜨락엔 작은 나무의자 하나, 깊이 젖고 있을 따름이로다 전 재산이로다

어찌랴, 그대도 들리시는가 귀 기울이면 내 유년의 캄캄한 늪에서 한 마리의 이무기는 살아남아 울도다 오, 어찌랴, 때가 아니로다, 때가 아니로다, 온 국토의 별판을 기일게 기일게 혼자서 건너가는 비에 젖은 소리의 뒷등이 보일 따름이로다

어찌랴, 나는 없으라 그리운 물, ㉢ 설설설 끓이고 싶은 한 가마솥의 뜨거운 물, 우리네 아궁이에 지피어지던 어머니의 불, 그 잘 마른 삭정이들, 불의 살점들 하나도 없이 오, 어찌랴, 또다시 나 차가운 한잔의 술로 더불어 오직 혼자일 따름이로다 전 재산이로다, 비인 집이로다, 들판의 비인 집이로다 하늘 가득 머리 풀어 빗줄기만 울고 울도다

- 정진규, 「들판의 비인 집이로다」

(다) 거기 나무가 있었네.  
 노을 속엔 / 언제나 기러기가 살았네.  
 붉은 노을이 금관 악기 소리로 퍼지면  
 거기 나무를 세워두고 / 집으로 돌아오곤 했었네.  
 ㉣ 쏟아져 내리는 은하수 하늘 아래  
 창문을 열고 바라보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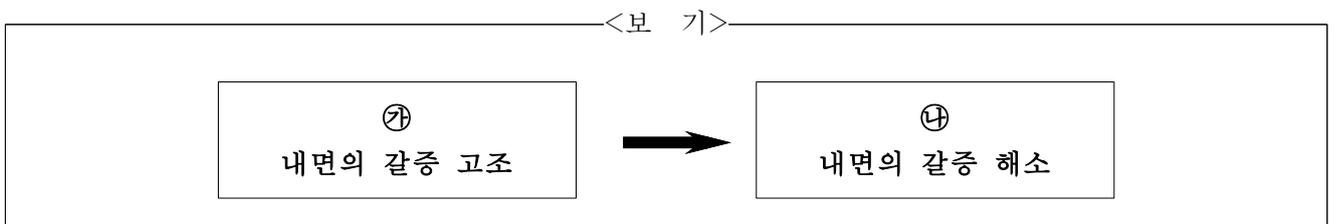
발뒤축을 들고 바라보았네.  
 거기 나무가 있었네.  
 희미한 하류로 / 머리를 두고 잠이 들었네.  
 나무가 아이의 잠자리를 찾아와  
 가슴을 다독여 주고 돌아가곤 했었네.  
 거기 나무가 있었네.  
 일만 마리 매미 소리로 / 그늘을 만들어 주었네.  
 모든 대답이 거기 있었네.  
 그들은 백사장이고 시냇물이었으며  
 빨기풀이고 뜸부기 알이었네.  
 거기 나무가 있었네.  
 이제는 무너져 흩어져버렸지만  
 등치마저 타버려 재가 돼 버렸지만  
 © 금관 악기 소리로 퍼지던 노을  
 스쳐가는 늦 기러기 몇 마리 있으리  
 귀 기울이고 다가서 보네.  
 까마득한 하류에 나무가 있었네.  
 거기 나무가 있었네.

- 이견청, 「하류」

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와 (나)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내면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회상하는 방식을 통해 과거의 추억을 묘사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시구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가)~(다) 모두 역설적 기법을 통해 심화되는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⑤ (가)~(다) 모두 현재와 과거의 대비를 통해 현재의 결핍을 노래하고 있다.

6. (가)의 시상 전개를 <보기>와 같이 정리했을 때, 이와 관련지어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안과 밖을 차단하는 ‘유리’의 속성은 ㉠과 관련이 있다.
- ② 유리창 밖 공간이 ㉠과 관계된다면, 유리창 안 공간은 ㉡와 관계된다.
- ③ ‘마르다’는 시어는 ㉠과 관련이 있고, ‘마신다’는 시어는 ㉡와 관련이 있다.
- ④ 시적 화자가 뺨을 유리에 비비는 행위는 ㉠에서 ㉡로의 이행과 관련이 있다.
- ⑤ ‘쓰라리’라는 시어로 보아,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통해 ㉡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

## 7. (가)~(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가)에서 ‘별’도 없는 ‘깜깜한 밤’은 화자의 답답한 내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② (나)에서 ‘들판의 비인 집’은 홀로 지내는 화자의 쓸쓸한 내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③ (나)에서 ‘머리 풀어 울고 우는 빗줄기’는 슬픔으로 가득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④ (다)에서 ‘그들’을 만들어 주는 ‘나무’는 안식처를 갈망하는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⑤ (다)에서 ‘기러기’가 살았던 ‘붉은 노을’은 세월의 무상함을 탄식하는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 8. ㉠~㉡ 중, &lt;보기&gt;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2점)

< 보 기 >

시인은 대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마음속에 그려지는 영상을 흔히 감각적 시어로 형상화한다. 그 중 공감각적 표현이란, 한 종류의 감각을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전이(轉移)시켜 표현하는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돌이든 나무든 무슨 재료든 ㉠ 조각은 일단 깎아내는 행위에서 출발한다. 무심한 돌덩이를 깎아 마치 피가 도는 듯한 인물 형상 등을 창조하는 것이 조각의 경이로운 연금술이다. 영국의 추상조각가 헵워스(Hepworth)는 자연의 이런저런 형상들을 단순히 모방하거나 재현하는 ㉡ 조각이 아닌, 인간의 저 깊은 정신을 특정한 꼴로 깎아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자신의 친구인 문예비평가 허버트 리드(Herbert Read)에게 물었다. 요약하자면 ㉠ ‘정신을 재료에 일치시키는 조각(彫刻)’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런데 리드는 뜻밖에도 『장자(莊子)』를 인용해 대답했다. 그것은 『장자』의 「달생(達生)」편에 나오는 재경이란 인물의 우화였다. 이 사람은 요셋말로 목(木)공예가에 해당하는 뛰어난 기술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 조각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우선 나무를 찾아 깎기 이전에 며칠간 마음을 차분한 상태로 가라앉힌다. 한 사흘 기(氣)를 모으면 남들이 잘 한다 칭찬하거나 상(賞)을 준다는 말에 현혹되지 않는다. 덧새가 지나면 또 남이 형편없다고 헐뜯거나 욕하는 소리에도 무감해진다. 이레가 되는 날은 내 손발이나 모습까지 완전히 잊게 된다. 바로 이때 내가 쓸 나무를 찾아 산으로 간다. 손도 발도 몸뚱이도 다 잊었으니 그저 내 마음만 남아 나무의 마음과 서로 통할 수밖에 없다.

[A] 이 정도가 되면 그가 깎는 나무는 벌써 자아와 분리된 대상이 아니다. 제 마음을 술술 빚어내는 무아(無我)의 유희로 몰입한 셈이다. 그러면서 허버트 리드는 “자연 속의 천명(天命)이 인간의 천명과 합일하는 행위”라는 다소 고답적(高踏的)인 말로 조각과 정신의 조화를 설명했다. 조각가가 모자(母子)상을 빚어냈으되 그것이 단순히 어머니와 자식의 형상만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조각이 되거나, 도통 어떤 모양인지 말로 잘 표현되지 않는 추상 조각이 그 작가의 속 깊은 내면을 대변하게 되는 것 역시 그런 과정을 겪고 탄생하는 것이다.



[12~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황만근이 없어졌다.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근은 늘 들일을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인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열두 시가 될락말락한 한밤이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다. 평생 단 하루 외박한 뒤 돌아왔던 그 시각, 햇대의 닭이 울음을 그치는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회관 앞, 황만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짠 평상에 사람들이 모였다. 먼저 이장이 입을 열었다.

“만그인지 반그인지 그 바보자식 하나 때문에 소 여물도 못하러 가고 이기 뭐라. 스무 바리나 되는 소가 한꺼분에 밥 굶는 기 중요한가, 바보자식 하나가 어데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기 중요한가, 씨그랄.”

마을에서 연장자 축에 들고 가장 학식이 높아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용왕제(龍王祭)에 \*축(祝)을 초(草)하는 황재석씨가 받았다.

“그래도 질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마 필시 연유가 있는 기라.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기양 없어지는 기 어디 있어.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이라. 반그이, 아이다. 만그이가 여계서 나서 사는 동안 한분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라.”

“아이지요. 어르신. 가가 군대 간다 했을 때 여운지 토끼인지하고 밤새도록 싸우니라고 하루는 안 들어왔습다.”

용왕제에서 집사 역을 하는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다. 아침밥을 먹기도 전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열걸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씨는 분위기가 어찌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어제 췌기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구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췌기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사람이라고 밋밍이나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도 모있다는 기 백밍이 될라나 말라나 한테 반그이는 돼지고기 반 근만해서 그런지 안 보이더라칸께.”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 말을 이었다. 민씨는 이장이 췌기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네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제 밤에 내일 췌기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한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 민씨를 흘기듯 노려보았다.

“왜, 농민보고 농민 췌기대회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민씨는 자신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었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뭐라 카는 기라.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부채 탕감촉구 전국 농민 총췌기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카는데 뭐가 잘못됐다 말이라.”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내가 아나. 읍에 가보이 장날이더라고. 보나마나 어데서 술 처먹고 주질러앉았을 끼라. 백릿길을 경운기를 끌고 갔으이 시간도 마이 걸릴 끼고.”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버렸다.

<중략>

그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황만근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동네 사람 누구든 하루

이틀, 또는 한두 달 집을 비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황만근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모든 사람이 그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황만근을 찾아 나서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이면서 있었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면서 지금처럼 없기도 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했다. 두어 해 전에야 신대 1리로 들어와 황만근의 탄생과 성장, 삶을 처음부터 지켜보지 못한 민씨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마흔다섯 살의 황영석은 황만근이 벽돌을 찍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회관 변소에서 분노를 퍼내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만그이 자석이 있었으마 내가 돈을 백만 원 준다 캐도 이런 일을 안할 낀데. 아이구, 이 망할 놈이 똥냄새, 여리가 싸놔 그런지 독하기도 하네. 이기 곡석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모르겠구마.”

황만근이 있었으면 군말 없이 했을 일이었다. 늘 그렇듯이 병글병글 웃으면서.

“만그이가 있었으모 저 거름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만그이가 도대체 어데 갔노.”

마을회관 곁 조그만 밭에 채소를 심어 먹는 여씨 노인도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황만근은 마을 공통의 분노를, 역시 자신이 판 마을 공통의 분노장으로 가져가서 충분히 익힌 뒤에, 공평하게 나누어주었다. 황영석처럼 제가 폼다고 바로 제 밭에 가져다가 뿌리지는 않았다. 특히 여씨 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잣말이 된 노인들에게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더 자주 거름을 가져다 주었다.

“만그이한테 물어보자.”

아이들은 소꿉장난을 하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공평무사한 것이 황만근의 평생의 처사였다. 그에게는 판단 능력이 없는 듯했지만 시비를 물으러 가면, 가노라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이법에 대해 깨우치게 되고 분쟁은 종식되었다.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 축(祝)을 초(草)하다 : 제사 때 읽는 축문의 초안을 잡다.

## 12.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빠른 장면 전환을 통해 사건 전개 of 긴박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대사를 통해 초점이 되는 인물에 대한 다양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③ 1인칭 시점을 사용하여 주인공 자신이 체험한 바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액자식 구성을 통하여 하나의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배경을 서정적으로 묘사하여 농촌의 풍요로운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 13. 위 글에 나타나는 인물 간의 갈등 구조를 파악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민씨는 황만근을 옹호하는 편에 서 있다.
- ② 갈등을 빚는 주된 인물은 민씨와 이장이다.
- ③ 갈등의 발생 원인은 황만근의 부재와 관련이 있다.
- ④ 이장은 오래 전에 황만근과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
- ⑤ 황재석과 황동수 사이에는 직접적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 14. 위 글과 &lt;보기&gt;를 읽고 난 후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lt;보 기&gt;—

황만근, 황 선생은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해가 가며 차츰 신묘한 지혜가 돌아왔다.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듯이 덮어 주고 땅이 은혜롭게 부리를 대어 알껍질을 까 주었다. 그리하여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여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였다. 사람들이 빗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하였으나 개의치 아니하였다.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 하였고 공에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 하늘이 내린 효자로서 평생 어머니 봉양을 극진히 했다. 아들에게는 따듯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고 훈육을 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하여 마음으로 감복시켰다…….

단기 사천삼백삼십년 오월 스무날

본디 묘지에나 쓰일 것이지만 천지를 대영혼의 집으로 삼은 선생인지라 아무 쓸모도 없는 이 글을, 새터말로 귀농하였다가 이룬 것 없이 다시 도시로 흘러가며, 남해인 민순정이 엮드려 쓰다.

- ① 곁으로 보기에 어수룩해 보이더라도 황만근 같은 삶이야말로 남에게 귀감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
- ② 황만근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성실히 다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어.
- ③ 황만근과 같이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 강한 사람은 남에 의해 아픔을 겪게 되는 경우도 많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
- ④ 비록 가난하더라도 황만근과 같이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 ⑤ 마을 사람들을 위해 앞장서는 황만근의 모습에서 큰 공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희생정신이 강해야겠다는 점을 배우게 되었어.

## 15. 위 글을 영화로 제작하려고 할 때, 장면 구성에 대한 적절한 의견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2점)

- ① 민씨가 이장에게 따지는 장면에서는 이장의 불만스러운 표정을 클로즈업하여 보여주는 것이 좋을 거야.
- ② 황만근이 새벽에 경운기를 타고 군청으로 떠나는 장면에서는 경운기가 점차 멀어지도록 처리하는 것이 좋겠어.
- ③ 이장이 황만근을 따로 불러 이야기하는 장면에서는 민씨가 이를 우연히 보게 되는 장면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어.
- ④ 마을 사람들이 여러 장소에서 황만근을 찾는 장면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화면을 분할하여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
- ⑤ 여씨 노인이 황만근에 대해 말하는 장면에서는 황만근이 마을 사람들에게 분노를 나눠주는 장면을 오버랩하여 보여주는 것이 좋겠어.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덩하 돌하 당금(當今)에 계상이다.  
 덩하 돌하 당금(當今)에 계상이다.  
 선왕성티(先王聖代)에 노니으와지이다. (1연)

\*삭삭기 세물애 별혜 나눈  
 삭삭기 세물애 별혜 나눈  
 구은 밤 닷 되를 심고이다.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유덕(有德)흐신 님 여히으와지이다. (2연)

<중략>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털슈산(鐵樹山)에 노호이다.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아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아  
 유덕(有德)흐신 님 여히으와지이다. (5연)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긴히든 그츠리잇가  
 즘른 히를 외오곰 녀신들  
 즘른 히를 외오곰 녀신들  
 신(信)잇든 그츠리잇가. (6연)

- 작자 미상, 「정석가(鄭石歌)」

\* 삭삭기 세물애 : 바삭바삭한 가는 모래

(나) 나무 도막으로 당닭을 깎아  
 젓가락으로 집어 벽에 앉히고  
 이 새가 꼬끼오 하고 때를 알리면  
 어머니 얼굴은 비로소 서쪽으로 기우는 해처럼 늙으시리.

木頭雕作小唐鷄(목두조작소당계)  
 筋子拈來壁上棲(근자넌래벽상서)  
 此鳥膠膠報時節(차조교교보시절)  
 慈顏始似日平西(자안시사일평서)

- 문충, 「오관산요(五冠山謠)」

(다) 개야미 불개야미 존등 부러진 불개야미,

압발에 정종나고 뒷발에 종귀 난 불개야미, 광릉(廣陵) 십재 너머 드리 \*가람의 허리를 ㄹ르 무리 추혀 들고 북해(北海)를 건너닷 말이 이서이다.

님아 님아.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님이 짐작하쇼셔.

-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

\* 가람 : 호랑이. 최호랑이인 '갈범'에서 온 말

16.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과장된 표현을 통해 대상의 영원성을 기원하고 있다.
- ②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반복과 열거를 통해 시적 화자의 결연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④ 화자의 심정을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⑤ 풍자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당대의 부조리한 세태와 각박한 인심을 비판하고 있다.

17. (가)에 대해 <보기 1>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기 2>와 같이 추론하였다고 할 때, 적절한 것끼리 묶인 것은? (3점)

— <보기 1> —

제 1연에서 '덩'과 '돌'은 악기 소리를 나타낸 의성어로 보기도 하고, 각각 정(鉦-징)과 석(石-경쇠)이라는 악기를 의인화하여 연정의 대상인 '정석(鄭石)'이라는 인물을 나타낸 것으로 보기도 한다. 특히 제 1연의 내용은 임금의 덕을 칭송하고 태평성대를 노래한 전체의 서연(序聯)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나머지 연과 내용상의 연관성이 긴밀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의식요(儀式謠)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이 노래의 결련(結聯)인 제 6연은 사랑하는 임과의 영원한 신의와 사랑을 강조한 내용으로 같은 고려속요인 '서경별곡'의 제 2연과 그 내용이 동일할 뿐 아니라, 이제현의 '소악부'에도 한역(漢譯)되어 전한다.

— <보기 2> —

- ㄱ. 이 노래의 제목인 '정석가'는 1연의 '덩'과 '돌'의 악기 이름에서 차자(借字)한 것이라 볼 수도 있겠군.
- ㄴ. 우리 문학에 끼친 한문학의 영향을 고려해보면 이 작품도 한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
- ㄷ. 이 노래의 1연은 내용상 나머지 연과 동떨어진 것으로 보아, 나중에 궁중 음악으로 편입되면서 삽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ㄹ. 이 노래의 6연은 먼저 궁중에서 불리다가, 구비 문학의 특성 상 구전의 과정에서 여러 작품에 차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가)~(다)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의 ‘한쇼’와 (나)의 ‘당답’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가)의 ‘털초’와 (나)의 ‘해’는 화자가 소망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 ③ (가)의 ‘삭’과 (나)의 ‘젓가락’은 화자의 태도가 변화하는 계기로 볼 수 있다.
- ④ (가)의 ‘구슬’과 (나)의 ‘가람’은 시적 화자의 분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나)의 ‘꼬끼오’와 (다)의 ‘온 말’은 문맥상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19.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다)와 가장 가까운 것은? (2점)

- ① 저재 너러신고요. / 어기야 즌 디를 드디올세라. / 어느이다 노코시라. / 어기야 내 가는 디 점그를 세라.  
 - 작자 미상, 「정읍사(井邑詞)」
- ② 유월(六月)스 보로매 아으 별해 브론 빗 다호라. / 도라보실 니를 적곰 좃니노이다. / 아으 동동(動動)다리.  
 - 작자 미상, 「동동(動動)」
- ③ 과(過)도 허물도 천만(千萬) 업소이다. / 물헛마리신더 / 술웃븐더 아으 / 니미 나를 흐마 니즌시니 잇가. /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 정서, 「정과정(鄭瓜亭)」
- ④ 어름 우희 댕넙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러 주글만덩 / 어름 우희 댕넙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러 주글만덩 / 정(情) 둔 오눕밤 더디 새오시라 더디 새오시라.  
 - 작자미상, 「만전춘별사(滿殿春別詞)」
- ⑤ 기왕(岐王)스 집 안해 상네 보다니, / 최구(崔九)의 집 알피 몇 디월 드리노. / 정(正)히 이 강남(江南)에 풍경(風景)이 도흐니, / 곳 디는 시절(時節)에 쏘 너를 맛보과라.  
 - 두보, 「강남봉이구년(江南逢李龜年)」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72년 프루시너는 병에 걸린 동물을 연구하다가, 우연히 정상 단백질이 어떤 원인에 의해 비정상적인 구조로 변하면 바이러스처럼 전염되며 신경 세포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프루시너는 이 단백질을 ‘단백질(protein)’과 ‘바이러스 입자(viroid)’의 합성어인 ‘프리온(prion)’이라 명명하고 이를 학계에 보고했다.

프루시너가 프리온의 존재를 발표하던 당시, 분자생물학계의 중심이론은 1957년 크릭에 의해 주창된 ‘유전 정보 중심설’이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유전되는 모든 정보는 DNA 속에 담겨 있다는 것과, 유전 정보는 핵산(DNA, RNA)에서 단백질로만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크릭에 따르면 모든 동식물의 세포에서 DNA의 유전 정보는 DNA로부터 세포핵 안의 또 다른 핵산인 RNA가 전사되는 과정에서 전달되고, 이 RNA가 세포질로 나와 단백질을 합성하는 번역의 과정을 통해 단백질로의 전달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단백질은 핵산이 없으므로 스스로 정보를 저장할 수 없고 자기 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프루시너는,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은 핵산이 아예 존재하지 않음에도 자기 복제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크릭의 유전 정보 중심설에 기반한 분자생물학계의 중심 이론을 흔들게 된다. 아직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자기 복제하는 단백질’이라는 개념이 분자생물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기까지는 매우 험난한 과정이 필요했다. 과학자들은 충분하지 못한 증거를 가진 주장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대했을 때는 어떻게든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해내려 노력하기 때문이다. 프루시너가 프리온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생리학·의학상을 받은 것은 1997년에 이르러서였다.

사실 프루시너에 앞서 1965년에도 효모를 이용한 유전학 실험에서 기존의 유전 법칙을 따르지 않는 유전 현상이 발견된 바 있으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기존 이론으로만 설명하려고 하였다. 결국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 [PSI+]라는 프리온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짐으로써 비로소 주목받기 시작했다. 밝혀진 결과에 따르면 Sup35라는 정상적인 단백질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단 [PSI+]로 변화되고 나면, 이 [PSI+]가 곧 주위의 다른 Sup35 단백질을 [PSI+]로 변화시키며 유전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프리온의 존재는 분자생물학 뿐 아니라 생물학 전체를 ㉠ 뒤흔들만한 가설로 이어지고 있다. 2000년 린드퀴스트 교수는 효모를 프리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눈 다음, 이 두 부류가 150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성장 조건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를 실험하였다. 그는 이 실험을 통하여 프리온을 가진 효모가 그렇지 않은 것보다 적응도가 더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프리온이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진화론에서는 환경의 변화에 따른 유전형의 변화를 하나의 산 정상에서 다른 산의 정상으로 가는 등반에 비유하곤 하는데, 린드퀴스트는 프리온이 성공적인 등반을 쉽게 해주는 유전학적 스위치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프리온이 ㉡는 것이다. 린드퀴스트의 이 가설은 현재 진화력(進化力)과 관련하여 생물학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20. 위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단백질이 ‘프리온’으로 변하는 원인
- ② ‘프리온’의 발견이 생물학계에 미친 영향
- ③ 프루시너가 ‘프리온’을 발견하게 된 계기
- ④ ‘유전 정보 중심설’에서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순서
- ⑤ ‘프리온’이 처음에 학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이유

21. 위 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전에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학문적 적자(嫡子)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천동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 현상이 다양하게 발견되면서 천동설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16세기 중엽에 이르러 코페르니쿠스는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원운동을 한다는 지동설을 주장하게 된다. 기원전 3세기에 아리스타쿠스에 의해 지동설이 제기되었으나, 당시에는 천동설로 항성과 행성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무시되었다. 천동설에서 벗어나는 몇몇 이상 현상은 계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 오차 정도로 치부되거나 복잡하지만 어떻게든 천동설로 설명하려 했던 것이다. 반면 계속된 이상 현상들의 발견으로 인해 과학자들의 학문적 위기 위식이 팽배하던 시기에 제기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천동설을 몰아내고 학문적 적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 ① 아무리 확고하게 느껴지는 과학적 이론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겠군.
- ② 프루시너의 주장도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처럼 학계에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이후에야 인정을 받기 시작했겠군.
- ③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도 천동설로 설명할 수 없었던 이상 현상이 있었던 것처럼, 프루시너의 ‘프리온’ 발견 이전에도 이런 이상 현상이 있었군.
- ④ ‘프리온’을 처음 접한 대부분의 과학자들도 처음에는 아리스타쿠스의 지동설을 접한 기원전 3세기의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반응을 보였을 거야.
- ⑤ 코페르니쿠스 이후 몰락한 천동설처럼, 세포의 핵산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고 자기 증식을 한다는 기존 이론은 프루시너 이후에 더 이상 인정받지 못했을 거야.

22.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환경의 변화로 유전 정보가 변하는 것을 방지하는 요소일 수 있다
- ② 개체의 생존이 유리하도록 환경을 변화시키는 유전 인자일 수 있다
- ③ 환경에 따라 변화된 형질이 유전되지 못하도록 막는 요소일 수 있다
- ④ 핵산이 없는 단백질임에도 스스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요소일 수 있다
- ⑤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개체의 진화력을 높이는 유전 인자일 수 있다

23. ㉠에 쓰인 ‘뒤-’의 의미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2점)

- ① 뒤끓다      ② 뒤엎다      ③ 뒤엎다      ④ 뒤뜰다      ⑤ 뒤섞다

[24~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으리라. 피타고라스 학파는 사실 학파라기보다 오르페우스(Orpheus)교라는 신비주의 신앙을 가진 하나의 종교 집단이었다 한다. 그들은 매우 엄격한 종교적 계율을 지켰고, 무엇보다 영혼의 윤회를 믿었다. 피타고라스가 살던 당시 그리스에서는 막 철학적 사유가 싹트고 있었다. 당시 철학계에서는 이 세상의 다양한 사물과 변화무쌍한 현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근본적인 것(arkhe)’을 찾는 것이 유행이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물’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불’이라 했다. 그런데 피타고라스는 특이하게도 그런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 곧 ‘수(數)’가 만물의 근원이라고 ㉠ 생각했다.
- (나) 피타고라스가 신봉하던 오르페우스는 인류 최초의 음악가였다. 때문에 피타고라스 교단이 음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은 물론 음악에서도 수적 비례를 찾아냈다. 아니, 음악이야말로 오히려 수적 비례 관계가 가장 순수하게 나타나는 영역이 아닌가. 음의 높이는 현(絃)의 길이와의 비례 관계로 설명된다. 현의 길이를 1/3만 줄이면 음은 정확하게 5도 올라가고 반으로 줄이면 한 옥타브 올라간다. 여러 음 사이의 수적 비례는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낸다.
- (다) 이 신비주의자들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의 신비를 그냥 지나쳤을 리 없다. 하늘에도 수의 조화가 지배하고 있다. 별은 예정된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일정한 시간에 나타나 일정한 시간에 사라진다. 그래서 그들에게 별의 움직임은 리드미컬한 춤이었다. 재미있게도 그들은 별들이 현악기 속에 각자의 음을 갖고 있다고 믿었다. 그렇다면 천체의 운행 자체가 거대한 교향곡이 아닌가. 그 당시는 비유가 논증의 방식이었다. 때문에 우주의 조화는 음의 조화, 곧 아름다운 화음으로 여겨졌다. 마침내 밤하늘엔 춤추는 별들이 어우러져 장엄한 음악이 울려 퍼졌다. 피타고라스 교단의 교리에 도통한 사람은 이 우주의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 한다. 과연 그 소리가 어땠을까?
- (라) ㉡ 아득한 옛날,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태도로 자연과 세계를 대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에 생명이 있다고 믿었고, 그 생명들과 언제든지 교감할 수 있었다. 무정한 밤하늘에서조차 그들은 별들이 그려내는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별들이 연주하는 장엄한 음악을 들었다. 상상해 보라. 시시각각 움직이는 밤하늘의 거대한 형상들, 별자리의 인물들이 펼치는 극적인 이야기들, 울려 퍼지는 교향곡을…….
- (마)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불행하게도 세계를 이렇게 느끼길 그만두었다. 다시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는 없을까? 물론 그럴 수는 없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삶의 한구석엔 고대인들의 심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여기서는 아직도 그들처럼 세계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 바로 예술의 세계다.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다. “내가 타죽은 나무가 내 속에서 자란다 / 나는 죽어서 / 나무 위에 / 조각달로 뜬다…… 저 먼 우주의 어느 곳엔가 / 나의 병을 앓고 있는 별이 있다.”
- (바) 시인은 피타고라스가 우러르던 바로 그 하늘을 본다. 그는 자연과 윤회의 끈으로 생명을 주고받고, 빛의 속도로 달려도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머나먼 우주와 교감한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난 나무도 아니고 조각달도 아니다. 내가 아는 한, 별은 병을 앓을 수 없다. 더구나 내 병을 대신 앓다니. 하지만 이 거짓말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왜? 우리 왜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믿고 싶을까? 인류가 까마득한 과거 속에 물어버린 이 환상이, 왜 아직도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2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점)

- ① 현의 길이를 조절함으로써 음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다.
- ② 천체의 운행과 우주의 조화는 수적 비례 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
- ③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더 이상 자연이나 우주와 교감할 수 없게 되었다.
- ④ 피타고라스 학파는 당시 그리스 철학계의 유행을 따르지 않는 신비적인 집단이었다.
- ⑤ 고대 그리스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흔히 비유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25. 위 글이 어떤 책의 서문이라고 했을 때, 책의 핵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인류의 삶에서 예술이 가지는 의의
- ② 만물의 근원에 대한 철학적·종교적 고찰
- ③ 그리스 철학과 동양 불교의 사상적 연관성
- ④ 예술 작품 속에 적용된 다양한 수학의 원리
- ⑤ 서양 예술의 발전에 끼친 그리스 철학의 영향

26. 글의 흐름으로 보아, <보기>의 글이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보 기>

세상의 모든 것은 수로 표시된다. 수를 갖지 않는 사물은 없다. 그러면 모든 것에 앞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수가 아닌가. 수는 모든 것에 앞서 존재하며 혼돈의 세계에 질서를 주고 형체 없는 것에 형상을 준다. 따라서 수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존재의 가장 깊은 비밀을 탐구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연구는 피타고라스 교단에서 지켜야 할 계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 ① (가)의 뒤
- ② (나)의 뒤
- ③ (다)의 뒤
- ④ (라)의 뒤
- ⑤ (마)의 뒤

27.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3점)

- ① 내 건강을 생각해 주니 정말 고맙다.
- ② 그는 늘 큰 집을 가졌으면 하고 생각했다.
- ③ 나는 그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 ④ 네 사정을 생각해서 더 이상 다그치지 않겠다.
- ⑤ 그는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고향 마을을 생각했다.

28. ㉡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훨훨 나는 저 피꼬리는 / 암수 다정히 노니는데, / 외로울사 이 내 몸은 / 뉘와 함께 돌아가리.  
- 유리왕, 「황조가(黃鳥歌)」
- ② 임금은 아버지요, /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요, / 백성은 어린 아이라고 한다면 / 백성들이 나라의 사랑을 알 것입니다.  
- 충담사, 「안민가(安民歌)」
- ③ 붉은 바위 가에 / 잡고 있는 암소를 놓게 하시고 /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신다면 / 꽃을 꺾어 바치 겠나이다.  
- 견우노옹, 「헌화가(獻花歌)」
- ④ 호미도 늘히언마르논 / 난가티 들 리도 업스니이다. / 아바님도 어이어신마르논 / 어마님ㄹ티 피시 리 업세라.  
- 작자 미상, 「사모곡(思母曲)」
- ⑤ 거북아, 거북아. 수로를 내 놓아라. / 남의 아내 앓았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큰가. / 네 만약 거스르고 내놓지 않는다면, / 그물로 너를 잡아서 구워 먹으리라.  
- 작자 미상, 「해가(海歌)」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웃에 장씨(張氏) 성을 가진 자가 살았다. 그가 집을 짓기 위하여 나무를 베려고 산에 갔는데, 우거진 숲속의 나무들을 다 둘러보아도 대부분 꼬부라지고 뒤틀려서 쓸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러다 산꼭대기에서 한 그루의 나무를 발견하였는데, 정면에서 바라보나 좌우에서 바라보나 분명히 곧았다. 쓸 만한 재목이다 싶어 도끼를 들고 다가가 뒤쪽에서 바라보니, 형편없이 굽은 나무였다. 이에 도끼를 버리고 탄식하였다.

“아, 재목으로 쓸 나무는 보면 쉽게 드러나고, 가름하기도 쉬운 법이다. 그런데 이 나무를 내가 세 번이나 바라보고서도 재목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러니 겉으로 후덕해보이고 인정 깊은 사람일 경우 어떻게 그 본심을 알 수 있겠는가. ㉠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하고 얼굴을 보면 선량해보이고 세세한 행동까지도 신중히 하므로 우선은 군자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막상 큰일을 당하거나 중대한 일에 임하게 되면 본색이 드러나고 만다.

나무가 자랄 때 짐승에게 짓밟히거나 도끼 따위로 해침을 받은 일도 없이 오로지 이슬의 덕택에 날로 무성하게 자랐으니, 마땅히 굽은 데 없이 곧아야 할 텐데 꼬부라지고 뒤틀려서 이다지도 쓸모 없는 재목이 되고 말았다. 하물며 요즘 같은 세상살이에 있어서랴. 물욕이 진실을 어지럽히고 이해(利害)가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천성을 굽히고 당초에 먹은 마음에서 떠나고 마는 자가 헤아릴 수 없으니, 속이는 자가 많고 정직한 자가 적은 것을 괴이하게 여길 일도 아니다.”

이 생각을 내게 전하기에 나는 이렇게 말해주었다.

“그대는 정말 잘 보았다. 『서경(書經)』 「홍범(洪範)」 편에 오행(五行)을 논하면서, 나무를 곡(曲)과 직(直)으로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나무가 굽은 것은 재목감은 안 될지 몰라도 나무의 천성으로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건대, 이 세상에서 굽은 나무는 아무리 서투른 목수일지라도 가져다 쓰지 않는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잘 다스려지는 세상에서도 버림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대는 큰 집의 구조를 살펴보라. 들보와 기둥, 서까래와 각목이 수없이 많이 얽혀서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굽은 재목은 보지 못할 것이다. 반면 조정 대신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공경과 대부 그리고 사(士)가 예복을 갖추어 입고 조정에 드나드는데, 그 중 정직한 도리를 간직하고 있는 자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보면 굽은 나무는 항상 불행을 겪고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자가 항상 행운을 잡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장유, 「곡목설(曲木說)」

(나) 나무는 클수록 좋다. 그리고 늙을수록 좋다. 잔가지에 꽃이 피거나, ㉡ 열매가 열려 휘어짐에 그 한두 번 바라볼 만한 아취(雅趣)를 모름이 아니로되, 그렇게 내가 쓰다듬어 줄 수 있는 나무보다는 나무 그것이 나를, 내 집과 마당까지를 폭 덮어주어 나로 하여금 한 어린 아이와 같이 똥그래진 눈으로, 늘 내 자신의 너무나 작음을 살피며 ㉢ 겸손한 마음으로 그 밑을 거닐 수 있는 한, 뗏부리처럼 높이 솟은 나무가 그리운 것이다.

현인(賢人) 장자(長者)들이 살던 마을이나 그들이 거닐던 마당에는 흔히 큰 나무들이 선 것을 본다. 온양에 이 충무공이 사시던 마을에도 그가 활 쏘던 언덕이라는 데 절벽과 같이 흰칠히 솟은 두 채의 은행나무가 반은 고목이 되어 선 것을 보았다. 나는 충무공이 쓰시던 칼이나 활이나 어느 유품에서보다 그 한 쌍 은행나무에 더 반갑고 더 고개가 숙여졌다.

늙기는 하였으며 아직 살기는 한 나무였다. 말이야 있건 없건 충무공과 더불어 한때를 같이한 것으로 아직껏 목숨을 가진 자—그 두 그루의 은행나무뿐이다. 나무는 긴 세월을 보내며 자랄 대로 자랐다. 워낙 선 곳이 언덕이라 여간 팔심으로는 팔매를 쳐 그 어느 나무의 상가지도 넘길 것 같지 않았다. 이렇게 높고 우람한 거목이기 때문에 좋았다. 아무리 충무공이 손수 심으신 것이라 하여도



[33~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들은 왜 글을 쓰는 것일까. 여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자기의 사상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거나, 자기의 삶, 자기의 인생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을 아름답게 한다거나, 인격 도야(陶冶)에 뜻을 둔다거나 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일기문을 제외하고 보통 글이라면 다른 사람이 읽는 것을 전제로 하여 쓴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타인이 읽기 쉬운 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이란 어떠한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적합한 언어 조립으로서 수사학적 표현의 기술이 요구된다. ‘표현의 기술’, 그것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혜택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쓰고 싶은 글을 거침없이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물론 동물들도 자기들끼리 통하는 언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사회에서처럼 보존이 가능한 문자 언어일 수도 없고, 표현 기술이 가능한 예술적 언어일 수도 없다. 언어를 거침없고 막힘없이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마음이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문장 표현의 기술, 즉 적합한 언어를 적합한 자리에 끼워 넣는 연습이 필요하다.

글쓴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보다 적합한 언어를 찾아내어 효과적으로 글을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적합한 언어를 찾아낸다는 것은 마치 기계를 조립할 때 알맞은 부속품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 글쓴이는 문득 떠오르는 하나하나의 생각들 가운데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과정을 거친다. 여기에서 소재가 모든 경험의 산물이라면, 제재는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져온 경험의 부스러기라 하겠다. 결국 글쓰기란 경험 또는 체험이라는 부속품들의 취사선택을 거쳐서 하나의 기계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과 흡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기묘한 생각들이 떠오르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과 생각들은 구체적인 문장 형태를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것은 마치 부화의 과정에서 계란의 노른자에 피가 돌고 날개가 생기게 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어떤 착상(着想)이 떠오르면 우선 메모를 해 두고, 시간이 생길 때에는 원고지에 써 보는 것이 좋다. 단, 글을 쓰기 전에 무슨 내용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그려보아야 한다. ‘내용’이 주제와 소재를 말한다면, ‘어떻게’란 그 방법으로서의 표현 기교, 즉 형식을 말한다.

다른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초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의 원칙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 원칙이란 명확하고 (Clear), 바르고(Correct), 간결하게(Concise) 쓰는 것을 말한다. 독자는 읽기 쉬운 문장을 원한다.

[A] 그러한 문장을 쓰려면 문장에 오류가 없어야 하고 문장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지 않아야 한다. 문장이 길어질수록 언어의 질서가 불명확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마치 하나하나의 벽돌을 정확히 쌓아 올려서 훌륭한 건축물을 이루듯이 문장 하나하나를 쌓아 올려서 전체적인 통일성을 이루도록 글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 33.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 ②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실제의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
- ③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대조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질문을 던져 독자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34. 위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것은? (2점)

- ① 글을 쓰는 목적
- ② 메모를 작성하는 방법
- ③ 소재와 제재의 차이점
- ④ 인간 언어와 동물 언어의 차이점
- ⑤ 읽기 쉬운 글이 갖추어야 할 조건

## 35. [A]에서 제시한 문장 작성의 방법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은? (3점)

- 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어의 발전이 국민들의 의식과 문인(文人)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 국민들은 평소에 바르고 고운 말을 써야 하겠다는 의식을 가져야 하고, 문인들은 글을 쓸 때, 우리의 좋은 말을 발굴하고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한국어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먼저 대내적으로 한국어가 국제적으로 손색없는 체계적인 언어가 되도록 정비해야 한다. 이렇게 국제적인 언어의 자격을 갖춘 뒤에는 대외적으로 세계에 우리말을 적극 보급해야 한다.
- ③ 세상에는 약 3,000개 이상의 언어가 있고, 400여 개의 문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언어에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글이 창제되지 않았다면 이들과 같이 문자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되었을 것이 틀림없다.
- ④ 우리가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언어의 본질을 파악해야만 한다. 언어의 본질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호성과 체계성이다. 이러한 면에 초점을 맞춰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 ⑤ 인간 생활의 큰 원칙은 언어생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한편으로는 남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평상시의 말을 주고받는 것은 주체성이 있고, 때로는 발랄하다는 장점이 있다.

[36~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 [아니리] “\*환자섭이나 타다가 자식을 살려 내알 것 아닌가?” “아이고, 우리 정상(情狀)에 지금 환자 떼먹고 도망간다고 주지 안 헐 터이니 함부레 가지 마시오.” “응, 요망시럽게. 아, 거, 무슨 일을 꼭 믿고 다닌가, 그러게? 사구일생 잡고 다니제. 내 갓 좀 내오소.” “갓은 어따 두었어요?” “아, 뒤안 \*귀뚝 속에 두었지.” “아이고, 어찌 갓은 귀뚝 속에다 두신단 말이요?” “그런 게 아니라, 신묘년에 조 대비 국상이 났는데, 어떠한 친구 한 분이 백립 하나를 주며 바닥이 존존허다고 나다려 곤쳐 쓰라 하데그려. 아, 이사람아, 내 정상에 지금 갓방에 땀겨 뜨지 해 쓸 수 있나? 꼬시럽에 꼬실러 쓸라고 거 귀뚝 속에다 두었지. 내 도복 좀 내오소.” “아이고, 도복은 어따 또 두셨소?” “아, 장 안에 두었지.” “아이고, 우리 집에 무슨 장이 있어요?” “지랄허고 있다. 시방. 닭의 장은 장이 아닌가? 덕석 구녁에 내 조대도 좀 내오고.” ㉠ 홍보가 차림채림을 차리는데,

[B] [자진모리] 철대 부러진 현 파립, 조새 갓끈을 달아 써, 편자 떨어진 현 망건, 갓풀 관자, 종이 당줄, 두 통 나게 졸라매고, 자락 떨어진 현 중추막, 열두 도막 이은 띠 흥복통 눌러 띠고, 세살부채를 손에다 들고, 복승씨로 선초 달아, 활활활활 부치면서, 죽어도 양반이라 여덱 ‘팔’ 자 걸음으로, 갈 ‘지’ 자 걸음으로, 이리저리 저리이리 이리요리 어식비식 내려오다가,

[아니리] 별안간 걱정이 하나 생겼었다. “\*환사 호방하고 인사할 일이 걱정이여. 하소를 하자니 내가 반남 박가 양반인디 내가 아식 밀지졌고, 하소를 하자니 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것이요, 이 일을 어찌꼬.” 하고 내려가다가 제 손수 자다 꿈 깨듯 허졌다. “웁다 생각했다. 내가 웃음으로 좀 따져 볼밖으.” ㉡ 질청 안을 썩 들어서니 아전들이 우 일어나며, “아니, 이거 여 박 생원 아니시오?” “헤헤헤, 알아맞혔구만 알아맞혀. 거 너 아이락하디? 환사 호방 다 덕내나 평안하시코? 헤헤헤.” “예, 우리야 다 편소마는. 박 생원 백씨장(伯氏丈) 기운 안녕하시오?” “헤헤헤, 우리 형님이야 여전하시제. 헤헤헤헤헤.” “아니, 박 생원 어찌 오셨소?” “환사 호방한테 문의가 있어 왔지마는 거 들으실지 않을지 모르지, 헤헤헤.” “무슨 문의요?” “권술은 많고 먹을 것이 없어서, 환자섭이나 주시면 갓다 먹고 가을에 착실히 갓어 드리지요마는, 거 주실지 않을지 모르지, 헤헤헤헤헤헤.” “아, 박 생원 백씨장이 부잔디 환자 자신단 말이 웬 말이요?” “형님의 것이라도 너머 여러 번을 갓다 먹고 보자니까, 헤헤, 염치가 없더구만, 헤헤헤헤헤.”

“그러실 것이요. 박 생원. 그러지 말고 품 하나 팔아 보실랴오?” “아, 돈 생길 품이면 팔고 말고.” “박 생원 곤장 여나뭇 맞아 보실랴오?” 홍보가 곤장 말을 듣더니마는 찻바닥이 뽕돌이채 돌아 단듯 하졌다. “아, 여보, 고을이라 찾아오니깐 별안간 곤장 말이 웬 말이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고을 좌수가 병영 영문에 잡혔는데, 좌수 대신으로 곤장 열만 맞으면 매삐은 한 개에 석 냥씩, 열 개면 서른 냥이요, 여그 누구든지 말 타고 다녀오라는 마삐 땃 냥까지 제직해, 그 일 한 번 해 보실랴오?” 홍보가 곰곰 생각해 보니, ㉢ 돈 삼십 냥을 가졌으면 일 년용이 풍족하고, 돈 또 땃 냥을 가졌으면 우선 호기(糊飢)가 될 듯하야, “여보시오, 그 일 어긋나잖게 하여 주시오. 내가 말 타고 다녀올 것도 없고 정쟁이 말로 가 다녀올 것이니 그 돈 땃 냥 날 내주시오.” “아 글랑 그리 하오.”

[중모리] ㉣ 저 아전 거동 보아라. 퀘문을 덜컥 열고 돈 땃 냥을 내어 주니 홍보가 받아들고, “나, 다녀오리다.” “예, 평안히 다녀오시오, 잉.” 박 홍보 좋아라고 질청 밖으를 썩 나서며, “얼씨구나, 얼씨구나, 돈 봐라, 도돈돈돈돈, 돈 봐라 돈. 이 돈을 눈에 대고 보면 삼강오륜이 다 보여도, 조끔 있다가 떼고 보면 보이난 게 돈 돈밖에는 또 있느냐? 얼씨구나 돈 봐라!” 저으 집으로 올라오며, ㉤ 떡국집으로 들어가서 떡국 돈 반어치를 사서 먹고, 막걸리 집으로 들어가서 막걸리 두 돈어치를 사서 먹고, 비지집으로 들어간다. “여보, 비지 장수. 비지를 돈 반어치만 주시오.” 구지러헌 음식을 사서 먹고, “대장부 한 번 걸음에 엽전 서른땃 냥이 떠들어를 간다.” 저으 집으로 들어오며, ㉥ “여보소, 마누라. 집안 가군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서 들어오면, 우루루루 쫓아 나와서 영접허는 게 도리 옹제, 계집이 이 사람아, 당돌히 앉어서 좌이부동이 어디 웬일인가? 예라, 이 사람, 몹쓸 사람.”

[중중모리] 흥보 마누라 나온다. 박 흥보 마누라 나온다.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소. 내 잘못 되었소. 이리 오시오. 이리 오라면 이리 와. 어디 돈, 어디 돈, 돈 봅시다, 돈 봐.” “놔 두어라, 이 사람아, 자네가 이 돈 근본 알겠나? 잘난 사람도 못한 돈, 못한 사람도 잘난 돈, 베개 너머는 춤 받는 돈, 돈돈돈, 돈 봐라! 이놈의 돈아, 아나 돈아,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얼씨구 돈 봐라.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봐!”

- 작자 미상, 「흥보가」(박봉술 창본)

- \* 환자섬 : 관가에서 백성에게 꾸어 주던 곡식
- \* 귀뚝 : 굴뚝
- \* 환사 호방 : 환자 일을 맡아 보던 아전

36. 위 글의 표현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의성어나 의태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다.
- ② 비속어와 방언 등 구어체의 언어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③ 내용적으로 연결되거나 비슷한 어구를 여러 개 늘어놓아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한자성어나 한시 등 한문 투의 표현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양반의 취향을 고려하고 있다.
- ⑤ 동일한 어구를 반복하거나 인물의 해학적 행동을 통해 청자의 웃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7. ㉠~㉡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구절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보 기>—

판소리는 창자가 무대 위에서 직접 청자를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의 구비 문학이다. 따라서 작품의 전개 과정에 창자가 개입하여 사건의 전개나 인물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견해나 해석, 판단을 직접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8. [A]에 대한 독자의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흥보 내외의 대화를 보니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남성과 대등했던 것 같아.
- ② ‘환자섬’ 이야기는 당대에 만연했던 관리들의 부패상을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③ 사실적으로 묘사한 흥보의 구차한 차림새를 보니 당대 민중들의 생활상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
- ④ 흥보의 우스꽝스러운 말과 행동은 생계를 외면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 ⑤ 현실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담을 늘어놓는 흥보의 모습이 우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안쓰럽기도 해.

39. <보기>의 설명을 참고했을 때, 장단이 [B]와 가장 가까운 것은? (3점)

—<보 기>—

‘장단(長短)’이란, 창자(唱者)가 창을 할 때 박자의 빠르기와 강약의 차이를 구별하여 연주하는 음악의 반주를 뜻하는 말로, 가장 느린 장단인 ‘진양조’로부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로 갈수록 빨라진다.

- ① 이편을 가리키며 강남 지방이요, 저편은 고소성이라. 구름 밖에 솟은 것은 동정호 칠백 리요, 하늘에 닿은 것은 이비의 한라산이라. 악양루(岳陽樓) 완경(玩景)허고 파륜, 군산 돌아드니 경계가 처처 그윽허구나. - 「수궁가」
- ② 잠이 깰까 염려 되어, 크게 울진 못하고, 속으로만 느끼는데, 아이고 아버지, 날 불 날이 몇 날이며, 날 불 밤이 몇 밤이나 되오. 제가 철을 안 연후에 밥 빌기를 놓았더니만은, 내일부터는 동리 걸인이 또 될 것이니, 아버지를 어찌고 갈고. - 「심청가」
- ③ 비어 내고, 아이고, 좋아 죽겠다. 팔 빠져도 그저 부어라, 부어라, 부어라, 부어라, 부어라, 부어라, 부어라, 부어라. 일 년 삼백육십 날만 그저 꾸역꾸역 나오너라. 부어라, 부어라, 부어라, 부어라. 팔 빠져도 그저 부어라, 부어라, 부어라, 부어라. - 「홍보가」
- ④ 지팽이 흘러 짚고 이리 더듬, 저리 더듬. 더듬더듬 더듬어 나가다가, 길 넘어 개천물에, 한 발 자칫 미끄러져, 거꾸로 물에 가, 풍 빠져노니, 아이고 도화동(桃花洞) 심학규 죽네. 나오려면 미끄러져, 풍 빠져 들어가고, 나오려면 미끄러져, 풍 빠져 들어가고, 나오려면 미끄러져, 풍 빠져 들어가고, 그저 점점 들어가니, 아이고, 정신도 말끔하고, 숨도 잘 쉬고 아픈 데 없이 잘 죽는다. - 「심청가」
- ⑤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수년의 가난이야. 잘 살고 못 살기는 묘 쓰기에 매였는가? 북두칠성님이 집 자리으 떨어칠 적에 명과 수복을 점지허는거냐?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 호가사로 잘 사는데 이년의 신세는 어찌허여 밤낮으로 별었어도 삼순구식을 헐 수가 없고, 가장은 부황이 나고, 자식들은 아사지경이 되니, 이것이 모두 다 웬일이냐?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 「홍보가」

40. ㉠에 나타난 ‘홍보’의 태도와 행동을 속담으로 표현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송충이가 갈밭에 내려왔다.  
 ② 상투가 국수버섯 솟는 듯하다.  
 ③ 잉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뛰다.  
 ④ 호랑이 없는 굴에서 여우가 왕 노릇한다.  
 ⑤ 저는 잘난 백정으로 알고 남은 현 정승으로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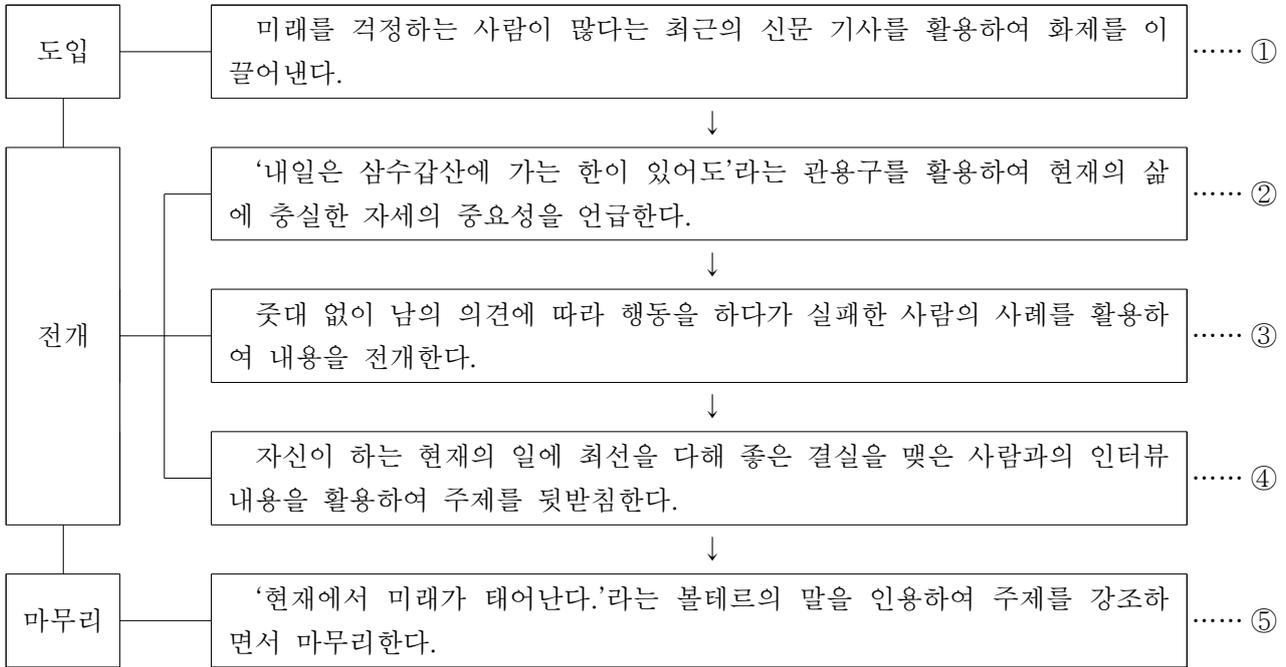


언어 영역 정답표

문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답	⑤	⑤	④	⑤	③	②	⑤	⑤	③	①	③	②	④	①	④	②	②	①	③	①
문항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정답	⑤	⑤	②	④	①	①	③	⑤	④	③	①	①	③	②	②	④	④	⑤	④	②



2.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현재에 충실하자’라는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한다. 구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3. <보기>는 학급 신문에 실을 ‘나의 가족 소개’라는 글의 초고이다.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저희는 일곱 명의 가족이 단독 주택에서 ㉠ 오손도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족 수가 많냐고요? 우리 집은 삼남매인데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거든요. 대가족인 셈이지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는 분들이 많을 텐데, 부러우실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는 집안의 어른으로 가풍을 세워 주시는 분이세요. 또 할머니는 참 자상하세요. ㉡ 저를 위해 간식과 방청소도 도와 주십니다. ㉢ 할머니 친구 분도 손자들에게 잘해 주신다더군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서 제 마음은 언제나 든든합니다.

맛별이를 하시는 부모님은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많이 애쓰십니다. ㉣ 그래서 참 바쁘신 중에도 다른 가족들이 필요한 것을 일일이 확인하시고 챙겨 주시곤 합니다. 주말에는 가족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를 마련하기도 하고요.

- ① ㉠은 맞춤법에 어긋나므로 ‘오순도순’으로 고쳐야겠어.
- ② ㉡은 필요한 성분이 누락되었으므로 ‘간식과’를 ‘간식도 챙겨주시고’로 고쳐야겠어.
- ③ ㉢은 글 전체의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 ④ ㉣은 앞뒤 문장의 연결을 고려할 때, ‘그런데’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어.
- ⑤ 글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나와 형제들’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도 추가해야겠어.

4. <보기>를 바탕으로 ‘부사어’에 관한 탐구 학습을 수행한 결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2점)

<보 기>

부사어는 문장의 부속 성분으로, 용언이나 관형어 또는 다른 부사어 같은 문장 성분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성분 부사어와, 문장 전체를 꾸며주거나 문장이나 단어를 이어 주는 역할을 하는 문장 부사어가 있다. 부사어는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은 아니지만, ‘다르다’나 ‘주다’와 같은 서술어가 사용된 문장의 경우에는 생략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된다.

- ㄱ. 장미가 참 예쁘다.
- ㄴ. 그는 아주 새 사람이 되었다.
- ㄷ. 그는 애인에게 반지를 주었다.
- ㄹ. 다행히 약속 시간에 늦지 않았다.
- ㅁ. 올해는 비가 참 많이 내린다.

- ① ㄱ의 ‘참’과 ㄹ의 ‘참’은 부사어를 수식하고 있다.
- ② ㄱ의 ‘참’과 ㄹ의 ‘다행히’는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은 아니다.
- ③ ㄴ의 ‘아주’와 ㄹ의 ‘다행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다.
- ④ ㄴ의 ‘아주’와 ㄷ의 ‘애인에게’는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사어이다.
- ⑤ ㄷ의 ‘애인에게’와 ㅁ의 ‘많이’는 용언을 수식하고 있다.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동서고금을 통해 볼 때, 이론과 실천의 문제는 학문뿐만 아니라 삶 자체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어 왔다. 삶에 있어서 실천만을 중시하면 더 나은 삶을 향해 추진력 있게 나아갈 수는 있겠지만, 시행착오의 고달픈 반복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반대로 이론만을 중시한다면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안목을 얻게 될지는 몰라도, 삶을 현실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론과 실천의 관계에서, 이론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했던 입장을 우리는 ㉠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실천적인 덕을 통하여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실천적인 덕은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만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실천적인 덕에 의해 선한 행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앞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론과 실천을 구분하고,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덕이 실천적인 덕에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이론을 중시하는 서구적 전통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 칸트는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앎은 감성의 틀과 오성의 틀에 의해서 형성되지만, 실천적인 행동은 이러한 형식적인 틀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앎은 일정한 틀과 제한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행동은 이 틀을 넘어서서 앎의 영역에 의미를 부여하고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엄밀한 수학 계산조차도 일정한 사회적, 종교적 또는 정치적인 행동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칸트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이론과 실천을 분리된 것으로 보았지만, 실천은 이론을 능가하는 동시에 이론보다 선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의 관점에 기초하여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진단해 볼 때, 현대는 극단적으로 이론이 우세한 듯하다. 이론에 근거한 서구적인 분석적 사고는 자연 과학 만능의 시대를 초래하였고 종래에는 하나의 분야를 이루고 있었던 예술, 종교, 학문 등도 서로 나누었으며, 사회마저 매우 다양한 계층들로 세분화하였다. 이렇듯 서구적인 삶의 방식이 다분히 이론적이라면 전통적으로 동양적인, 특히 한국적인 삶의 방식은 실천적인 것이었다.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사계절에 맞추어 사는 삶의 태도는 이론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 이후 서구 문물이 우리나라에 쏟아져 들어왔을 때 서구적인 분석적 사고 또한 밀려들어왔으며, 마침내 우리들의 삶의 방식조차 분석적인 사고에 물들어버리고 말았다.

앎의 세계와 행동의 세계를 서로 다른 것으로 볼 경우,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우선적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이론과 실천이 조화를 이룰 때만이 행복을 기약할 수 있다. 앎과 행동이 인간의 삶에서 전체적인 하나를 이루고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 비로소 이론은 실천의 근거를 제시하고 실천은 이론을 현실화시키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화로운 삶의 전체성이 구성될 때 우리들은 행복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다.

5.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한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이론과 실천의 문제는 학문에서 중요하게 거론되어 왔다.
- ② 앎의 세계와 행동의 세계는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이론과 실천이 조화를 이룰 때 인간은 행복한 삶을 기대할 수 있다.
- ④ 근대 이후 한국적 삶의 방식은 실천 중심에서 이론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 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이론과 실천 중 어느 것이 우선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6. ㉠과 ㉡의 견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은 이성적인 사고는 실천적인 덕을 통해서만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은 이론이 실천에 선행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이론을 중시하는 서구적 전통의 기틀이 되었다.
- ③ ㉡은 실천적 행동은 인간의 감성이나 오성의 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 ④ ㉡은 실천이 이론의 영역에 의미를 부여하며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보았다.
- ⑤ ㉠과 ㉡은 모두 실천과 이론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7. <보기>의 조건에 따라  에 들어갈 문장을 작성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 가. [A]에 나타난 논지의 흐름을 고려할 것.  
 나. 비유적 표현을 적절하게 활용할 것.  
 다. 대구의 형식을 취할 것.

- ① 이론이 실천의 근거를 제시한다면 실천은 이론을 현실화한다.
- ② 이론 없는 실천은 부실한 모래성이고 실천 없는 이론은 공허한 메아리이다.
- ③ 이론 없는 실천이 배고픈 소크라테스라면 실천 없는 이론은 배부른 돼지이다.
- ④ 이론과 실천의 관계에 대한 질문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질문과 같다.
- ⑤ 이론 없는 실천이나 실천 없는 이론은 이빨 빠진 호랑이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8~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밤의 식료품 가게  
 케케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복어들,  
 복어의 일 개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한 채의 허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병어리를 말한 셈이다.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복어들의 뺨뺨한 지느러미.  
 막대기 같은 생각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느닷없이  
 복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복어지 너도 복어지 너도 복어지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 최승호, 「복어」 -

(나)

㉠ 횃집 수족관 속 우글거리는 산낙지  
 푸른 바다 누비던 완강한 접착력의 빨판도  
 유리벽의 두루뭉실함에 부딪혀  
 ㉡ 전투력을 잊은 채 퍼질러앉은 지 오래  
 가쁜 호흡의 나날을 흐물흐물 살아가는 산낙지  
 주인은 부지런히 고무 호스로 뽀글뽀글  
 ㉢ 하루분의 산소를 불어넣어 준다.  
 산낙지를 찾는 손님들이 들이닥칠 때  
 여기 썩썩한 놈들이 있는덱쇼.  
 히히 제발 그때까지만 살아 있어 달라고  
 살아 있어 달라고  
 그러나, ㉣ 헉헉대는 그들의 숨통 속으로  
 단비처럼 달콤히 스며드는 저 산소 방울들은  
 ㉤ 진정 생명을 구원하는 손길인가  
 투명한 수족관을 바라보며 나는

투명하게 깨닫는다.  
산소라고 다 산소는 아니구나.  
저 수족관이라는 틀의 공간 속에는  
생명의 산소도  
아우슈비치의 독가스보다  
더 잔인하고 음흉한 의미로  
뽀글거리고 있는 것 아니냐.

- 유하, 「체제에 관하여」 -

(다)

깊은 산 협곡에서 산짐승과 산(山)사람의  
가파른 성품을 다독여 흐르는 물처럼 순치시키던  
나무들이,  
천지 사방 눈 씻고 보아도 흙 한 줌 안 보이는  
색유리와 시멘트의 도시  
거대한 빌딩 반질거리는 대리석 바닥  
이식(移植)되어 있다 때아닌 돌풍이라도 몰아치면 쓰러질세라  
몇 개의 지주목에 단단히 허리를 묶인 채.

썩썩, 양옆으로 질주해 가는  
날카로운 기계(機械)들의 굉음 속에서 불꽃 튀는 마찰을 일으키며  
그악스레 기심(機心)을 품고 살던  
나는 문득 저 검붉게 변색되어 가는 나무들에서  
눈길을 땔 수가 없다 색맹의 눈알을 껌벅이며 회전을 멈춘  
이 도시의 해와 달처럼 그 어디, 지향처가  
보이지 않는다 물과 산에 깃든 덕(德)을 버리고  
안팎으로 소용돌이치는 욕망의 물결을 따라  
거대한 인간 뗏목에 동승한 내가 가 닿아야 할 곳은

도대체 어디일까 목발을 짚고 선 듯  
지주목에 기대어 마지막 가쁜 숨을 헉헉 몰아쉬는 저 가련한 길벗은  
차라리 은둔하라, 은둔하라, 일러주는 듯싶지만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황색의 차선에 이미 들어선  
나는, 썩썩 검은 사신(死神)의 위세에 맞물려 돌아가는  
작디작은 톱니바퀴가 되어 구르고  
잠시 품어본 나무의 마음엔 목마른 톱밥만 가득 내려 쌓이고.

- 고진하, 「나무와 기계의 마음」 -

### 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와 (나)는 이기주의로 인해 단절된 인간관계의 회복을 염원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일상에서 관찰한 대상을 통해 현대인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물질문명으로 인하여 자연이 파괴되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 ④ (가)~(다) 모두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소망하고 있다.
- ⑤ (가)~(다) 모두 물질적 욕망 때문에 인간성이 상실되는 현실을 한탄하고 있다.

9.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중심 소재의 외적 속성을 시상 전개에 활용하고 있다.
- ②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③ 동일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 ④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갑작스러운 시상 전환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다.

10. (나)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독자가 정리하였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보 기>	
산낙지가 수족관에서 숨을 헐떡이며 퍼질러 앉아 흐물거리고 있다.	..... ①
↓	
횃집 주인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산소를 산낙지에게 공급한다.	..... ②
↓	
횃집 주인은 손님이 올 때까지 산낙지가 살아 있기를 바란다.	..... ③
↓	
이익 추구만을 생각하던 횃집 주인은 산소의 진정한 의미를 비로소 깨닫는다.	..... ④
↓	
기능이 변질된 산소는 독가스보다 더 잔인하고 음흉한 의미를 지닌다.	..... ⑤

11. (다)를 감상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문명의 굴레와 속도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안타까워하고 있군.
- ② 인간의 욕망보다 자연의 덕에 따르는 삶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군.
- ③ 인간의 이기적 속성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소외 계층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군.
- ④ 나무가 현재와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인간이 물질문명에 파묻혀 살아왔기 때문이군.
- ⑤ 욕망 때문에 지향점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현재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군.

12. (다)에서 ㉠~㉤에 대응하는 시구를 찾아보았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 대리석 바닥
- ② ㉡ : 소용돌이치는 욕망의 물결
- ③ ㉢ : 몇 개의 지주목
- ④ ㉣ : 가련한 길벗
- ⑤ ㉤ : 물과 산에 깃든 덕(德)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대에는 범죄에 대해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사적 제재인 복수가 행하여졌다. 그러나 복수는 일회적인 제재에 그치지 않고 꼬리를 문 복수의 연쇄를 낳는다. 이러한 사적 복수가 공적 형벌로 ㉠ 대치된 것은 인류 문명이 이론 커다란 진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적 형벌은 국가가 완전히 독점하게 되었다. 끝없는 피의 복수는 법적 평화를 근본적으로 파괴한다는 점에서 공정한 중립적 권력으로서의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왜 형벌을 가하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관점을 살펴보자.

형벌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적으로, ‘악에 대한 악’으로서 부과된다는 ‘응보론’이 있다. 이러한 견해를 표명한 대표적인 사람은 칸트이다. 그는 이성적이고 자유로운 인간을 전제로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하라고 주장하였다. 형벌의 경우에도 인간에게 형벌을 가함으로써 다른 어떤 목적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반대하였다. 따라서 형벌은 자기 목적적이어야 하며, 형벌의 질과 양은 저지른 해악과 똑같은 해악, 즉 응보로서의 ‘동해보복(同害報復)’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함으로써 일반인이 두려움을 느껴 범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형벌은 부과되는 것이라고 보는 ‘일반 예방론’이 있다. 근대적 형태의 일반 예방론은 벤담의 공리주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벤담은 인간을 쾌를 추구하고 불쾌를 피하는 존재로 ㉢ 상정하고, 쾌와 불쾌의 계산을 통해 쾌가 큰 방향으로 행위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였다. 범죄와 관련하여서도 ‘범죄를 통하여 얻는 쾌’와 ‘형벌을 통하여 얻는 불쾌’를 비교하여 헤아려 봄으로써 공리 계산을 하는 것이 인간이란 점을 이 이론은 전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형벌은 범죄자 자신이 장래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삶을 ㉣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과된다는 ㉤ ‘특별 예방론’이 있다. 플라톤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처벌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형벌은 범죄자 자신의 속죄, 개과천선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론의 입장에서 서 있는 사람들은 인간 행동의 결정 인자들은 행위자의 심리적 태도, 행위자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등 여러 측면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를 토대로 이들은 범죄에 대한 대응책은 범죄자로부터 일정한 법익을 박탈하는 형벌이 아니라, 이러한 결정 인자의 제거 내지 개선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범죄자가 갖는 위험성이 개선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고, 개선 가능한 경우에는 범죄자의 심리나 사회적 환경의 교정,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한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하였다.

오늘날에는 이 세 가지 관점을 절충하여 형벌을 정당화하고 있다. 우선 응보론은 형벌 부과 대상과 형벌의 상한을 설정해 주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이 상한의 범위 내에서 형벌의 종류와 내용을 구성하는 데는 일반 예방론과 특별 예방론의 관점이 원용되고 있다. 이렇듯 형벌의 목적에 관한 논의는 단순히 관념상의 관심사가 아니라 형사제도를 구성하고 ㉥ 운용하는 데에 중요한 현실적 의미를 갖고 있다.

13. 위 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형벌 집행의 효과와 부작용
- ② 형벌 이론의 변천 과정과 현황
- ③ 형벌과 범죄 예방과의 상관관계
- ④ 국가에 의한 형벌권의 근거와 정당성
- ⑤ 형벌의 목적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의의

14. 위 글에 <보기>의 내용을 추가하려 할 때, 그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형벌은 사람들에게 그 사회의 법질서가 언제나 유지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 준다. 비록 범죄로 인하여 법질서가 침해될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형벌은 언제나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형벌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생각이 들게 하여 범죄 욕구를 억제한다는 것이다.

- ① 응보론의 입장에서 그 단점을 보완하는 데 활용한다.
- ② 일반 예방론의 관점을 옹호하면서 그 주장을 강화하는 데 활용한다.
- ③ 특별 예방론의 견해를 다른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데 활용한다.
- ④ 기존의 이론과 상반된 새로운 견해를 보여주는 데 활용한다.
- ⑤ 기존의 이론을 절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제시하는 데 활용한다.

15. <보기>에 대한 반응 중, ㉠과 관련이 깊은 것은? (3점)

<보 기>

15세인 오○○는 소년 가장이다. 2년 전 그의 부모님이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그는 노환으로 몸이 불편한 할머니와 두 동생과 함께 단칸방에서 살고 있는데, 국가에서 지급하는 생활 보조금으로는 할머니의 약값을 대기도 버거웠다. 어느 날 그는 배가 고프다고 조르던 동생들의 모습이 떠올라 자기도 모르게 가게에서 빵을 훔쳤다. 주인에게 발각된 그는 결국 법정에서 서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기사화 되자 소년을 돕겠다는 도움의 손길이 줄을 이었다.

- ① 법의 적용에 예외를 두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소년이 범한 죄에 상응하는 형량을 부과해야 한다.
- ② 가게 주인이 입은 손해에 해당하는 만큼을 소년이 보상하게 하는 정도에서 서로 합의하게 해야 한다.
- ③ 다른 사람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소년은 법에 규정된 대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 ④ 불우한 환경에서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주위의 도움이 있어 재범의 우려도 없으므로 훈방 조치해야 한다.
- ⑤ 소년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므로 소년으로 하여금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16.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 :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음.
- ② ㉡ : 일정한 책임이나 일을 부담하여 맡게 함.
- ③ ㉢ :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
- ④ ㉣ : 일을 꾸려 나감.
- ⑤ ㉤ : 무엇을 움직이게 하거나 부리어 씬.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장 시량의 아들 갑준은 김씨와 혼인하지만, 첫날밤에 괴한에게 살해당한다. 누명을 벗기 위해 김씨는 남장을 하고 집을 나와 갑준의 계모 유씨 부인이 범행을 사주했음을 밝혀낸다. 장 시량은 유씨 부인을 죽이고 세상을 등진다. 한편, 유복자를 낳은 김씨는 혼자 힘으로 집안을 다시 일으킨다. 그 후 숨어살던 장 시량을 찾아 집으로 모셔와 지성으로 봉양하여 시아버지인 장 시량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김씨는 장 시량의 외로움을 덜어주고자 화씨를 첩으로 맞아들이게 한다.

화씨가 이미 장 시량의 사랑함을 입어 별실의 지위에 이르니, 김씨에게 서모(庶母)라. 대가(大家)의 권세를 잡지 못하므로 분하고 답답한 마음이 많으나 김씨의 정성이 지극하고 행동거지가 엄숙하니 감히 누를 길이 없고, 또한 장 시량에게 이간질도 경솔히 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욱 조심하여 저의 도리를 극진히 하니, 그 마음을 아는 이 없더라.

속담에 이르기를 ( ㉠ ) 하더니, 화씨가 김씨의 은혜를 입고 겸하여 어려서부터 한가지로 성장하여 정의가 친밀한지라, 그 속에 다른 뜻이 있을 줄이야 귀신인들 어찌 알겠느냐. 겸하여 평일에 안색이 화평하고, 언어가 공손하며, 행동이 유순하고, 정의가 더욱 친밀하게 지내니 조금도 의심할 이 없더라.

차설, 장 시량의 후취\* 유씨 부인의 동생이 있으니 이름은 득룡이라. 학업에 힘써 문식이 유명하더니, 경사에 올라가 과거하여 일찍이 청운에 득의하여 임금을 섬겨 공명에 나아가 있을 제, 그때에 유씨 부인의 상변(喪變)\*을 듣고 심히 참혹하고 괴이하다고 여기더라.

이때에 관동 태수를 제수하시매 가히 금상첨화라. 관부에 도입한 후에 장 시량으로 종종 왕래하거늘, 화씨가 은근히 헤아리되, / ‘이는 천재일시(千載一時)의 기회라.’

이에 은근히 밖으로 유 태수와 은밀히 결탁하고 안으로는 장 시량의 뜻을 받기를 더욱 힘써 ㉡ 김씨의 권세를 빼앗으려 하여 먼저 태수에게 기별하기를,

“이왕 유씨 부인의 죽음은 진실로 원통하니, 그 실상은 김씨의 사특함이 많은데, 다만 장 시량이 후덕하고 자애하기로 속음을 깨닫지 못함이라. 다른 날 이를 듣고 보면 차차 아오실 일이 있으리이다.”

이르니, 유 태수 본디 유씨 부인의 사적이 모호함을 의심하여 혹 원통함이 있는가 짐작하였더니, 이때 화씨의 말을 듣고는 더욱 의심하더라.

하루는 화씨가 장 시량의 침석에서 한가로이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유씨 부인의 말이 나오는지라. 화씨 참담한 기색을 띠어 은근히 탄식하다가 말하되,

“세상일이 증거라 하는 것도 없지 아니한 것이로다. 유씨 부인인들 지하에서 어찌 원통하지 아니하리오.”

장 시량이 그 말의 뜻을 다시 물은즉, 화씨 백배 사죄하여 아뢰기를,

“경솔히 발한 말이니 과연 뜻이 없거늘, 이와 같이 다시 물으시니, 그 죄가 죽기를 청하나이다.”

장 시량이 강박하지 못하여 묻기를 그치고 지나간 일을 낱낱이 생각한 뒤 말하기를,

“갑준의 머리를 비록 광에서 찾았으나 내 일찍이 유씨 부인에게는 한 말도 문초한 것 없이 죽인 것이 너무 촉급하였도다. 경솔함을 면하지 못하리로다.”

이와 같이 반복하여 생각할 적에 화씨가 잠든 줄 알고 탄식하다가 촉급하고 경솔함을 한탄함이 부지중에 입 밖에 나거늘, 화씨가 그제야 장 시량이 김씨를 의심하는 마음을 짐작하고,

‘이제는 내 계교를 행하리라.’

이 생각으로 때때로 김씨의 단점을 찾아내 만들 새, 매양 제 입으로 바로 일컫지도 아니하며, 장 시량에게 바로 말하지도 아니하고, 반드시 사람을 시켜 장 시량의 귀에 들어가면 의심될 만큼 과거의 이야기를 하니, 과연 장 시량이 의심되는 사단이 점점 깊어 전후의 일을 생각해 본즉, 신혼 여자가 남복으로 나서서 주막에 주유한 일도 규중 부녀의 행사가 아니요, 또한 다시 남복으로 주유팔방(周遊八方)\*한 일도 여자로서는 못할 일이라. 생각할수록 두려운 마음이 일어 평일에 사랑하던 마음이 풀린 즉, 자연히 사색이 이전과는 사뭇 다른지라.

이로부터 화씨가 틈을 얻어 날마다 간교한 말로 참소(讒訴)하되,

“어린 신랑이 첫날밤을 다 지내지 못하였는데, 수태하여 남아를 낳은 것이 천하에 희한한 일이라.”

겉으로는 좋은 말로 하나 속으로는 의심이 되게 한즉, 장 시랑이 점점 의심이 깊어 유복자인 해룡도 진정 손자로 알지 않으니, 김씨 그 사색을 짐작하고 분한 마음이 측량할 길 없으니, 하늘과 땅에 두고 하소연하며 귀신에게나 증거할 일이라.

즉시 자결하여 세상을 잊고자 하다가 다시금 생각한즉, 경솔히 죽으면 의심이 더욱 들어 누명이 중할지라. 억지로 잔명(殘命)을 보전하고 있다가, / ‘무슨 생각이 있으리오.’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탄식으로 일을 삼아, 하늘이 무심하심을 원망하더라.

\* 후취(後娶) : 두 번째 부인을 얻음.

\* 상변(喪變) : 사람이 죽은 사고

\* 주유팔방(周遊八方) : 팔방으로 두루 돌아다님.

- 작자 미상, 「김씨열행록」 -

17. 위 글에 드러난 핵심 갈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집안의 권세를 둘러싼 김씨와 화씨의 갈등
- ② 김씨의 행적을 둘러싼 장 시랑과 화씨의 갈등
- ③ 계모 유씨 부인과 전실 자식인 갑준 사이의 갈등
- ④ 며느리의 행적을 의심하는 장 시랑과 김씨의 갈등
- ⑤ 유씨 부인의 죽음과 관련된 장 시랑과 유 태수의 갈등

18. 위 글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유씨 부인은 장 시랑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인물이다.
- ② 유 태수는 불의한 방법을 이용하여 출세하려는 인물이다.
- ③ 장 시랑은 주관이 뚜렷해 남의 말에 쉽게 현혹되지 않는 인물이다.
- ④ 김씨는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의 신분적 한계를 타파하려는 인물이다.
- ⑤ 화씨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다.

19. 이어지는 내용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② 내 밥 먹은 개가 발뒤축을 문다.
- ③ 내 배 부르면 종의 밥 짓지 말라 한다.
- ④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 ⑤ 오랜 원수를 갚으려다가 새 원수가 생겼다.

20. ㉡을 위해 화씨가 사용한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2점)

- ① 유 태수로 하여금 유씨 부인의 죽음에 의혹을 품도록 부추기기
- ② 장 시랑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김씨와 가식적으로 친한 척하기
- ③ 김씨의 단점을 찾아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장 시랑에게 전달하기
- ④ 유복자로 태어난 손자 해룡의 비행을 들춰내어 장 시랑에게 고자질하기
- ⑤ 말실수를 가장하여 장 시랑으로 하여금 지난날의 경솔함을 후회하도록 만들기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문화는 ‘생활양식’ 또는 ‘인류의 진화로 이룩된 모든 것’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언어는 문화의 하위 개념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는 문화의 하위 개념에 속하면서도 문화 자체를 표현하여 그것을 전파, 전승하는 기능도 한다. 이로 보아 언어에는 그것을 사용하는 민족의 문화와 세계 인식이 녹아 있다고 할 수 있다.

[A] 가령 ‘사촌’이라고 할 때, 영어에서는 ‘cousin’으로 이를 통칭(通稱)하는 것을 우리말에서는 친·외·고종·이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친족 관계에 대한 표현에서 우리말이 영어보다 좀 더 섬세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친족 관계를 좀 더 자세히 표현하여 차별 내지 분별하려 한 우리 문화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영어권 문화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문화에 따른 이러한 언어의 차이는 낱말에서만 아니라 어순(語順)에서도 나타난다. 우리말은 영어와 주술 구조가 다르다. 우리는 주어 다음에 목적어, 그 뒤에 서술어가 온다. 이에 비해 영어에서는 주어 다음에 서술어, 그 뒤에 목적어가 온다. 우리말의 경우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나’와 ‘너’를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을 밝히는 것에 비하여, 영어에서는 ‘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이 나온 뒤에 목적어인 ‘너’가 나온다. 이러한 어순의 차이는 결국 나의 의사보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먼저 보이는 우리들과, 나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먼저인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을 대우하는 것에서도 이런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영어에서는 ‘You do it, please.’라고 하고, 우리말에서는 ‘할아버지께서 해 주세요.’라고 한다. 영어에서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상대방을 가리킬 때 ‘You’라는 지칭어를 사용하고, 서술어로는 ‘do’를 사용한다.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상대방을 가리킬 때, 무조건 영어의 ‘You’에 대응하는 ‘당신(너)’이라는 말만을 쓰는 것은 아니고 상대에 따라 지칭어를 달리 사용한다. 뿐만 아니라, 영어의 ‘do’에 대응하는 서술어도 상대에 따라 ‘해 주어라, 해 주게, 해 주오, 해 주십시오, 해 줘, 해 줘요’로 높임의 표현을 달리한다. 이는 우리말이 서열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유교 문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는 단순한 음성 기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앞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문화가 용해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한국어라는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구상에 있는 여러 언어 가운데 개별 언어 한 가지를 쓴다는 사실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어에는 우리 민족의 문화와 세계 인식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말에 대한 애정은 우리 문화에 대한 사랑이요, 우리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일 것이다.

2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점)

- ① 언어는 문화를 표현하고 전파, 전승하는 기능을 한다.
- ② 문화의 하위 개념인 언어는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③ 영어에 비해 우리말은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 다양하다.
- ④ 우리말에 높임 표현이 발달한 것은 서열을 중시하는 문화가 반영된 것이다.
- ⑤ 우리말의 문장 표현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의 생각을 우선시한다.

22. 위 글의 글쓴이가 <보기>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보 기>

세계화 시대에 영어를 모르면 국제 사회에서 제대로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출이 경제 활동의 근간인 우리나라의 경우 영어를 못하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영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영어를 공용어로 삼아야 합니다.

- ①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견해도 일리가 있습니다.
- ② 영어를 공용어로 삼는다면 외국인들도 쉽게 우리 문화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신의 주장에 찬성합니다.
- ③ 언어는 단순히 의사 표현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말대로 했다가는 우리의 민족 문화는 위태로워질 겁니다.
- ④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한두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 ⑤ 영어를 공용어로 한다고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어 교육을 잘 시키면 되지, 굳이 영어를 공용어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23. [A]와 유사한 예를 추가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우리가 ‘집’이라 부르는 것을 미국인들은 ‘house’, 중국인들은 ‘家’, 프랑스인들은 ‘maison’이라는 말로 지칭한다.
- ② 쌀을 주식으로 했던 우리는 ‘쌀’, ‘벼’, ‘밥’을 구별해서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영어권에서는 이를 뜻하는 단어로 ‘rice’ 하나만을 사용한다.
- ③ 우리말 ‘섬’을 중세 국어에서는 ‘섬[섬]’, 고대 일본어에서는 ‘しま[시마]’로 발음하였다. 이로 보아 우리말과 일본어는 친근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영어의 ‘milk’는 1음절 어휘인데, 우리말은 음절 구조상 음절의 끝소리에 자음과 자음이 연속하여 올 수 없다. 따라서 우리말에서는 모음 ‘ㅡ’를 첨가하여 2음절인 [밀크]라고 발음한다.
- ⑤ 영문법에 따르면 ‘The three beautiful flowers’는 가능하지만 ‘The beautiful three flowers’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말에서는 ‘세 송이 아름다운 꽃’이나 ‘아름다운 세 송이 꽃’이나 모두 사용할 수 있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 손가락에 붙이는 밴드가 매끄러운 피부에 잘 붙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쿨롱의 힘이 작용하려면 전자가 남거나 모자란 상태의 이온처럼 물체가 전하를 띠어야 한다. 그렇다면 밴드도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인가? 물 분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에 대해 살펴보자.

물 분자는 수소 원자 두 개가 하나의 산소 원자 양쪽에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산소를 중심으로 104.5도로 꺾여 있어 마치 부메랑처럼 생겼다. 그런데 물 분자 안에 들어 있는 전자는 산소와 수소의 ㉠ 전기음성도 차에 의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전기음성도는 특정 원자가 화학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값으로 산소 원자의 전기음성도는 수소 원자의 전기음성도보다 크다. 따라서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은 대칭적이지 않고, 전자가 산소 원자 쪽으로 쏠려 산소 원자 부근에는 음전하가, 수소 원자 부근에는 양전하가 만들어진다.

물 분자처럼 공유결합에서 전자가 한쪽으로 쏠려 분자 하나가 양전하와 음전하로 갈려있는 상태를 쌍극자라 한다. 그리고 분자 안에서 양전하와 음전하가 생기는 정도를 ㉡ 쌍극자모멘트라 한다. 쌍극자모멘트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는 벡터량이다. 따라서 각 쌍극자가 만드는 쌍극자모멘트의 벡터합을 구하면 분자 전체의 극성을 알 수 있다. 부메랑 구조를 가진 물 분자의 쌍극자모멘트 합을 구해 보면 산소 원자 쪽이 음전하를 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 분자처럼 쌍극자모멘트의 합에 의해 극성이 생기는 분자를 극성분자라 한다.

분자에 극성이 생겼으니 이제 쿨롱의 힘을 이야기할 수 있다. ㉢ 극성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은 막대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다. 막대자석은 N극과 S극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개의 반대되는 성질이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으니 극성분자처럼 쌍극자가 있는 셈이다. 막대자석 여러 개를 이어 붙여 큰 구조물을 만든다고 해 보자.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끌어당기므로 N극과 S극을 이어 붙여야 한다. 극성분자인 물도 마찬가지다. 양전하를 띤 수소 원자는 다른 물 분자의 음전하를 띤 산소 원자 쪽에 가까워지려고 한다.

그런데 공유결합의 힘보다는 약하지만, 극성분자는 ㉣ 쌍극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자들을 적절히 배치하면 분자들 사이에 쿨롱의 힘이 작용한다. 이처럼 극성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을 ㉤ 쌍극자간 힘이라 부른다. ㉥ 극성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은 물질의 점성이나 상태를 결정한다. 예컨대 물 분자들이 쌍극자간 힘으로 촘촘히 결합되어 있으면 얼음이 되고 물 분자 사이의 결합이 느슨해지다가 끊어지면 수증기가 된다.

밴드의 접착력도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밴드의 접착면은 극성을 강하게 ㉦ 띠는 고분자물질로 처리되어 있어 피부에 잘 붙는다. 밴드가 떨어지는 이유는 밴드와 피부를 이루는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이 둘을 떨어뜨리려는 외부의 힘에 비해 약하기 때문이다. 밴드 외에도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분자간 힘이 작용하는 현상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순간접착제로 깨진 그릇을 붙일 수 있는 이유도 순간접착제와 그릇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 사이의 힘이 손으로 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기 때문이다.

2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특수한 현상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 ② 새로 발견된 과학 원리의 응용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 ③ 사례들의 공통점을 추출하여 보편적 원리를 도출하고 있다.
- ④ 현상의 과학적 원리를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고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예측하고 있다.

2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 : 특정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와 관련이 있다.
- ② ㉡ : 분자 전체의 극성을 알 수 있게 하는 척도가 된다.
- ③ ㉢ : 쌍극자모멘트에 의해 극성이 생긴 분자를 말한다.
- ④ ㉣ : 공유결합에서 전자가 한쪽으로 쏠려 나타나게 되는 상태다.
- ⑤ ㉤ : 극성이 없는 분자 사이에도 작용한다.

26. ㉠의 원리를 활용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프라이팬에 음식물이 잘 들러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프라이팬 표면을 분자간 힘이 매우 작은 테플론이라는 물질로 코팅하였다.
- ② 섬유 올 하나하나에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수많은 돌기를 달아서 물방울이 퍼지지 못하고 표면에 맺히도록 하는 방수 옷감을 만들었다.
- ③ 녹차 티백의 경우 내용물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여 깔끔하게 우려내기 위해서 표면에 미세한 기공이 있는 마닐라삼을 재료로 사용하였다.
- ④ 물체와 부딪쳤을 때의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속철도 앞부분에 강도가 뛰어난 육각형 구조의 벌집처럼 생긴 충격 완화 장치를 장착하였다.
- ⑤ 벨크로 테이프는 마음대로 붙였다 떼었다를 할 수 있도록 한쪽 면에는 끝이 휘어진 수많은 갈고리들을, 다른 면에는 둥근 고리들을 달아놓았다.

27. ㉠와 문맥적 의미가 유사한 것은? (2점)

- ① 일에 전문성을 띠지 않으면 성공하기 쉽지 않다.
- ② 미소를 띤 얼굴을 본 순간 화를 낼 수 없었다.
- ③ 그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작전에 투입되었다.
- ④ 노기를 띤 그의 얼굴을 보자 말문이 막혔다.
- ⑤ 그는 흥조를 띤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칩칩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 겹겹 봉우리 올리니,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도 분간키 어려워라.  
늘 시비(是非)하는 소리 귀에 들릴세라,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 버렸다네.

狂奔疊石吼重巒  
人語難分咫尺間  
常恐是非聲到耳  
故教流水盡籠山

- 최치원, 「제가야산독서당(題伽倻山讀書堂)」 -

(나)

춘사(春詞) 6

夕석陽양이 빛겨시니 그만하야 도라가자  
돈 디여라 돈 디여라

岸안柳류汀정花화\*는 고비고비 새롭고야

㉠ 至지匆국惣총 至지匆국惣총 於어思사臥와  
삼공(三公)을 불리소냐 만사(萬事)를 싱각하랴

하사(夏詞) 2

㉡ 년넝희 밥 싸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라  
달 드리라 달 드리라

靑靑籊약笠笠은 써 잇노라 綠녹蓑사衣의 가져오냐

至지匆국惣총 至지匆국惣총 於어思사臥와

㉢ 無무心심흔 白백鷗구는 내 좃는가 제 좃는가

추사(秋詞) 4

그리기 떴는 밧기 못보던 뵈 뵈는고야

이어라 이어라

낙시질도 흐려니와 取취흔 거시 이 흥흥이라

至지匆국惣총 至지匆국惣총 於어思사臥와

㉣ 夕석陽양이 빛이니\* 千천山산이 錦금繡수로다

동사(冬詞) 8

㉤ 물ㄹ의 외로운 술 혼자 어이 식식히고

빅 킷여라 빅 킷여라

머흔 구름 한티 마라 세상을 ㄹ리온다

至지匆국惣총 至지匆국惣총 於어思사臥와

波과浪랑聲聲을 厭염티 마라 塵진喧喧\*을 막는도다

\* 岸안柳류汀정花화 : 강가의 버드나무와 물가의 꽃

\* 빛이니 : 눈이 부시니

\* 塵진喧喧 : 티끌과 악자지껄함, 즉 세속의 소리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

(다)

이러한 때—푸른 하늘과 찬란한 태양이 있고, 황홀한 신록이 모든 산, 모든 언덕을 덮는 이 때, 기쁨의 속삭임이 하늘과 땅, 나무와 나무, 풀잎과 풀잎 사이에 은밀히 수수(授受)되고, 그들의 기쁨의 노래가 금시라도 우렁차게 터져 나와, 산과 들을 흔들 듯한 이러한 때를 당하면, 나는 곁에 비록 친한 동무가 있고, 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연에 결눈을 팔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의 기쁨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란—세속에 얽매어,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머니의 돈을 세고, 지위를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는 데 여념이 없거나, 또는 오욕 칠정에 사로잡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데 마음에 영일(寧日)\*을 갖지 못하는 우리 사람이란, 어떻게 비소(卑小)하고 어떻게 저속한 것인지. 결국은 이 대자연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조화를 깨뜨리는 한 오점 또는 한 잡음밖에 되어 보이지 아니하여,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때를 타, 잠깐 동안이나마 사람을 떠나, 사람의 일을 잊고, 풀과 나무와 하늘과 바람과 한가지로 숨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사실 이즈음의 신록에는, 우리 사람의 마음에 참다운 기쁨과 위안을 주는 이상한 힘이 있는 듯하다. 신록을 대하고 앉으면, 신록은 먼저 나의 눈을 씻고, 나의 머리를 씻고, 나의 가슴을 씻고, 다음에 나의 마음의 모든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씻어 낸다. 그리고 나의 마음의 모든 티끌—나의 모든 욕망과 굴욕과 고통과 곤란—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다음 순간, 별과 바람과 하늘과 풀이 그의 기쁨과 노래를 가지고 나의 빈 머리에, 가슴에, 마음에 고이고이 들어앉는다. 말하자면, 나의 흥중에도 신록이요, 나의 안전(眼前)에도 신록이다. 주객일체, 물심일여(物心一如)라 할까, 현요(眩耀)\*하다 할까. 무념무상(無念無想), 무장무애(無障無礙), 이러한 때 나는 모든 것을 잊고, 모든 것을 가진 듯이 행복스럽고, 또 이러한 때 나에게서는 아무런 감각의 혼란도 없고, 심정의 고갈도 없고, 다만 무한한 풍부의 유열(愉悅)\*과 평화가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또, 이러한 때에 비로소 나는 모든 오욕과 우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고, 나의 마음의 모든 상극과 갈등을 극복하고 고양하여, 조화 있고 질서 있는 세계에까지 높인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 영일(寧日) : 일이 없이 평화스러운 날

\* 현요(眩耀) : 눈부시고 찬란함.

\* 유열(愉悅) : 유쾌하고 기쁨.

- 이양하, 「신록 예찬」 -

## 2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와 (나)에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드러나 있다.
- ② (가)와 (다)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자세가 드러나 있다.
- ③ (나)와 (다)는 세속적 욕망과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④ (가)~(다) 모두 자연의 순수함과 인간의 비속함을 대조하고 있다.
- ⑤ (가)~(다) 모두 유유자적하게 자연에 묻혀 사는 흥취가 드러나 있다.

29. <보기>를 참고할 때, (가)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최치원은 열두 살에 당나라에 유학하여 열여덟 살에 과거에 급제한 후 뛰어난 문장가로 인정받았다. 이후 당에서 귀국한 그는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경륜을 펴 보려 하였다. 그는 육두품으로서의 최고의 관직인 아찬에 올라 개혁에 힘썼지만 사회 모순을 외면하던 진골 귀족은 이를 받아들여려 하지 않았다. 자신의 충정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그의 실망과 좌절은 아주 컸다. 그는 40여 세에 관직을 버리고 은거의 길을 택했다.

- ① ‘산’은 시적 화자가 은거하는 공간이 되겠군.
- ② 시적 화자가 은거하려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군.
- ③ ‘시비하는 소리’를 차단하고 싶은 심리가 드러나 있군.
- ④ 뜻을 펼치지 못한 시적 화자가 선택한 길은 결국 현실 도피군.
- ⑤ 개혁을 외면하는 현실을 ‘말소리도 분간키 어려워라’라고 표현했군.

30.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 : 의성어를 사용하여 현장감과 사실감을 유발하고 있다.
- ② ㉡ :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 자연과 합일된 경지가 나타나 있다.
- ④ ㉣ : 자연의 아름다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 : 화자와 대조적인 자연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31.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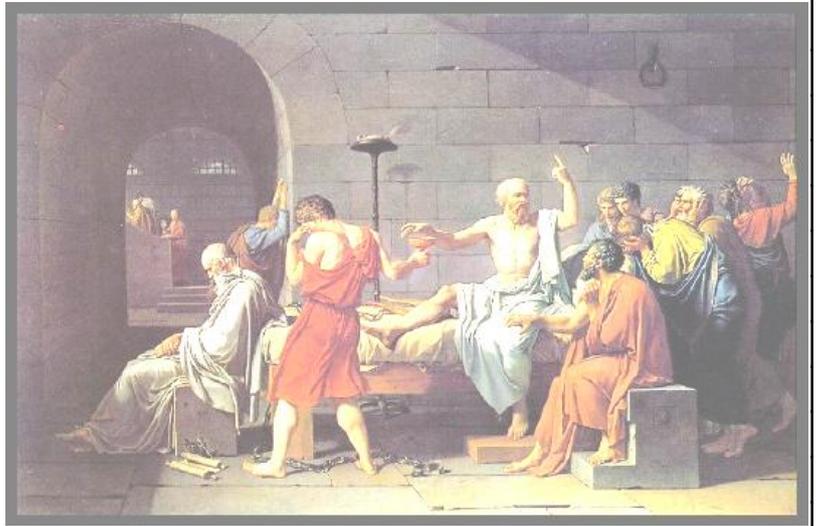
- ① 신록이 주는 혜택을 간결한 문장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신록을 대한 후의 정화(淨化)된 경지가 나타나 있다.
- ③ 신록과 함께 하는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 ④ 신록과 대비되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신록에 인격을 부여하여 표현하고 있다.

32. (나)의 시어 중, 물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은? (2점)

- ① 삼공(三公)
- ② 靑淸籟약筩립
- ③ 그러기
- ④ 낙시질
- ⑤ 波과浪랑聲성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옆의 그림은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용감하게 독약을 마시기 바로 직전 상황을 그린 ㉠ 다비드의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작품이다. 당시 상황을 마치 사진으로 찍은 듯이 실감나게 화폭에 담았다. 마지막 연설을 하는 듯한 소크라테스와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은 연극배우처럼 각자의 슬픔을 다양한 포즈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고전주의 화가는 각각의 인물들이 개별적인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전체를 이루는 부분으로서 서로 긴밀하게 조직될 수 있도록 인물들의 연기를 연출하고 있다.



화면 전체의 색채와 명도를 살펴보자. 화면의 가운데 부분은 밝고 그 주변은 매우 어둡다. 그래서 마치 조명을 비추고 있는 연극 무대처럼 화면 가운데 있는 인물들이 두드러진다. 인물들은 대개 빨간색이나 노란색 계통의 밝은 색이나 따뜻한 색으로 되어 있고, 배경 건물이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두운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보색 대비를 통해 밝고 따뜻한 색의 인물들은 앞으로 진출하고 어두운 녹색의 배경은 뒤로 빠지면서 인물들은 관객의 시선을 끌어당긴다. 사람들이 고전주의 그림에 쉽게 몰입하는 이유는 마치 연극 무대처럼 강한 명도 대비와 색채 대비를 통해 시선을 강하게 흡수하기 때문이다.

고전주의 회화가 연극처럼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구도가 엄격하다는 ㉡ 데 있다. 앞에서 예로 든 「소크라테스의 죽음」에는 등장인물이 많다. 얼핏 보면 등장인물들이 자유롭고 다양한 표정과 자세를 취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이루어졌다고 느끼기 어렵다. 하지만 그림을 이루는 조형 요소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많은 조형 요소들이 기계 부속처럼 전체의 조화를 위해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흠어진 별들을 이어서 별자리를 만드는 것처럼, 등장인물들의 머리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연결해 보자. 이렇게 연결한 구도의 흐름은 내려갔다 올라가고 둥글게 도는 등 쉬지 않고 리듬감 있게 이어져 단조로움을 피하고 있다. 그림은 멈추어 있지만 구도의 흐름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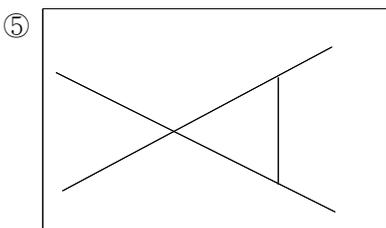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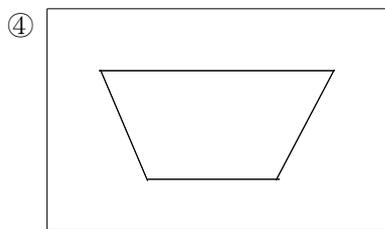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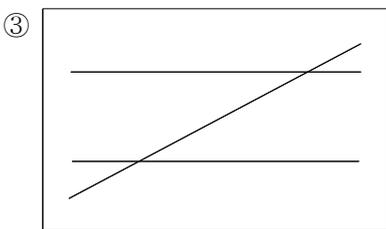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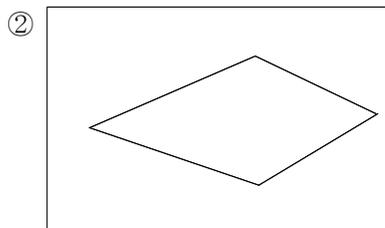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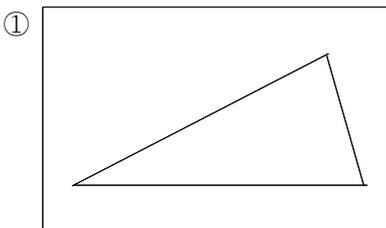
또한 이 그림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림 전체를 관통하는 커다란 직선들이 있다. 먼저 우리가 보기에 화면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의 왼쪽 발에서 출발하여 소크라테스의 오른발을 거치고 독배를 건네는 사람의 왼쪽 팔꿈치를 거쳐 화면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의 머리로 연결되는 직선 구도가 있다. [A]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왼손에서 머리로, 다시 오른손으로 연결되는 직선 구도가 있는데, 이 선을 연장하면 독약이 든 잔을 거쳐 독약을 건네주는 이의 왼쪽 팔꿈치로 연결되고 그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의 어깨로 이어져 있다. 이 외에도 소크라테스의 머리, 왼쪽 무릎, 왼발과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의 오른손, 오른발도 하나의 축을 이루며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화면을 구성하는 조형 요소들의 짜임새 있는 구도는 하나의 완벽한 조형을 이루기 위해서 작가가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세밀하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겉으로는 자연스러워 보이는 형태일지라도 그것은 작가가 화면 전체를 장악하여 건축물을 세우듯이 조형 요소들을 구축한 결과라는 것, 그래서 하나의 조형을 만드는 것은 기분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이러한 ㉢ 고전주의 회화의 원리는 다른 여러 스타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기본 원리이므로, 순수미술이나 디자인 또는 어떠한 장르에서라도 동일한 중요성을 가진다.

33.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양 강연을 한다고 할 때,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효과적인 인물 배치 방법
  - 연극 원리의 회화적 적용에 관하여
- ② 고전주의 회화와 연극 비교
  - 인물의 예술적 형상화 방식을 중심으로
- ③ 고전주의 회화의 원리와 실제
  - 다비드의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중심으로
- ④ 명도 및 색채 대비의 시각적 효과
  -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 ⑤ 고전주의 회화에 쉽게 몰입하는 이유
  - 사실적이고 실감나는 표현을 중심으로

34. [A]의 내용으로 볼 때, ㉠의 구도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3점)



35. 광고 디자인을 제작하기 위해 구상한 내용 중, ㉠을 적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3점)

- ① 광고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 광고 전체의 조화를 위해 서로 긴밀하게 조직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거야.
- ② 광고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등장인물의 표정이나 몸짓 하나하나까지 섬세하게 연출해야 할 필요가 있어.
- ③ 의도성을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자유분방한 인물들의 모습을 포착함으로써 개성과 역동성이 느껴지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 ④ 소재들을 배치함에 있어서 리듬감 있게 이어지는 구도를 통해 단조로움을 피하는 동시에 생동감이 느껴지도록 해 보면 어떨까?
- ⑤ 광고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켜야 할 부분은 밝게 처리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은 어둡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어.

36. <보기>는 ㉠의 띄어쓰기와 관련하여 찾아본 내용이다. <보기>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띄어쓰기가 잘못된 용례에 해당하는 것은? (2점)

<보 기>

‘-는데’와 ‘-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띄어쓰기이다. 두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어미 ‘-는데’는 붙여 써야 하지만,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과 ‘곳이나 장소, 일이나 것, 경우’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데’가 합쳐진 표현인 ‘-는 데’는 띄어 써야 한다.

- ① 그 책을 읽는데 삼 일이 걸렸다.
- ② 열쇠는 문을 여는 데 쓰는 도구다.
- ③ 그는 노래는 잘 부르는데 춤은 잘 못 춘다.
- ④ 그는 오직 졸업장을 따는 데 목적이 있었다.
- ⑤ 밖에 눈도 많이 오는데 차를 몰고 나가지 마세요.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박영하 기자는 한때는 한 달에 특종을 세 번이나 할 정도로 뛰어난 기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꼬치꼬치 따지며 파고드는 버릇도 없어졌고, 정치나 시국 이야기가 나오면 자리를 피한다. 그런 그에게 동네 영감들은 패륜아의 소행을 신문에 내달라고 부탁한다. 부정한 세무서 과장과 불의한 경찰서 형사를 혼쭐내었던 적이 있는 동네 영감들이지만 부모를 학대하는 막돼먹은 또철이는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또철이는 동네 영감들이 '또철이'라 이름 붙인 셰퍼드가 자기를 보고 짖어대자 이를 문제 삼아 경찰을 데리고 나타나서 따진다. 그리고 영하에게는 자신의 일을 기사화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다.

울음을 그쳤던 매미가 또 쩌이, 장대 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거침없이 내지르고 있는 매미 소리는, 더위에 내려앉을 것 같은 여름 한낮에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한 줄기 시원한 분수였다.

매미는 지상의 생애 1주일 혹은 3주일을 살려고 땅 속에서 7년 내지 17년을 유충으로 기다린다는 것이다. 적어도 7년을 벌러 태어나 7일을 살다 죽는, 그 7일로 응축된 매미의 생애가 이상한 감상을 불러왔다. 쩌이 하는 울음소리가 단순한 곤충의 울음으로 들리지 않았다. 그 지나간 기간을 땅 속에서 버르고 벌렸던 자신의 무슨 절실한 의지를 저렇게 단음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저 크고 우람한 소리는 그 짧은 생애 한순간 한순간을 아껴 내지르는 뭔가 그만큼 절실한 삶의 표출일 것이다.

매미 소리에 취해 있던 영하는 책상머리로 갔다. 아까 그 기사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매미처럼 무슨 거창한 소리를 지르자는 것이 아니고 매미 소리를 듣다 보니 뭔가 끄적거리고 싶었다.

△ 개한테 사람 이름을 붙여 말썽이 되고 있다. 시내 ××동 골목 어귀에 몰려 지내는 노인들이 셰퍼드 예다 '또철이'란 이름을 붙였는데, 그 골목 안에 사는 사람 이름이 또철이어서 시비가 붙은 것.

△ 노인들은 사람 이름이라고 개한테 붙이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고 되레 큰소리인데, 그 또철이란 이가 평소 그 부모를 학대한다고 이 노인들이 뉘달하던 다음이라 그 이름 임자는 그게 의도적이라는 것이다.

△ 더구나, 그 또철이라는 셰퍼드는 사람 또철이만 나타나면 눈에 시퍼렇게 불을 켜고 잡아먹을 듯이 짖어 대는 바람에 화를 참다못한 또철 씨가 경찰까지 불러오는 등 골목이 사뭇 소란스러웠다.

△ 다섯 마리의 개를 거느리고 있는 이 영감들은 그 중 한 마리한테는 이토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이토는 조선총독부 초대 총독 이토 히로부미의 이토. 누구든지 이 영감들의 눈 밖에 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개한테도 그 사람의 이름이 붙을 판이다.

써놓고 보니 가십 기사가 될 것도 같았다.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기사가 된다고 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개한테 사람 이름을 붙인 이 사건은 교과서적인 기삿거리라 할 수도 있었다.

또철이의 잘못을 모두 폭로해 달라는 것이 노인들의 주문이었으므로, 그들의 요구에는 좀 빗나간 대로 할 얘기는 한 셈이다. 또 학대라는 말이 불효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았다. 의기양양하게 말하던 민 영감이 떠올라 혼자 웃었다. 영하는 기사를 바지 뒷주머니에다 챙겨 넣고 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다.

<중략>

편집국에 들어섰다. 무슨 일인지 분위기가 싸늘했다. 모두 입을 봉하고 담배만 빼금거리고 있었다. 항상 생글거리던 문화부의 여기자마저 얼굴이 굳어 있었다. 무언가 심상찮은 일이 있음을 직감했다. 대밭에서 와글와글 지저귀던 참새 떼들이 갑자기 지저귀던 소리를 뚝 그치는 경우가 있다. 위험을 감지하는 순간이다. 그 정적 사이에서 한두 마리가 짹짹거리다. 다시 지저귀거나 모두 와르르 날아간다. 그 한두 마리가 짹짹거리는 소리는 괜찮다거나 위험하다는 신호인 모양이었다. 들판에서 끼룩거리며 먹이를 먹던 기러기 떼도 마찬가지로. 망보던 놈이 뭐라 길게 소리를 하면 먹이를 먹던 기러기 떼가 모두 고개를 쳐들고 소리를 뚝 그친다. 바로 그런 분위기였다.

그 때 정치부장이 국장실에서 나왔다. 우거지상이었다.

“제길, 그런 것도 못 쓰면 무얼 쓰란 말이야?”

정치부장은 의자에 엉덩이를 내던지며 창밖을 향해 의자를 핑글 돌렸다. 담배에 불을 붙여 길게 연기를 내뿜었다.

영하에게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다. 신문에 내기만 하면 저 죽고 나 죽겠다고 독기를 피우던 또철이의 눈이었다. 영하는 주머니에서 기사를 꺼내 슬그머니 휴지통에 넣어버렸다. 그가 무섭다기보다 귀찮았다. 뒤미처 골목 영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 줍쌀영감의 차가운 눈이 맨 먼저 떠올랐다. ㉡ 셰퍼드의 시퍼런 눈도 떠올랐다.

- 송기숙, 「개는 왜 짖는가」 -

3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외양에 대한 사실적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작품 밖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인물의 성격 변화 양상을 제시하여 극적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 ④ 반어적 표현을 통해 특정 계층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넘나들며 사건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38. <보기>는 위 글에 대한 해설의 일부분이다.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소설이 발표된 1983년은 폭력적인 권력에 의해 언론이 통제되던 시기였다. 주인공인 박영하가 정치나 시국 이야기가 나오면 자리를 피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 소설은 표면적으로는 또철이의 악행을 기사화하는 것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 작가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 당대 현실의 모습을 풍자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 상황 속에서 신문기자인 박영하가 보여주는 모습은 표현의 자유와 욕망을 상실한, 무기력한 지식인 계층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① ‘거침없이 내지르고 있는 매미 소리’는 무기력하게 침묵하고 있는 영하에게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 ② ‘노인들이 셰퍼드에다 ‘또철이’란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폭력적인 권력에 대한 작가의 풍자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신문에 내기만 하면 저 죽고 나 죽겠다고 독기를 피우던 또철이’는 강압적인 수단으로 언론을 통제하는 권력과 대응될 수 있다.
- ④ ‘주머니에서 기사를 꺼내 슬그머니 휴지통에 넣어버린 것’은 현실과 타협하기를 거부하고자 하는 영하의 의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제길, 그런 것도 못 쓰면 무얼 쓰란 말이야?’라는 정치부장의 말은 부당한 권력에 의해 언론이 통제되고 있는 당대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9. <보기>는 위 글의 앞부분에서 생략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보기>를 고려할 때, ㉠과 ㉡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임자 같은 사람을 신문에 안 내면 뱃을 신문에 낸단 말이여? 개는 짓으라고 있고 신문은 나팔을 불라고 있는 것인데, 개도 못 봐서 짓는 일을 신문기자가 손 개 얹고 있으란 말이여? 신문기자가 개 만도 못 한 줄 알아?”

- ① ㉠과 ㉡에는 기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는 영하의 내면 심리가 투영되어 있는 것 같아.
- ② ㉠과 ㉡에는 진실을 폭로하는 것을 억압하는 현실에 대한 영하의 비판 의식이 투영되어 있어.
- ③ ㉠과 ㉡은 또철이로 대표되는 불의한 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의 슬픔을 나타내는 것 같아.
- ④ ㉠은 현실의 문제는 외면한 채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소시민적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 같아.
- ⑤ ㉡은 폭력을 사용하여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부당한 권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

40. [A]가 <보기>를 바꿔 쓴 것이라 할 때, 바꿔 쓰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편집국에 들어섰다. 무슨 일인지 분위기가 싸늘했다. 모두 입을 봉하고 담배만 빼금거리고 있었다. 항상 생글거리던 문화부의 여기자마저 얼굴이 굳어 있었다. 무언가 심상찮은 일이 있음을 직감했다. 잇을 만하면 터졌던 일이 또 터진 것 같았다. 나는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내 자리를 찾아 갔다. 취재한 기사는 반드시 쓰는 김 기자의 침통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어제 보도된 그의 최○○ 장관 관련 기사가 문제가 된 것 같았다. 예전에 기사가 문제가 됐을 때의 그런 분위기였다.

- ①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 암시한다.
- ② 주인공이 사건의 전후 사정을 분명히 파악하게 한다.
- ③ 서술의 초점을 전환하여 새로운 사건을 암시한다.
- ④ 서술 방식에 변화를 주어 긴장감을 해소한다.
- ⑤ 사건을 추가하여 침울한 분위기를 심화한다.



2008학년도 언어 영역 정답표

문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답	④	③	④	③	③	①	②	②	②	④	③	②	⑤	②	④	③	①	⑤	②	④
문항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정답	⑤	③	②	④	⑤	①	①	③	⑤	⑤	①	⑤	③	⑤	③	①	②	④	①	①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